

| 역사한자 2021 Conference

古代 해석을 위한 古漢字

- 일시: 2021년 12월 24일(금) 13:00~18:00
- 장소: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
- 주관·주최: 홍익재단

홍익재단

프 로 그 램

접수 [13:00-13:30]

개회식 [13:30-13:50]

개회사 문치웅(홍익재단 이사장)
행사소개/내빈소개

진행: 나행주(건국대)

발표 [14:00-16:50]

제1발표 [14:00-14:30]

고문자 속의 '祀'와 '祠'

- 이유표(동북아역사재단) 토론: 김남중(전남대)

제2발표 [14:30-15:00]

동주(東周)와 진한(秦漢)시기의 五方기록 고찰

- 조용준(중국 인민대) 토론: 권민균(공주대)

제3발표 [15:00-15:30]

은상(殷商)과 주대(周代) 문헌에 보이는 五方の 확대 형태

- 박성우(홍익재단) 토론: 김진희(전북대)

휴식 [15:30-15:50]

제4발표 [15:50-16:20]

한문 고문헌 속의 관작명에 대하여

- 이경숙(공주대) 토론: 정덕기(서울대)

제5발표 [16:20-16:50]

『三國遺事』의 '得'에 대한 고찰

- 양원석(고려대) 토론: 주강훈(신한대)

휴식 [16:50-17:00]

종합토론 [17:00-17:50]

좌장: 한연석(공주대)

폐회 [17:50-18:00]

진행: 나행주(건국대)

역사한자 2021 Conference

古代 해석을 위한 古漢字

목차

【제1발표】 고문자 속의 ‘祀’와 ‘祠’	3
▶ 이유표(동북아역사재단)	
토론: 김남중(전남대)	
【제2발표】 동주(東周)와 진한(秦漢)시기의 五方기록 고찰	23
▶ 조용준(중국 인민대)	
토론: 권민균(공주대)	
【제3발표】 은상(殷商)과 주대(周代)에 보이는 五方の 확대 형태	47
▶ 박성우(홍익재단)	
토론: 김진희(전북대)	
【제4발표】 한문 고문헌 속의 관작명에 대하여	71
▶ 이경숙(공주대)	
토론: 정덕기(서울대)	
【제5발표】 『三國遺事』의 ‘得’ 에 대한 고찰	91
▶ 양원석(고려대)	
토론: 주강훈(신한대)	

역사한자 2021 Conference
古代 해석을 위한 古漢字

【제1발표】 고문자 속의 '祀'와 '祠'

▶ 이유표(동북아역사재단)

【제2발표】 동주(東周)와 진한(秦漢)시기의
五方기록 고찰

▶ 조용준(중국 인민대)

【제3발표】 은상(殷商)과 주대(周代)에 보이는
五方の 확대 형태

▶ 박성우(흥익재단)

1 고문자 속의 '祀'와 '祠'

이유표(동북아역사재단)

목 차

1. 들어가며
2. 고문자 속의 '祀'
3. '祠'의 용례
4. 맺음말

1. 들어가며

'祀'와 '祠'는 모두 제사와 관련된 글자로, 현재 '祀'는 제사라는 행위를, '祠'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동한(東漢) 시기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보면, '祀'와 '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1) 祀, 제사를 그치는 일이 없다. '示'를 구성요소로 하고, '巳'로 읽는다. 禘, 祀는 혹은 '異'를 구성요소로 삼기도 한다.¹⁾

(2) 祠, 봄 제사를 '祠'라고 한다. <제사 지내는> 물품은 적지만 문사(文詞)가 많다. '示'를 구성요소로 하고, '司'로 읽는다. 중춘(仲春, 곧 음력 2월)에 지낸다. '祠' 제사는 희생을 쓰지 않고, 규벽(圭璧) 및 피폐(皮幣)를 쓴다.²⁾

1) 祀, 祭無已也。从示, 巳聲。禘, 祀或从異。

2) 祠, 春祭曰祠。品物少多文詞也。从示, 司聲。仲春之月, 祠不用犧牲, 用圭璧及皮幣。

허신의 해설과 현재의 용례를 비교해 보면, ‘祀’는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상통하지만, ‘祠’는 현재 사당(祠堂)을 가리키는 ‘祠’의 용법으로 많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예와 지금의 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중국의 글자는 기원전 13세기 무렵의 갑골문(甲骨文)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동한(東漢) 시기와 약 1300-1500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허신이 『설문해자』를 편찬할 때의 용례와 상주(商周) 갑골문과 금문(金文)의 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살펴볼 ‘祀’와 ‘祠’의 용법은 어떠했을까? 『설문해자』의 용법과 일치할까?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

2. 고문자 속의 ‘祀’

전술했듯이, 『설문해자』에 보면, ‘祀’는 “제사를 그치는 일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설문해자』에서 분석한 대로, ‘示’와 ‘巳’로 구성된 형성자다. 그 중 ‘巳’에 대해서 『설문해자』는 별도의 항목을 마련해 “巳, 이미 ‘巳’다. 4월에는 양기(陽氣)가 이미 나오고, 음기(陰氣)가 이미 숨고, 만물이 드러나게 되어서, 문장(文章)을 이루게 되니, 그러므로 ‘巳’는 ‘뱀’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³⁾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대로 해석해 보면, 4월에 양기가 ‘이미’ 나오고, 음기가 ‘이미’ 들어간 때, 뱀은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나온다. 그래서 ‘巳’를 ‘巳’라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수달(楊樹達)은 다음과 같이 흥미롭게 풀고 있다.

『논형(論衡)』 「물세(物勢)」편에 이르길, “巳는 뱀이다(巳, 蛇也)”라고 하였고, 「언독(言毒)」편에도 “巳는 뱀이다(巳爲蛇)”라고 했는데, 이는 허신의 설에 부합된다. 『초사(楚辭)』 「천문(天問)」편에 이르길 “한 뱀이 코끼리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 크기가 어떠한가(一蛇食象, 厥大何如)”라고 하였고, 『산해경(山海經)』 「해내남경(海內南經)」에서는 “파사(巴蛇)가 코끼리를 먹는다. 3년이 지나서야 그 뼈가 나온다(巴蛇食象, 三歲而出其骨).”⁴⁾고 하였으니, 뱀 중에






3) 巳, 巳也. 四月陽氣已出, 陰氣已藏. 萬物見成文章, 故巳爲蛇. 象形. 凡巳之屬皆从巳.

4) 양수달 주: 『설문』 13편 하 ‘파부(巴部)’에, “파, 충이다(巴, 蟲也). 일명 코끼리를 먹는 뱀이라 한다(一曰食象蛇).”라고 하였다.

큰 것은 가히 놀랄 만한데, 이미 이러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설문』 ‘타부(它部)’에서는 “상고 시기 풀에 거하였는데, 이를 우환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서로 묻기를 ‘무타하나(上古草居患它, 故相問無它)’ 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⁵⁾ 이처럼 뱀은 사람과 가까운 데 거하였다.....『한비자(韓非子)』 「세림상(說林上)」편에 다음과 같이 이르고 있다. “뭇이 마르자, 뱀이 장차 이사를 하려고 하였다. 작은 뱀이 큰 뱀에게 이르길, ‘그대가 가면 나는 따라갈 것인데, 사람들은 뱀이 지나가는구나 여기고 반드시 그대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오. 우리 둘이 서로 붙어 가는 것이 어떠오? 그대가 나를 업고 가면 사람들은 나를 신군(神君)으로 여길 것이오. 이에 서로 붙어서 큰 길로 다니면, 사람들이 모두 피하면서 신군이다! 라고 할 것이오.’ ” 무릇 뱀을 본래 ‘신군’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는 전설일 뿐일까? 그렇지 않으면 말, 소, 돼지, 개 따위가, 비록 큰 것이 작은 것을 업고 가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신군’으로 일컬으며 피할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옛 사람들에게는 뱀을 두려워하여 신으로 섬겼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고대에 반드시 뱀을 제사하는 풍속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글자가 ‘示’와 ‘巳’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후 널리 쓰이면서 일반 제사를 일컫게 된 것이다.⁶⁾












바로, 고대에 뱀을 제사지내던 습속으로 인해, 뱀을 가리키는 ‘巳’자가 제사를 나타내는 ‘示’자와 결합되어 제사를 일컫는 보통명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서증서는 ‘巳’자의 원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祀’는> ‘示’와 ‘巳’를 구성요소로 한다. ‘巳’의 초형은 마땅히 인데, 는 제사 때 신주를 상징하는 어린 아이로, 또한 후세에 와 변되어 ‘尸’자가 된 것이다. 고대 제례에서 ‘축이 시동을 맞이(祝迎尸)’할 때 ‘시동을 세우(立尸)’는데, 곧 성인의 목 위로 시동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 자는 곧 아들(시동)을 사람의 목 위로 들어 올리는 것으로 제사를 나타내는 뜻이다. 이는 최초의 ‘祀’자다. 는 또 와변되어






5) 양수달 주: 它是 蛇의 초문(初文)이다.

6) 「語源學論文七篇」, 『師大月刊』 第14期

·, ·, 등의 형태로 되었고, 혹 ·, 로 형태가 생략되기도 하였
고, ·, 혹 ·, 이 ·, 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후에 어린 아이를 나
타내는 ·, 와 제사의 ·, 를 구별하여, 이에 ·, 의 생략 형태인
·, 를 사람이 무릎을 꿇은 형태와 비슷한 ·, 처럼 아래 획은 약간 굽
혀서, 제사를 나타내는 전용자로 삼은 것이다.⁷⁾

곧, ‘巳’자는 성인이 시동을 들어 올리는 데서 유래했고, 원래는 ·, ·,
등으로 쓰다가 훗날 간화되어 ·, 로 쓰였다는 것이다. 곧 제사를 구성하는
어떤 행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 것이다.

곽말약(郭沫若)은 「釋支干」에서 ‘巳’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자는 갑골복사 출토 이후 크게 사람들을 놀래켰다. 대개 12지지의 여
섯 번째 글자가 갑골문에서 모두 ‘巳’로 되어있지 않고 ‘子’로 되어 있
던 것이다. 글자의 형태는 ·, ·, 혹은 ·, 로, 글자는 분명
‘子’자였다. 또 간지표에도 확실히 ‘辰’자 다음 ‘午’자 앞으로, 여섯
번째 지지인 ‘巳’의 자리에 해당한다..... ‘巳’가 ‘子’로 쓰였다면, 허신
의 해석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또 허신은 “‘巳’는 ‘它’로 상형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巳’의 본의를 또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갑골문의
‘巳’자는 사실 사람의 모습을 상형한 것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祀’자가 ·, ·, 처럼 사람이 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이를 정리해 보면, 간지로 쓰인 ‘巳’는 모두 ‘子’로 되어있고, 제사의 용례
로 쓰인 ‘巳’는 사람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여겼다. 간지
로 쓰인 ‘巳’와 제사의 용례로 쓰인 ‘巳’가 원래 다른 글자였을 가능성을 제
시한 것이다.

또 마서륜은 ‘巳’자와 ‘子’자가 원래 같은 글자였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하
였다.

7) 『甲骨文字典』卷1

8) 「釋支干」, 『甲骨文字研究』

양환(楊桓, 1234-1299)은 배태에서 약간 형성된 형태를 ‘巳’라 하였고, 다 큰 것을 ‘子’라 하였다. 나는 ‘巳’와 ‘子’가 사실 한 글자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𠄎’는 ‘始’의 초문이자 또한 ‘胎’의 초문이다. 옛날에는 태아가 배 속에 있을 때 머리가 위를 향한다고 하였는데, ‘𠄎’자가 이를 상형한 것이다. 현재 의사들의 실험 결과 태아가 배 속에 있을 때 머리는 또한 아래를 향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𠄎’자가 이를 상형한다. 이는 비록 글자의 형태가 위아래로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 글자다. 그 독음에 대해서는 오역(吳域), 고염무(顧炎武)부터 여러 학자들이 증명했듯이 ‘巳’와 ‘巳’의 옛 독음은 다르지 않았다.....그러므로 ‘巳’를 뱀으로 여긴 것은 한나라 사람들이 역(易)을 말할 때, ‘巽’을 ‘蛇’로 여기고, ‘巽’을 ‘巳’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지, ‘巳’가 ‘蛇’를 상형한 것은 아니다. 복사에서 ‘巳’를 ‘𠄎’라고 쓰고 ‘巳’로 쓰지 않았다. ‘子’와 ‘巳’는 한 글자로, 갑자의 ‘子’는 ‘𠄎’로 썼는데, ‘𠄎’는 자녀의 ‘子’의 본자(本字)이다.⁹⁾

이 여러 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수달은 허신의 설을 따라, ‘사’를 뱀에서 온 것으로 여겼지만, 서중서, 곽말약, 마서륜 등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巳’자가 갑자(甲子)를 나타내는 ‘진사오미(辰巳午未)’의 ‘사(巳)’로 쓰일 때 ‘𠄎’형태로 쓰였는데, 양수달의 설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둘째, 서중서와 곽말약은 ‘巳’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르지만, ‘巳’가 제사와 관련된 어떤 행위에서 유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 이중, 서중서의 설은 갑자를 나타내는 ‘巳’가 왜 ‘𠄎’로 쓰였는지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𠄎’, ‘𠄎’ 등의 형태가 ‘祀’와 통가되는 용례가 많지 않고, 족휘(族徽, 혹은 족씨명문)의 용례로 쓰이는 사례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통해, 이 글자가 정말로 ‘祀’의 초문인지 의문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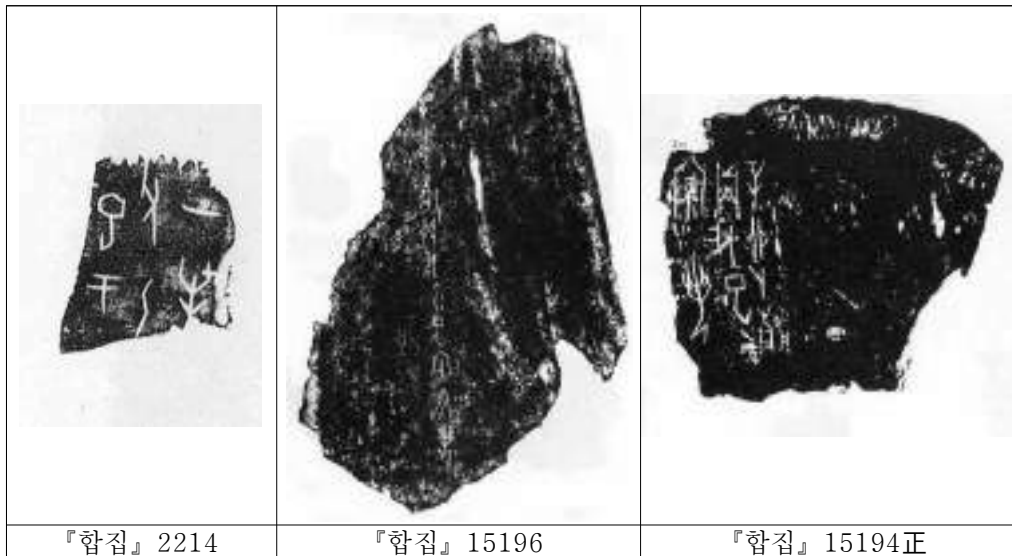
셋째, 마서륜은 원대 양환의 설을 발전시켜, ‘巳’와 ‘子’가 본래 한 글자였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𠄎’의 상하 반전인 ‘𠄎’를 ‘시(始)’, ‘태(胎)’와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지만, 만약 ‘巳’와 ‘子’가 같은 글자라

9) 『說文解字六書疏證』 卷28

면, 간지표에서 이 두 글자가 분화된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용례에서 서로 통가되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 점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넷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놓고 봤을 때, 현재 ‘巳’의 용법을 의식하여 해석하는 듯한 경향도 보인다. 다시 말해, 양수달이 ‘巳’를 뱀으로 해석한 것은 ‘巳’가 뱀을 상징한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고, 마서룬이 ‘巳’와 ‘子’가 원래 한 글자라고 여긴 것 또한 간지표에서 ‘巳’ 자리에 ‘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학자들이 ‘巳’의 연원을 살펴보면, 갑골복사에서 간지로 쓰인 ‘巳’를 제외한 용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巳’의 연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용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祀-1) 巳于父乙 (『합집』 2214)

(祀-2) 辛卯卜, 貞, 我勿巳, 不若 (『합집』 15196)

辛卯卜, 貞, 我已, 若 (『합집』 15194正)

(祀-3) 貞, 巳河 (『戰後南北所見甲骨錄』 5.34)

(祀-1)은 ‘부을’에 제사지내는 의미이고, (祀-2)는 신묘일에 我이라는 사람이 점을 치는데, ‘巳’라는 곳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점치고 있다. 그리고 (祀-3)은 ‘하(河)’, 곧 황하를 제사지내는 것을

점치고 있다. 여기서 ‘巳’는 모두 ‘제사 지내다’라는 동사로 쓰였다. 이밖에 여러 사례에서도 대체로 ‘제사 지내다’라는 동사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巳’의 본의 또한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양수달, 서중서, 곽말약의 의견 모두 제사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양수달은 ‘巳’를 뱀과 연결시키는 현재적 의미, 곧 ‘巳’가 12지신 가운데 ‘뱀’을 가리킨다는 것에서 논의를 전개한 것이고, 서중서의 의견은 스스로가 ‘巳’의 초문이라 여긴 의 용례 가운데 ‘巳’ 혹은 ‘祀’와 치환되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곽말약의 의견처럼, ‘巳’를 무릎 꿇는 것을 형상화 한 것으로 파악하여 ‘祀’를 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다른 두 설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祀’는 ‘示’를 구성요소로 하고, ‘巳’를 독음으로 해석한 형성자로 보기도 하지만, 곽말약의 해석대로 보면, 신을 나타내는 ‘示’,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인 ‘巳’로 보아, 상형 혹은 회의의 용법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고문자에서 ‘祀’는 ‘제사’의 용례로 많이 쓰였다.

(祀-4) 其祀于多先祖 (『殷墟文字乙編』 2587)

(祀-5) 我其祀于河 (『殷契佚存』 860)

이 용례는 ‘巳’와도 치환될 수 있는데, (祀-1)과 (祀-4)는 조상을 제사 지내는데 각각 ‘巳’와 ‘祀’를 썼고, (祀-3)과 (祀-5)은 황하를 제사지내는데 각각 ‘巳’와 ‘祀’를 썼다. 이는 두 글자가 같은 글자로, ‘祀’가 ‘巳’의 후기자(後起字)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巳’는 해 ‘年’을 나타내는 용례로 많이 쓰였다. 이 용례는 전래문헌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상서(尙書)』 「홍범(洪範)」 편에 “<왕> 13년, 왕이 기자(箕子)를 방문하였다”¹⁰⁾에서 볼 수 있다. 『이아(爾雅)』 「석천(釋天)」은 “하(夏)는 ‘歲’라고 하였고, 상은 ‘祀’라 하였으며, 주(周)는 ‘年’, 당우(唐虞)는 ‘載’라 하였다”¹¹⁾고 하면서, 왕조에 따른 용법의 차이로 해석하였다. 하와 당우의 경우는 고증할 수 없지만, 출토문헌에 의하면 상과 주가 각각 ‘祀’와 ‘年’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이 ‘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삼국시대의 손염(孫炎)은 홍미

10) 惟十有三祀, 王訪于箕子

11) 夏曰歲, 商曰祀, 周曰年, 唐虞曰載

로운 설을 제기했는데, 바로 상나라 사람들은 사계절의 제사를 한 주기로 삼아, 이 주기를 끝냈다는 의미로 ‘祀’를 썼다고 해석한 것이다. 곽박(郭璞) 또한 『이아』 주석에서 “사계절이 한 번 끝난 것에서 취한 것이다”¹²⁾라고 하였다.

1940년대 동작빈(董作賓)은 갑골복사를 정리하다가 ‘용(彡)’, ‘익(翌)’, ‘제(祭)’, ‘𠄎’, ‘𠄎’ 등 다섯 제사가 1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른바 ‘주제(週祭)’ 제도를 발견하였다. 동작빈은 『은력보(殷曆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은대 왕의 연대를 기록하는 것은 현재 복사에 보이는 ‘祀’가 유일하다. 예컨대, ‘隹王二祀’, ‘王廿祀’로 일컫는 것이 그러하다. 또한 해를 칭하는 것으로 ‘歲’가 있다...내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은나라 사람들이 1년을 ‘1祀’라 일컫는 것은 제을(帝乙), 제신(帝辛) 때의 일이다. 이는 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 전에는 ‘祀’ 혹은 ‘年’을 일컫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른바 ‘주제’라는 것은 상나라 후기에 성행한 일종의 체계적인 제사 시스템으로, ‘翌’, ‘祭’, ‘𠄎’, ‘𠄎’, ‘彡’ 등의 다섯 제사로 구성되었다. 제사 대상은 상왕의 직계 조상인 ‘상갑(上甲)’부터 ‘강정(康丁)’에 이르는 31명의 선왕(선공 포함)과 시임(示壬)의 배우자 ‘비강(妣康)’부터 강정의 배우자인 ‘비신(妣辛)’에 이르는 20명의 선비(先妣)로, 상왕실 및 귀족들은 이들에 대한 제사를 36순(360일) 혹은 37순(370일) 동안 반복하였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아』 「석천」의 “商曰祀”가 바로 이 ‘주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고, 또 손염과 곽박 등의 인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해 주었다.

(祀-6) 癸巳, 王賜小臣邑貝十朋, 用乍母癸尊彝. 隹王六祀, 彡日, 在四月.

(祀-7) 壬申, 王易亞魚貝, 用乍兄癸尊. 在六月, 隹王七祀, 翌日.

(祀-8) 甲子, 王易寢孳, 商用乍父辛尊彝. 在十月又二, 邁祖甲 𠄎日,
隹王廿祀.

해 ‘年’의 용례로 쓰인 ‘祀’는 ‘司’로 쓰이기도 한다.

12) 取四時一綜

(祀-9) 癸未王卜, 貞, 旬亡**𠄎**? 在九月, 在上**𠄎**. 王**𠄎**司 (『합집』 37863)

(祀-10) 癸未卜, 在上**𠄎**, 貞, 王旬亡**𠄎**, 在九月, 王**𠄎**司 (『합집』 36856)

‘司’자는 우리가 흔히 말을 ‘司’로 부르는 한자로, 제사 ‘祀’와 같은 용례로 쓰이는 것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司’와 ‘祀’의 독음이 비슷하여 통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司’에서 파생된 ‘祠’자가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司’를 ‘祀’의 용법으로 쓰는 것은 단순히 음이 비슷해서 통가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을 지도 모른다.

3. ‘祠’자의 용례

『설문해자』는 ‘祠’를 뜻을 나타내는 ‘示’와 소리를 나타내는 ‘司’가 결합된 형성자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허신은 ‘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祠-1) 司, 신하로써 밖에서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后’를 뒤집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司’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司’를 구성요소로 따른다.¹³⁾

곧 허신이 파악한 ‘司’의 의미는 현재적 의미인 ‘맡다’와 큰 차이가 없다.

전래문헌의 용례를 보도록 하자. 『시경(詩經)』「정풍(鄭風)·고구(羔裘)」에 “우리 님이여! 나라의 백성 바로 다스리는 일을 맡으셨네”¹⁴⁾라는 구절이 있는데, 『모시(毛詩)』는 ‘司’를 ‘主’로 풀이하였는데, 곧 ‘주관하다’의 용례로 파악한 것이다. 이 용례는 문헌에 자주 보이는 용례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1년’에 “실로 태호(太昊)와 유제(有濟)의 제사를 주관하다”¹⁵⁾, 『논어(論語)』「태백(泰伯)」에서 “제기[邊豆]와 관련된 일은 유사(有司)가 담당한다”¹⁶⁾ 등에서도 ‘주관하다’, ‘담당하다’의 용례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司’자의 용례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용례는 ‘직무’와 결합되어 ‘관직명’을 이루는 용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마(司馬)’, ‘사도(司徒)’, ‘사

13) 司, 臣司事於外者. 从反后. 凡司之屬皆从司

14) 邦之司直

15) 實司大皞與有濟之祀

16) 邊豆之事, 則有司存

공(司空)’은 물론, ‘사구(司寇)’, ‘사복(司僕)’, ‘사성(司城)’, ‘사궁(司宮)’, ‘사에교위(司隸校尉)’ 등 많은 관직명에 ‘司’ 자가 들어간다. 이는 ‘주관하다’, ‘담당하다’의 용례가 관직명에 녹아들어간 용례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司’자가 ‘찾다(察)’, ‘살피다(伺)’ 혹은 ‘계승하다(嗣)’ 등과 통가된 용례로 쓰인 사례다. 예컨대, 『주례(周禮)』 「지관(地官)·사씨(師氏)」의 “(사씨는) 호문(虎門)의 왼편에 거하여 왕의 조회함을 살핀다”¹⁷⁾고 하였고, 「매씨(媒氏)」에서는 “남녀 가운데 배우자가 없는 자를 찾아 모이게 한다”¹⁸⁾ 등 ‘찾다(察)’ 혹은 ‘엿보다(伺)’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있다. 이 밖에, 『상서(尙書)』 「고종용일(高宗彤日)」의 ‘王司敬民’이 『사기(史記)』에 “王嗣敬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司’와 ‘嗣’ 사이에 통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전래문헌의 용례를 종합해 보면, ‘司’의 주된 뜻은 ‘주관하다’, ‘담당하다’로 쓰이다가 직무와 결합되어 ‘司+직무’의 관직명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伺’, ‘嗣’ 등과 통가되는 용법으로도 종종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허신 『설문해자』의 “司, 신하로서 밖에서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后’를 뒤집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司’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司’를 구성요소로 따른다.”의 범주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갑골문(甲骨文)과 금문(金文) 등의 출토문헌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로 쓰였을까?

일찍이 마서륜(馬敘倫)은 ‘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司’는 대개 ‘𠄎’를 구성요소로 하는데, 곧 ‘匕箸’의 ‘匕’이다. ‘口’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은 ‘匕’를 ‘口’에 갖다내는 것이다. 곧 어린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뜻이다. ‘飼’, ‘伺’의 초문(初文)으로, 마땅히 ‘口’부에 들어가야 한다.¹⁹⁾

그러나 주방포(朱芳圃)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마씨(馬氏, 곧 마서륜)의 설은 그르다. 글자는 ‘𠄎’를 구성요

17) 居虎門之左, 司王朝

18) 司男女之無夫家者而會之

19) 『說文解字六書疏證』卷17

소로 하고, ‘ㄱ’을 구성요소로 한다. ‘ㄷ’은 곧 작은 그릇(甗)으로, 음식을 담은 기물이다. ‘ㄱ’은 ‘ㄱ’을 뒤집은 글자로, 음식물을 뜨는 기구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음식을 차리는 것으로, 곧 ‘司’의 본의이다.²⁰⁾

이 두 의견을 종합해 보면, ‘司’자를 『설문해자』처럼 ‘后’를 뒤집은 모양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여, 글자 자체의 구성요소를 분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두 구성요소 가운데 ‘ㄱ’을 음식물을 뜨는 식기구로 생각한 것 또한 비슷하다. 다만, ‘ㄷ’라는 구성요소를 ‘입’으로 보고 ‘음식물을 먹는 것’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릇’으로 보고 ‘음식물을 차리는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

서중서(徐中舒)는 ‘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ㄱ’은 수저(柶)를 뒤집어 놓은 모양을 상형한 것인데, 수저는 음식을 먹기 위한 것이다. 수저를 뒤집어 입에 넣는다는 뜻을 모아(會意) 음식을 먹는 것(進食)으로, 스스로 먹는 것을 ‘司’라고 하고, 남을 먹이고 신을 먹이는 것 또한 ‘司’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제사를 지낼 때 신지(神祇)에 헌식(獻食)하는 것 또한 ‘司’라고 일컫었다. ‘祠’는 후기자(後起字)다. 씨족사회에서 식물(食物)은 공동 분배하는데, 식물 분배를 주관하는 사람 또한 ‘司’라고 일컫는다. 『시경』「정풍」에서 “나라의 백성 바로 다스리는 일을 맡으셨네”의 모씨전(毛氏傳)에 “사, 주관자다(司, 主也)”라고 한 것이 그 사례다. 『설문』에는 ‘ㄷ’은 ‘后’로, ‘ㄱ’은 ‘司’로 여겼는데,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정반(正反) 구분 없이 모두 ‘司’로 여겼다. ‘后’자는 기를 ‘유(毓)’를 가차한 것이다.²¹⁾

서중서 또한 ‘司’를 ‘음식을 먹다’ 혹은 ‘먹이다’로 해석한 부분에서 마서륜의 설과 궤를 같이한다. 서중서는 더 나아가, ‘司’와 ‘祠’의 본자-후기자 관계, ‘司’와 ‘后’의 관계까지 논하였다. 곧 갑골문에 ‘司’의 모양으로 쓰였던 ‘后’의 모양으로 쓰였던 간에 모두 ‘司’로 읽는다고 여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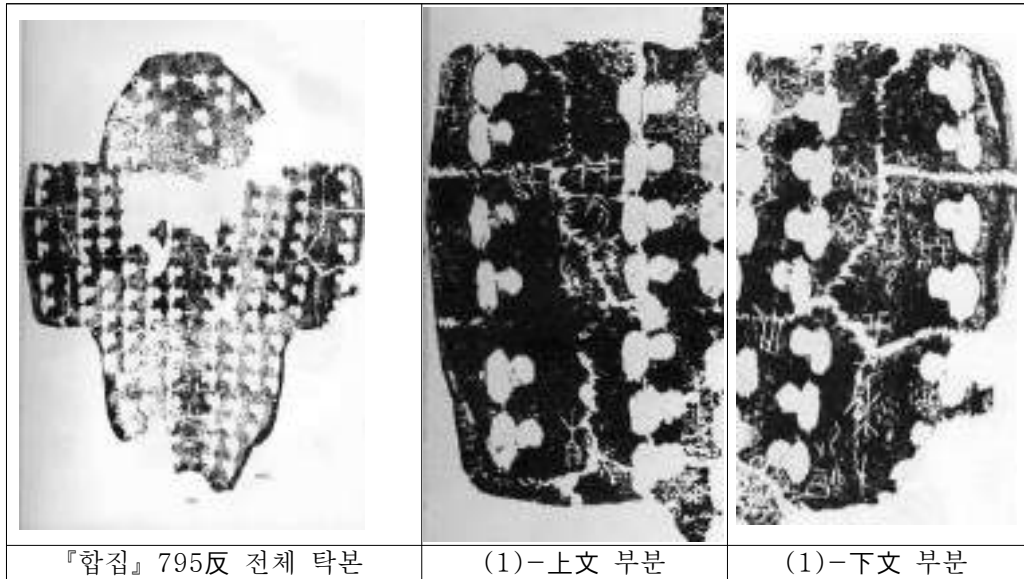
그 용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祠-2) 貞, 佳龔_司婦好

20) 『殷周文字釋叢』 卷中

21) 『甲骨文字典』 卷9

不佳龔司婦好 (『합집』 795反)



이는 ‘’와 ‘’가 비록 좌우 반전의 형태로 다르지만, 이 갑골복사의 문례가 정반의문문의 형태라는 것을 봤을 때, 같은 글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명사’로 ‘龔司’라는 인명으로 쓰였다. 곧 ‘공사’가 ‘부호(婦好)’에 해가 되는지의 여부를 점친 것이다.

(祠-3) 丁酉卜, 兄貞, 其品司.

(『합집』 23712)

(祠-4) 甲戌卜, 白, 司犬.

(『합집』 20367)

(祠-5) 癸卯卜, 今日又司羌. 用. 七月

(『합집』 19863)

(祠-6) 丁未, 有事佳司父.

(『합집』 21691)

(祠-3)에서 (祠-5)는 제사물품을 이용하여 제사지내는 용법으로, (祠-6)는 제사 대상을 제사지내는 용법으로 쓰였다. 곧, 여기서의 ‘사’는 ‘주관하다’ 혹은



‘담당하다’의 의미가 아닌, ‘제사’ ‘祠’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祠’는 『설문해자』의 용법대로 제사명으로 쓰인 용례가 전래문헌에 많이 보인다. 예컨대 『시경』 「천보(天保)」편의 “禴祠烝嘗”에 대해 『이아(爾雅)』 「석고(釋詁)」는 ‘사는 제사다(祠, 祭也)’로 풀이하였고, 『주례』 「춘관(春官)·대중백(大宗伯)」은 “祠 제사로 봄에 선왕에 제사 지낸다”²²⁾고 하였고,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환공(桓公) 8년」에 “춘정월 기묘일, 증(烝) 제사를 지냈다. 증은 무엇인가? 겨울 제사다. 봄 제사는 ‘祠’라 하고, 여름 제사는 ‘禘’이라 하며, 가을 제사는 ‘嘗’이라 하고 겨울 제사는 ‘烝’이라 한다.”²³⁾에 대해 하휴(何休)는 이 구절에 대해, “구란(韭卵) 올리는 것을 높인다. ‘祠’는 ‘食’로, 후사를 잇는 것(繼嗣)과 같다. 봄은 사물이 비로소 생겨날 때로, 효자는 부모를 생각하고 후사를 이으면서 이를 먹는다(혹은 차린다). 그러므로 ‘祠’라고 한다.”²⁴⁾고 하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司’는 ‘祠’와 통하고 또 ‘祠’는 후사를 잇는 ‘사(嗣)’와 통하기 때문에, ‘嗣’ 또한 ‘司’와 통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금문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祠-7) 司余小子 [모공정(毛公鼎) 명문 『집성』 2518]

(祠-8) 余小子司朕皇考 [숙향보우궤(叔向父禹簋) 명문 『집성』 5273]

(祠-9) 我隹(維)司配皇天 [호종(猷鐘) 명문 『집성』 15633]

다음으로 ‘司’가 제사를 지내는 장소, 곧 현재적 의미의 ‘祠’의 용법으로 쓰인 사례도 있다.

(祠-10) 司母大室 (『합집』 30370)

(祠-11) 壬辰卜, 貞, 設司室. (『합집』 13559)

(祠-12) 壬辰卜, 貞, 設司室. (『합집』 13560)

(祠-13) 貞, 設司室. (『합집』 13561)

물론,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 해석하면, ‘사모대실(司母大室)’은 ‘어머니를 제사지내는 대실’, ‘설사실(設司室)’은 ‘제사 지내는 물품을 진열하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司室)’ 같은 경우 그 용례가 다수 보인다는 점을 통해, ‘사실’이라는 것이 하나의 명사처럼 쓰였을 가능성이 있

22) 以祠春享先王

23) 春正月己卯, 烝. 烝者何? 冬祭也, 春曰祠, 夏曰禘, 秋曰嘗, 冬曰烝.

24) 薦尚韭卵, 祠猶食也, 猶繼嗣也. 春物始生孝子思親繼嗣而食之. 故曰祠.

다. 따라서 ‘司’를 사당 ‘祠’의 용례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러한 출토문헌의 용례를 종합해 보면, ‘司’의 본래의 뜻은 ‘먹다’ 혹은 ‘제사지내다’로, 제사 ‘祠’와 이음 ‘嗣’의 용례로도 쓰였으며, 제사 ‘祀’와 통가되기도 하였다. 이는 전래문헌에 보이는 용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오히려 ‘司’의 뜻으로 쓰인 소수 용례에, 그 원시 용례가 일부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앞서 살펴본, 해 ‘年’의 의미로 쓰인 ‘司’의 용법을 보도록 하자. 이 용법을 단순히 ‘祀’와 음이 비슷하여 가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전술한대로 ‘司’는 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글자로, 이러한 맥락의 용례에서는 충분히 ‘祀’와 치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 ‘년’의 의미로 쓰인 ‘司’는 단순한 가차가 아니라, 서사자(書寫者)가 그 용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司’의 본래 의미가 ‘제사’와 관련 있는 것이라면, 전래문헌과 현재 주로 쓰이는 용법, 곧 ‘주관하다’, ‘담당하다’의 의미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글자가 바로 ‘嗣’자다. 『설문해자』에는 말씀 ‘辭’자의 주문(籀文)으로 제시된 바 있다. 고흥진(高鴻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나라 때 ‘司’자가 있는데, ‘구’를 구성요소로 하고, ‘𠄎’를 생략한 것을 구성요소로 하는데, 장관하다는 뜻의 회의자다. 주나라 사람들은 ‘의부’ ‘𠄎’를 더하여 ‘嗣’라 하였다.²⁵⁾

이는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로, ‘嗣’를 뜻을 나타내는 ‘𠄎’와 음을 나타내는 ‘司’의 형성자로 파악한 것이다. 이 글자는 현대 글자로 예정(隸定)할 때 ‘司’자로 고석(考釋)된다. 이는 서주 금문에 보이는 관직명인 ‘嗣工’, ‘嗣土’, ‘嗣馬’ 등이 전래문헌의 ‘司空’, ‘司徒’, ‘司馬’에 대응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嗣’와 ‘司’를 같은 글자로 파악하기도 한다. 『금문편(金文編)』 등 많은 고문자 관련 공구서에서 ‘嗣’를 ‘司’자 밑에 두는 것 또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록 이 글자를 ‘司’자로 고석하고, 또 ‘司’로 읽을 수 있지만, 서주 금문의 용법만 놓고 봤을 때, ‘司’로 쓰인 글자와는 차이를 보인다. 장일승(張日

25) 「頌器考釋」

昇)은 『금문편(金文編)』에 수록된 ‘司’와 관련된 사례를 검토한 후 ‘嗣’는 대체로 ‘관치(官治)’의 뜻, 곧 ‘다스리다’는 뜻으로 쓰였고, ‘司’는 대체로 ‘嗣’의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두 글자는 원래 같은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다.²⁶⁾

이와 관련 일찍이 ‘오대징(吳大澂)’의 의견을 참고할 만하다.

𠄎는 옛 ‘司’ 자다. ‘𠄎’와 ‘ㄱ’를 구성요소로 한다. 허씨는 ‘𠄎’를 ‘다스리다(治)’라고 하고, 독음은 ‘亂’과 같다고 하였다. 대징이 살피건대, ‘𠄎’는 두 손으로 실을 치는[理] 모양을 형상화 한 것으로, ‘理’는 곧 ‘治’로 그렇지 않으면 ‘亂’이 된다. ‘ㄱ’는 실을 치는 기구이다.²⁷⁾

바로 ‘嗣’라는 글자에서, ‘口’라는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파악한 것으로, 이는 ‘嗣’와 ‘司’의 문자적 관계를 되짚어 보는데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학자들이 ‘司’와 ‘嗣’를 같은 글자로 인식하고 있다. 고문자를 고석(考釋)하는 측면에서, 현재의 글자로 고문자를 해석하는 측면에서, ‘司’와 ‘嗣’는 모두 ‘司’로 고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司’자의 주요 용례인 ‘주관하다’, ‘담당하다’ 등은 서주 금문에 보이는 ‘嗣’의 용례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두 글자의 용법이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은 최소한 서주 시대에는 이 두 글자가, 서로 같은 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司’는 원래 ‘먹다’, ‘떡이다’의 의미로, ‘헌식(獻食)하다’, ‘제사지내다’의 용례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사지내다’의 용례는 훗날 ‘祠’자가 대체하였다.

둘째, ‘司’는 또 ‘계승하다’의 의미로도 쓰였는데, 이 용례는 훗날 ‘嗣’자가 대체하였다.

셋째, 실을 치는데서 유래한 ‘𠄎’자가 서주시기에 ‘주관하다’, ‘담당하다’의 용례로 널리 쓰였고, 구분부호 혹은 글자를 장식하기 위한 구성요소 ‘口’와 결합되어 ‘嗣’로도 쓰였다. 이는 직무를 나타내는 한자와 결합되어 관직명으

26) 『金文詁林』 卷11

27) 『說文古籀補』 卷9

로 널리 쓰였다. ‘嗣土’, ‘嗣工’, ‘嗣馬’ 등이 그 대표적인 용례다. 훗날 이 글자는 ‘司’로 간화되었다.

넷째, 전래문헌의 용례를 보면, 𠄎 혹은 嗣는 『설문해자』에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辭’의 주문(籀文)으로 잘못 들어가 있다. 그러나 비록 훗날 그 ‘字’는 사라졌지만, 그 ‘訓’과 ‘意’는 ‘司’자의 용례로 그대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司’의 초기 용례인 ‘먹다’의 의미는 현재 사라졌고, 제사와 계승의 용례는 각기 후기자인 ‘祠’와 ‘嗣’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현재 ‘司’의 주된 용례인, ‘주관하다’, ‘담당하다’와 ‘司空’, ‘司馬’, ‘司徒’ 등 관직명으로 쓰인 용례는, 원래 고문자 ‘司’의 용례가 아닌, 𠄎(嗣)의 용례로, 이 글자가 훗날 ‘司’로 간화되면서 그 용례도 고스란히 ‘司’의 용례가 되어, 오히려 ‘사’의 본의를 대체하여, ‘사’의 주된 용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고문자 속에서 ‘祀’와 ‘祠’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째, 자의(字意) 방면에서, ‘祀’와 ‘祠’ 모두 제사를 의미한다는 점에 있어서, 『설문해자』의 해석과 대동소이하였다. 그러나 문자학적인 방면에서, 『설문해자』는 ‘祀’와 ‘祠’ 모두 형성자로 파악하였으나, 여러 학자들의 의견 및 고문자 상의 용례를 고려해 봤을 때, ‘祀’와 ‘祠’ 모두 단순한 형성자라기 보다는 ‘상형+회의’적 요소 또한 짙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祀’와 ‘祠’를 각각 구성하는 ‘巳’와 ‘司’는 독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祀’와 ‘祠’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나라가 해를 셀 때 제사 ‘사’를 쓴 것은 36순 혹은 37순간 제사가 지속되는 ‘주제’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종종 ‘사’로 ‘사’를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한 가차 용례가 아니라, 서사자가 글자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祠’를 구성하는 ‘司’에 대해, 『설문해자』와 전래문헌, 그리고 현재의 주된 용법은 ‘주관하다’, ‘담당하다’의 용법이다. 그러나 갑골문과 금문을 놓

고 봤을 때, ‘주관하다’, ‘담당하다’로 쓰인 용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서주 금문에는 ‘嗣’자가 이 용법으로 쓰였다. 이 글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愛’와 ‘司’가 결합된 회의 혹은 형성자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서주 금문에 보면 ‘嗣’는 ‘口’라는 구성요소가 빠진 ‘𠂔’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嗣’자에서 ‘구’는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자는 ‘愛’와 ‘司’가 결합된 글자가 아닌, ‘𠂔’와 ‘口’가 결합된 글자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넷째, ‘司’와 ‘嗣’는 다른 글자였지만, 후대로 오면서 ‘司’라는 한 글자로 결합되는데, 이 과정에서 ‘떡다’ 혹은 ‘떡이다’는 ‘司’의 본의는 탈락되고, ‘제사하다’, ‘계승하다’라는 인신의(引伸意)는 각각 ‘祠’와 ‘嗣’라는 후기자로 대체되었는데, 오히려 ‘嗣’자의 의미인 ‘주관하다’, ‘담당하다’는 의미가 ‘司’의 주된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嗣’를 ‘司’로 고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서주 금문에서 ‘嗣’와 ‘司’를 같은 글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에필로그

1939년 3월, 오희증(吳希增)이라는 사람이 하남(河南) 안양(安陽) 무관촌(武官村)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많은 문물이 출토되었기에, 뭐라도 건질 심산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땅을 파 내려가길 약 13미터, 삽에 뭔가 둔탁한 물건이 닿았다. 이에 오희증은 탐간(探杆)을 들어 올렸다. 탐간 끝에는 청동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다. 이에 그는 뭔가 심상찮은 느낌을 받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에는 땅을 팠고, 낮에는 그 구덩이를 메웠다. 바로 일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또 땅을 파는 촌민들도 계속 늘어났다. 그렇게 모인 사람은 약 40여명, 그들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청동 녹이 슬은 거대한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당시 촌사람들은 이를 말구유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조정(馬槽鼎)'이라 불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당시 이 부근에 주둔하던 일본 군인에게 약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희증과 그의 일가친척인 오배문(吳培文)은 이 '마조정'을 숨기기로 작정하고, 오배문의 집에 숨겼다. 그러나 냄새를 맡은 일본 군인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마을을 들쭉시키고 다녔다. 정을 숨긴 오배문의 집에도 여러 차례 왔다갔다. 그러자 오배문은 머리를 써서, 청동기를 하나 구입해 와서 집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을을 약탈하러 온 일본군은 오배문에 집에서 바로 오배문이 구입해 숨겨놓은 정을 약탈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오배문은 결국 난을 피해 고향을 떠났다가,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왔다. 돌아와 살펴봤다. 다행이 정은 그대로 있었다.



1946년 6월, 오배문은 큰 결심을 하고, 숨겨놓은 정을 꺼내어 정부에 기증하였다. 이 정은 1948년 남경(南京)에서 처음 대중들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정이 바로 그 유명한 일명 ‘사모무방정(司母戊方鼎 혹은 司母戊鼎)’이다. 당초 ‘마조정’으로 불리던 이 기물은 훗날 안양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또 ‘안양대정(安陽大鼎)’으로 불리기도 했다. 남경에서 처음 공개된 이 정은 이후 남경박물관(南京博物館)에 소장되었다가, 1959년 중국역사박물관(中國歷史博物館)이 개관하자 중국역사박물관으로 옮겨 전시되었다. 이 정은 높이 1미터 33cm, 입구의 길이는 1미터 10cm, 너비 79cm, 무게 약 833kg의 대형 방정으로, 현존하는 중국 청동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 기물에는 ‘司母戊’라는 세 글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따라서 곽말약(郭沫若)과 범문란(范文瀾) 등은 이 명문을 근거로 ‘사모무정’ 혹은 ‘사모무방정’으로 일컬었고, 이는 수십 년간 이 기물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

그러다, 중국역사박물관이 중국국가박물관으로 승격되고, 또 2010년 내부 수리를 거치면서, 그동안 ‘사모무정’으로 전시되던 기물은 ‘후모무정(后母戊鼎)’으로 개명되었다.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보면, “사, 신하로써 밖에서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后’를 뒤집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司’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司’를 구성요소로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한 나라 때부터 ‘司’자와 ‘后’자가 자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고문자에 보면, 같은 글자라도 좌우를 뒤집어 쓴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司母戊’의 ‘司’ 또한 ‘后’의 좌우 반전현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자는 ‘司’로 읽어야 할까? ‘后’로 읽어야 할까?



사모무방정



명문

2 東周秦漢“五方”記載考察

조용준(중국 인민대)

목 차

1. 緒論
2. 先秦時期的“陰陽五行”與“五方”觀念的形成
 - 1) “陰陽五行”與“五方”觀念的出現
 - 2) 陰陽五行觀念與“五方”觀念的形成
3. 東周時期的“五方”記載
 - 1) 五行屬性的“五方”記載
 - 2) “天下”與“九州”記載
 - 3) “中國”、“四夷”與“五方”記載
4. 秦漢時期的“五方”記載
 - 1) 五行屬性的“五方”記載
 - 2) 秦漢帝國統治的“四夷”、“四邊”記載
 - 3) “五方”與“五方之民”的記載
5. 結語

1. 緒論

五方爲東、南、西、北、中五個方位的合稱，是五行理論中重要的組成部分，五方即東、南、中、西、北五個方位。五方是中國古代對空間方位的一種劃分，五方的確立使得五行理論與空間有了相對應的關係，五行與時空配屬關係的確立大致經歷了三個階段或過程：由生活嘗試和理性思維歸納出木、火、金、水四者與四季的對應關係；從對北斗星斗柄所指方向在一年四季的變化的觀察中，確認

東、西、南、北四方位，並推導出四方與四季的對應關係，基於“土”與“中”在五行和五方中最為尊貴的中國古代哲學觀念而將“土”和“中央”聯繫在一起。¹⁾

在東周時期，五行屬性的“五方”觀念的確立使得五行理論與空間有了相對應的關係。在東周時期“天下”、“中國”、“四夷”這一體系之中，“中國”指華夏漢族及其政權或中原和中原政權，“天下”是由“中國”和“四夷”或“中國”和“四裔”所構成。²⁾西周末年至春秋時期，周王室勢力衰微，被華夏視為戎、狄、蠻、夷的周邊諸族群紛紛進入中原，形成了與諸夏交錯雜居的分佈格局。中經春秋戰國時期諸族群之間的戰爭與政治、經濟、文化交流，內遷的諸族群最終在族群意識上趨向認同于華夏。至戰國中晚期出現了華夏族群居中，戎、狄、蠻、夷等“四夷”諸族群居於四邊的分佈格局。這一分佈格局無論是在客觀上的民族地理分佈或是思想觀念上都對後世產生了深遠的影響。³⁾

受到秦漢時期流行的陰陽五行觀念的影響，“五方”、“四邊”、“四夷”觀念逐漸變成秦漢人慣用語，只是更加表現具體的地望，也就是秦漢統一國家民族地理觀的現實概況與總結。秦漢時期的治理“四邊”和“四夷”的邊政，可以為後世提供多種歷史經驗和歷史教訓。回顧秦漢邊政史，應當同時瞭解當時的生態環境、政治格局、經濟水準與民族關係等多方面的歷史條件，亦應涉及不同民族的生產方式和軍事實力。秦漢邊政規劃與實踐，集中了執政者及其諮議人員的政治智慧。不同地理方位的處置形式不同，有複雜的因素。“北邊”最受重視，是因為草原強勢軍事集團匈奴的存在。漢武帝時代進軍漠北，克服西域，取得了全面擴張的成功。當時社會“宜西北萬里”的進取方向，與英雄主義和開放精神共同表現出漢文化積極的時代風格。東漢初期漢光武帝劉秀執政時期，有轉而用心“南邊”的趨向。然而東漢明帝起，又致力西域，實現了“定遠”的成功。⁴⁾

本文主要以運用先秦秦漢的各種傳統文獻，與其他出土文獻互相印證，探討東周秦漢“五方”記載的主要內容和特徵。

2. 先秦時期的“陰陽五行”與“五方”觀念的形成

1) “陰陽五行”與“五方”觀念的出現

- 1) 張效霞、張鵬：《五行配時空的演變過程及其原理溯源》，《中醫文獻雜誌》2003年21卷4期，第18頁。
- 2) 趙永春：《中國古代的“天下”、“中國”觀》，《社會科學》2021年第4期，第151頁。
- 3) 李龍海：《春秋戰國時期民族分佈格局的變遷》，《貴州民族研究》2008年第6期，第154頁。
- 4) 王子今：《秦漢邊政的方位形勢：“北邊”“南邊”“西邊”“西北邊”》，《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21年第3期，第144頁。

陰陽的最初涵義是很樸素的，表示陽光的向背，向日爲陽，背日爲陰，後來引申爲氣候的寒暖，方位的上下、左右、內外。陰陽思想的原理，以“陰陽”之消息，解釋天地萬物的生成與變化，則爲中國古代先哲思維活動中，最富有哲學涵義的理論構想。

尤其，於戰國末期，如鄒衍之輩，極力提倡陰陽變異之學。⁵⁾於先秦時期，古人特別強調順乎陰陽四時之序，即順應春生、夏長、秋收、冬藏的宇宙規律。即使如此，此種順應陰陽四時變化的循環規律，沿至後世，則逐漸顯露陰陽相互對立的屬性。例如山南、水北爲陽，山北、水南爲陰；日爲陽，月爲陰；晝爲陽，夜爲陰；天爲陽，地爲陰，乃至男女、水火、雌雄等等，皆無不具有相互對立之兩面。無論如何，此種陰陽觀念，常運用於其他事類，如干支、五行、人體、醫學、季候、方位、月令、律中、聲音、味、臭、色，以及所代表各種意義的帝、神、精靈等，皆統屬於陰陽兩類系統之內。⁶⁾

五行的基本概念，因基於木、火、土、金、水五種元素相對運動，且各種自然現象亦依此運行，故古人認爲宇宙的一切現象皆有一定的秩序，均受必然的法則所制約。因此，能配合同類的構成元素，便可得一定的結果，與此相比，配合相反或不能相容的物質，便有抗拒的結果。

此處以中國古代的巫術爲例，巫者在諸多方面的巫術上，取其同類象徵的意義互相配合運用，例如，求雨屬水，故須動陰；止雨須助火抑水，故須動陽；春祭須在東方，須以甲乙日，祭色用青等等，諸如此類，不勝枚舉。由此觀之，不僅陰陽的觀念，此種五行的原理，亦於中國巫術的發展上，實有莫大的影響。

“陰陽”此名詞，極早便產生，殷商甲骨文中的“𠄎”字，于省吾則認爲陰晴

5) 上海書店編：《二十五史》（第一冊），《史記》卷第七十四《孟子荀卿列傳》，其云：“其次騶衍，後孟子。騶衍睹有國者益淫侈，不能尚德，若《大雅》整之於身，施及黎庶矣。乃深觀陰陽消息而作怪迂之變，《終始》、《大聖》之篇十餘萬言。其語闕大不經，必先驗小物，推而大之，至於無垠。”，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年，第265頁。又在上海書店編：《二十五史》（第1冊），《漢書》卷25上《郊祀志上》，亦云：“自齊威、宣時，騶子之徒論著《終始五德》之運，及秦帝而齊人奏之，故始皇採用之。而宋毋忌、正伯僑、元尚、蒺門高最後，皆燕人，爲方 壺（仙）道，形解銷化，依於鬼神之事。騶衍以陰陽《主運》顯於諸侯，而燕齊海上之方士傳其術不能通，然則怪迂阿諛苟合之徒自此興，不可勝數也。”，第119頁。鄒衍者，出生於齊威王、宣王之時（約西元前305~240年），乃爲戰國末期五行家的重要領袖之一。此稷下鄒衍之徒，則主張五行爲五德論，且論述《終始五德》之運，故此種五行觀念漸次流行於各派思想中。

6) 盧嘉錫總主編、廖育群等著：《中國科學技術史 -- 醫學卷·先秦時期》，北京：科學出版社，1998年，第59-62頁。亦可參見趙容俊：《早期中國醫學與陰陽五行思想考察》，（韓國）《民族文化論叢》2012年第52輯，第724-756頁；趙容俊：《清華簡所見的陰陽五行觀念小考》，（韓國）《東洋古典研究》2019年第74輯，第65-96頁。

之“陰”。7) 此外，甲骨文的“𠄎”字，一般學者皆認為“陽”。8) 雖未見並用之例，但上面之例便可以證明，“陰”、“陽”二字在商代已出現。其後，於西周中晚期的若干青銅器銘文與秦國秦駟玉版等的材料中，便可見“陰陽”一詞之例，即為南北方位之意。9) 此外，《春秋穀梁傳·僖公廿八年》也記載：“水北為陽，山南為陽。”10)，意思是山之南與水之北向陽，故山南水北為陽，反之為陰。

若就先秦時期五行觀念的出現而言，於殷代甲骨文中，雖未盡見五行的文字，即使如此，於《尚書·洪範》篇中曾記載，周武王在克商後，訪於箕子，箕子則陳述“洪範九疇”，其謂：

一、五行，一曰：水，二曰：火，三曰：木，四曰：金，五曰：土。水曰：潤下，火曰：炎上，木曰：曲直，金曰：從革，土爰稼穡。潤下作鹹，炎上作苦，曲直作酸，從革作辛，稼穡作甘。11)

由此可以類推，商代已有五行觀念之可能。12)

7) 詳見于省吾主編的《甲骨文字詁林· 𠄎、陰》，其云：“第一期甲骨文‘ 𠄎 ’字習見，作 𠄎 或 𠄎，舊不識，《甲骨文編》謂：‘從佳從今，《說文》所無。’按 𠄎 字從 𠄎，即今字的省體。今字在偏旁中多省作 𠄎，詳釋 𠄎。……甲骨文以 𠄎 為天氣陰晴之陰，不作雉鳥字用。”于省吾主編：《甲骨文字詁林· 𠄎、陰》（第2冊），北京：中華書局，1996年，第1700-1701頁。

8) 詳見于省吾主編：《甲骨文字詁林· 陽》（第2冊），第1267頁。亦可參見於（日）松丸道雄、高嶋謙一合編：《甲骨文字釋綜覽》，日本：東京大學出版社，1993年，第381頁。

9) 黃天樹：《黃天樹古文字論集· 說甲骨文中的“陰”和“陽”》，北京：學苑出版社，2006年，第214頁。其云：“西周中期銅器《永孟》銘文云：‘賜畀師永厥田 𠄎（陰）易（陽）洛。’（《集成》10322）…… 𠄎（陰）易（陽）洛，今陝西秦嶺南麓的洛河南北一帶。……‘ 𠄎（陰）易（陽）洛’一語又見於西周晚期銅器《敵簋》（《集成》4323）銘文中，跟《永孟》所指當為一地。……近年出土的秦駟玉版有‘華大山之陰陽’，指山之南北。”

10)（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附校勘記）》（下冊），《春秋穀梁傳》卷9《僖公廿八年》，北京：中華書局，1980年，第2402頁。

11)（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附校勘記）》（上冊），《尚書·周書》卷12《洪範》，第188頁。

12) 對於商代已有五行觀念的可能性，馮友蘭引證古籍文獻，則認為五行觀念出現於西周時期，其云：“由於生產的發展和科學知識的進步，在西周出現了後來唯物主義哲學中的兩個重要範疇，‘五行’和‘陰陽’。在《書經》中的《甘誓》中，出現有‘五行’這個名詞。……作為一個整篇的著作看，《洪範》可以是比較晚出的，而且也還是一種帶有宗教氣味的說教。但是其中的‘五行’的觀念可能是西周已有素樸唯物主義的哲學觀點的萌芽。‘五行’的思想，開始發生於西周初期，還有一個證據。《尚書大傳》說：‘武王伐紂，至於商郊，停止宿夜。士卒皆歡樂達旦，前歌後舞，格於上下，咸曰：‘孜孜無怠。’水火者，百姓之所飲食也；金木者，百姓之所興生也；土者，萬物之所資生，是為用人。’這都是說，五行是對於人的生活有用的五種東西，並說出它們的具體的用處。這比《洪範》所說，又前進了一步。”馮友蘭：《中國哲學史新編》（第1冊），臺灣：藍燈文化公司，1991年，第76-77頁。即使如此，顧頡剛認為，若視五德始終說下的政治與歷史，五行說應起於戰國後期，且鄒衍為始創五行者。顧頡剛：《戰國秦、漢間人的造偽與辨偽· 陰陽五行說所編排的古史系統》，載於顧頡剛等編：《古史辨》（第7冊、上編），海南：海南出版社，2005年，第17-20頁。

即使如此，於春秋時期之前，以木、火、土、金、水為序的現行的五行相生相克的次第，尚未建立。對此，李學勤在《周易溯源·〈洪範〉卜筮考》一文中曾提，其云：

《洪範》五行的次序，是水、火、木、金、土。我曾指出，這是由於當時數說五行尚未按照相生相克的次第，同當時數說方向的習慣有關。……西周人數說方向，可說東、南、西、北，也可說東、西與南、北。……這是西周人講五行的習慣。到春秋時，如《左傳》昭公二十九年蔡墨講五行，就是以木、火、金、水為序，是循環數了。¹³⁾

據李學勤的研究可知，現行的五行相生相克的次第與“五方”觀念，於春秋時期以後，方能建立。

2) 陰陽五行觀念與“五方”觀念的形成

對於此種現行的五行循環次第的內容，於春秋戰國時期的文獻之中，則不乏得見，如《管子·四時》便有其記載，其云：

東方曰：星，其時曰：春，其氣曰：風。風生木與骨，其德喜贏而發出節時。……南方曰：日，其時曰：夏，其氣曰：陽。陽生火與氣，其德施捨修樂。……中央曰：土，土德實輔四時，入出以風雨。節土益力，土生皮肌膚，其德和平用均，中正無私，實輔四時。……西方曰：辰，其時曰：秋，其氣曰：陰。陰生金與甲，其德憂哀，靜正嚴順，居不敢淫佚(逸)。……北方曰：月，其時曰：冬，其氣曰：寒。寒生水與血，其德淳越(散)，溫怒周密。¹⁴⁾

由此文可以得知，五方五時是同時出現的，到其他四方各有對應。

不寧唯是，20世紀三、四十年代出土於湖南長沙子彈庫楚墓中的楚國帛書，學界稱之為“楚帛書”，今分藏美國賽克勒美術館及湖南省博物館。此楚帛書寫於一件正方形的繪上，除內層的《四時》、《天象》的記錄之外，外層則分帛書四周為十六等區，其中居於四隅的四區分別繪有青、赤、白、黑四色木，其餘十二區則依次繪有十二月神將，月將之間便書月令章即《月忌》。¹⁵⁾

13) 李學勤：《周易溯源·〈洪範〉卜筮考》，四川：巴蜀書社，2005年，第27-28頁。

14) 黎翔鳳撰、梁運華整理：《管子校注》(中冊)卷14《四時》，北京：中華書局，2004年，第842-854頁。

15) 劉國忠：《古代帛書》，北京：文物出版社，2004年，第13-46頁。亦可參考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中國考古學·兩周卷》，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4年，第491-493頁。

由於楚帛書具有陰陽五行說的色彩，又有巫術占驗性的圖文性質，故認為一種陰陽數術的佚書，且為目前發現最早的數術書。¹⁶⁾若視其中《四時》篇，則居右，共8行3節，原無篇題，保存尚佳。茲舉其中第二節的記載為例，其簡文曰：

偃(長)曰：青□ 榘 (榘)，二曰：未(朱)四(?)罍(單)，三曰：蓼黃難，四曰： 漦 墨
榘 (榘)。千又(有)百 哉 (歲)，呂 =(日月)姦(允)生，九州不坪(平)，山陵備
缺 (傾)，四神乃乍(作)□至(極)於(以) 遽 (覆)。天旁(方) 逆 (動)，攷 (扞)
敷 (蔽)之青木、赤木、黃木、白木、墨(黑)木之精(精)。(此文見於楚帛書《四時》
第4行中間至第5行結尾)¹⁷⁾

由此可知，楚帛書中的《四時》篇，則描述四時之神與四方、四色相配合的內容，乃包括五行方位的觀念，具有濃厚的陰陽五行說的色彩。

綜上所述，陰陽五行的觀念及一種象徵原理，包括五行屬性的“五方”的觀念，深入滲透至古人的生活中。以此類推，便可知陰陽五行在中國的歷史及文化史的地位，以及所內的範圍。¹⁸⁾與此同時，也可知道現行的五行次第情況，於春秋戰國時期已基本定型。

3. 東周時期的“五方”記載

1) 五行屬性的“五方”記載

上文言之，現行的五行次第與其屬性，在春秋戰國時期已基本定型。東周時期各種出土文獻所見的“五方”觀念的記載，雖然不見“九州”、“四夷”、“五方”等具體地望的記載，但是在東周時期陰陽五行觀念的基本定型之下，偶有提及先秦時期五行觀念屬性的五方內涵。茲錄其代表性的一二材料介紹於下。

首先，在1975年末，在雲夢睡虎地M11號墓葬發掘之秦簡《日書》甲種，以及《清華大學藏戰國竹簡（肆）》的《筮法》篇中，便有五行觀念屬性的五方內涵，其簡文曰：

16) 參見劉國忠：《古代帛書》，第35-37頁。

17) 同上，第26-27頁。此楚帛書的釋文，亦可參考李零的隸定與考釋。李零：《中國方術正考·楚帛書與日書：古日者之說》，北京：中華書局，2007年，第153頁。

18) 詳見梁鈞翰：《中國古代巫術——宗教的起源和發展》，廣東：中山大學出版社，1989年，第61-84頁。

〔五勝:〕東方木，南方火，西方金，北方水，中央土。(此簡文見於睡虎地秦簡《日書》甲種第88簡背參至第92簡背貳)¹⁹⁾

〔筮法:〕東方也，木也，青色。南方也，火也，赤色也。西方也，金也，白色。北方也，水也，黑色也。(此簡文見於《清華大學藏戰國竹簡(肆)·筮法》第42簡至第60簡)²⁰⁾

據此可知，於戰國時期的出土文獻中，便記載五行觀念及五行屬性的“五方”觀念。此外，睡虎地秦簡《日書·病》篇的記載中，便可見運用五行方位的內涵而提及不同的治病之法的內容，其簡文曰：

·病:甲乙有疾，……若不〔酢〕，煩居東方，歲在東方，青色死。丙丁有疾，……若不酢，煩居南方，歲在南方，赤色死。戊己有疾，……若不酢，煩居邦中，歲在西方，黃色死。庚辛有疾，……若不酢，煩居西方，歲在西方，白色死。壬癸有疾，……若不酢，煩居北方，歲在北方，黑色死。(此簡文見於睡虎地秦簡《日書》甲種第68簡正貳至第77簡正貳)²¹⁾

由此可知，於戰國末期秦代，基於五行的原理，以巫術之法治病，又可見運用五行方位的內涵而提及不同的治病之法。

因此，如果運用上引雲夢睡虎地秦簡《日書甲種·病》篇所見的五行原理和五行方位的內涵，可列表整理如下【表1】。

【表1】 雲夢睡虎地秦簡《日書甲種·病》篇所見的五行方位內涵

分 類	木	火	土	金	水
疾 日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煩居方位	東方	南方	邦中	西方	北方
歲星位置	東方	南方	邦中	西方	北方

19)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睡虎地秦墓竹簡·日書甲種釋文註釋》，北京：文物出版社，1990年，第223頁。此外，此睡虎地秦簡的釋文，亦可參考陳偉主編的《秦簡牘合集——睡虎地秦墓簡牘》(第壹冊)的重新隸定與考釋。陳偉主編、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湖北省博物館、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編：《秦簡牘合集——睡虎地秦墓簡牘》(第壹冊)，湖北：武漢大學出版社，2014年。

20) 李學勤主編：《清華大學藏戰國竹簡(肆)》(下冊)《釋文注釋·筮法》，上海：中西書局，2010年-2019年，第111-112頁。

21)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睡虎地秦墓竹簡·日書甲種釋文註釋》，第193-194頁。

死 色	青色	赤色	黃色	白色	黑色
-----	----	----	----	----	----

由此觀之，於雲夢睡虎地秦簡《日書甲種·病》篇中，則不難得知東周時期的五行屬性的“五方”內涵，乃與現行的五行觀念基本一致。²²⁾

2) “天下”與“九州”記載

五行屬性的“五方”觀念還沒完全確立的時候，在東周文獻中可以看到“天下”與“九州”等的記載。《尚書·禹貢》記載：

九州攸同，……成賦中邦。²³⁾

此文之下，唐孔穎達疏稱：“‘九州’即是‘中邦’，故傳以‘九州’言之。”²⁴⁾，就是“九州”是將“天下”劃分為“九州”，“天下”和“九州”就成了同義詞。²⁵⁾

還有，《周禮》夏官司馬所屬有職方氏，掌天下地圖，辨其邦國、都鄙及九州人民與其物產財用，知其利害得失，規定各邦國貢賦。《周禮·職方氏》便有劃分天下為九州和九服的記載，其云：

職方氏：掌天下之圖，以掌天下之地。辨其邦國、都鄙、四夷、八蠻、七閩、九貉、五戎、六狄之人民，與其財用、九穀、六畜之數要，周知其利害。乃辯九州之國，使同貫利。

東南曰揚州，其山鎮曰會稽，其澤藪曰具區，其川三江，其浸五湖，……。正南曰荊州，其山鎮曰衡山，其澤藪曰雲薈，其川江、漢，其浸潁、滸，……。河南曰豫州，其山鎮曰華山，其澤藪曰圃田，其川滎、雒，其浸波、滎，……。正東曰青州，其山鎮曰沂山，其澤藪曰望諸，其川淮、泗，其浸沂、沐，……。河東曰兗州，其山鎮曰岱山，其澤藪曰大野，其川、河、□，其浸盧、維，……。正西曰雍州，其山鎮曰嶽山，其澤藪曰弦蒲，其川涇、汭，其浸渭、洛，……。東北曰幽州，其山鎮曰醫無閭，其澤曰豸養，其川河、□，其浸時，……。河內曰冀州，其山鎮曰霍山，其澤藪曰楊紆，其川漳，其浸汾、潞，……。正北曰並州，其山鎮曰恒山，其澤藪曰昭余祁，其川虜

22) 楊華：《出土日書與楚地的疾病占卜》，《武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2003年第5期，第565-568頁。亦可參見趙容俊：《早期中國醫學與陰陽五行思想考察》，（韓國）《民族文化論叢》2012年第52輯，第724-756頁。又可參考趙容俊：《清華簡所見的陰陽五行觀念小考》，（韓國）《東洋古典研究》2019年第74輯，第65-96頁。

23) (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附校勘記)》(上冊)，《尚書》卷6《禹貢》，第152頁。

24) 同上。

25) 趙永春：《中國古代的“天下”、“中國”觀》，《社會科學》2021年第4期，第151頁。

池，嘔夷，其浸淶易，……。

乃辨九服之邦國，方千里曰王畿，其外方五百曰侯服，又其外方五百里曰甸服，又其外方五百里曰男服，又其外方五百里曰采服，又其外方五百里曰衛服，又其外方五百里曰蠻服。又其外方五百里曰夷服，又其外方五百里曰鎮服，又其外方五百里曰藩服。……乃辯九州之國，使同貫利。²⁶⁾

此文詳細記述職方氏管掌天下地圖與四方職貢。因而《漢書·地理志上》云：“故《周官》有職方氏，掌天下之地，辯九州之國。”²⁷⁾ 由此可知，職方氏根據戰國七雄形勢而劃分天下為九州，也規劃了理想的九服制度。

又如呂不韋《呂氏春秋·有始覽·有始》釋“九州”，也與春秋戰國時期的列國相比附，其云：

何謂九州？河、漢之間為豫州，周也；兩河之間為冀州，晉也；河、濟之間為兗州，衛也；東方為青州，齊也；泗上為徐州，魯也；東南為揚州，越也；南方為荊州，楚也；西方為雍州，秦也；北方為幽州，燕也。²⁸⁾

呂不韋認為“九州”之中的豫州、冀州、兗州、青州、徐州、幽州六州是被人們視為中原、華夏的周、晉、衛、齊、魯、燕等國之地，而揚州、荊州、雍州三州則是被人們視為戎蠻的越、楚、秦等國之地，《呂氏春秋》所釋“九州”亦不完全為中原華夏所有。²⁹⁾ 既然如此，呂不韋釋“九州”，也是劃分天下為九州，此文中的“天下”和“九州”就成了同義詞。

3) “中國”、“四夷”與“五方”記載

於東周時期，五行理論的確立使得五行屬性的“五方”觀念和“五服”³⁰⁾ 觀念也

26) (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附校勘記)》(上冊)，《周禮·夏官司馬》卷33《職方氏》，第861-864頁。

27) (漢)班固撰、(唐)顏師古注：《漢書》卷28上《地理志上》，北京：中華書局，1962年，第661頁。

28) 許維遹撰、梁運華整理：《呂氏春秋集釋》(上冊)卷13《有始覽·有始》，北京：中華書局，2009年，第278頁。

29) 趙永春：《中國古代的“天下”、“中國”觀》，《社會科學》2021年第4期，第152-153頁。

30) “五服”是古代王畿週邊，以五百里為一區劃，由近及遠分為侯服、甸服、綏服、要服、荒服，合稱五服。五服思想是對夷夏分佈格局的理想化追求，因而“天下五服”說體現出深刻而豐富的內涵，從疆域視角審視則可反映出先秦的“畿服”理念下的邊疆觀。這種“天下五服”說建構出了天下一體和天下是中心—邊緣結構，闡釋了中心唯一和邊緣服事中心的秩序觀，具有深刻思想內涵和宏大的理論概括。從邊疆觀視角看，它奠定了中國古代邊疆觀的思想基礎。許建英：《試論中國先秦時期的邊疆觀》，《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21年第1期，第37頁。

定型，進而又與周圍地理空間有了相對應的關係。西周末年至春秋時期，周王室勢力衰微，被華夏視為戎、狄、蠻、夷的“四夷”周邊諸族群紛紛進入中原，形成了與諸夏交錯雜居的分佈格局。中經春秋戰國時期諸族群之間的戰爭與政治、經濟、文化交流，內遷的諸族群最終在族群意識上趨向認同于華夏。³¹⁾

在中國古代“天下”、“中國”、“四夷”這一體系之中，“中國”指華夏漢族及其政權或中原和中原政權，“天下”是由“中國”和“四夷”或“中國”和“四裔”所構成。³²⁾換言之，“天下”是由華夏漢族及其政權和四夷及其政權或者中原及其政權和四裔及其政權所構成。《禮記·王制》記述：

中國戎夷，五方之民，皆有其性也，不可推移。東方曰夷，被髮文身，有不火食者矣。南方曰蠻，雕題交趾，有不火食者矣。西方曰戎，被髮衣皮，有不粒食者矣。北方曰狄，衣羽毛穴居，有不粒食者矣。中國、夷、蠻、戎、狄，皆有安居、和味、宜服、利用、備器，五方之民，言語不通，嗜欲不同。達其志，通其欲：東方曰寄，南方曰象，西方曰狄鞮，北方曰譯。³³⁾

上文記載中國、東夷、南蠻、西戎、北狄的“五方之民”，及其習性、語言、衣服、器用等不同的特徵。

夷夏五方格局的形成經歷了春秋、戰國五個多世紀，而文獻中明確以華夏居中，東夷、西戎、南蠻、北狄配合四方的記述，大概出現於春秋戰國時期。四夷，是古代對中原周邊各族的統稱，即東夷、西戎、南蠻、北狄的合稱，亦泛指外族、外國。例如《尚書·大禹謨》：“無怠無荒，四夷來王。”³⁴⁾；《孟子·梁惠王上》：“蒞中國而撫四夷也。”³⁵⁾等。

又據《呂氏春秋·審分覽·知度》載，³⁶⁾ 四夷是古時華夏族（漢族別稱）對四方少數民族的統稱，分別指東夷、西戎、南蠻、北狄。中原，是指河南洛陽至開封一帶為中心的黃河中下游地區，氣候溫宜，雨量適中，土壤肥腴，故較早即進入城廓農耕社會，地稱為中國。邊區自然條件較差，多為遊獵畜牧之族所居，故稱為蠻夷。

“四夷”分別而說：東夷，即東方少數民族的統稱，在夏商周時期指生活於今山東淮河地區，活動在今泰山周圍的眾多部落、方國。西戎，是華夏族對西方少數

31) 李龍海：《春秋戰國時期民族分佈格局的變遷》，《貴州民族研究》2008年第6期，第154頁。

32) 趙永春：《中國古代的“天下”、“中國”觀》，《社會科學》2021年第4期，第151頁。

33) (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附校勘記)》(上冊)，《禮記》卷12《王制》，第1338頁。

34) (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附校勘記)》(上冊)，《尚書》卷4《大禹謨》，第135頁。

35) (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附校勘記)》(下冊)，《孟子》卷1下《梁惠王章句上》，第2671頁。

36) 許維通撰、梁運華整理：《呂氏春秋集釋》(下冊)卷17《審分覽·知度》，第455-457頁。

民族的統稱，戰國以前主要指氐羌系各部落，秦漢以後狹義指氐系各部落，廣義則包括中國西部各民族。北狄，即華夏人對北方少數民族的統稱，戰國以後，北狄族群華夏化，一部分南下融入胡人之中，成為匈奴的重要來源之一。南蠻，即南方少數民族的統稱，大體可分為百越、百濮與巴蜀三大族系。

於是，在春秋戰國時期，中國與夷蠻戎狄配以東南西北，“五方之民”共為天下，同居四海的統一格局形成了。春秋戰國時期形成的這種夷夏五方格局，無論是在客觀上的民族地理分佈或是思想觀念上都對後世產生了深遠的影響。後世持正統史觀的學者則都有漢族居中，少數民族居於四夷的思想觀念。³⁷⁾

總而言之，在東周時期的《禮記·王制》“五方之民”格局下的中國與東夷、南蠻、西戎、北狄的對應，與司馬遷《史記》“四夷傳”格局對應相比較，《禮記》“四夷”為泛稱，過於整齊劃一，更合乎於東周時期之“政治理想”的表現和反映。³⁸⁾

4. 秦漢時期的“五方”記載

雖然秦、西漢、新莽、東漢的邊地政策有歷史變化，但是秦漢有關“五方”、“四邊”、“四夷”的知識，比前朝更加表現具體的地理位置，可以歸入地理學範疇，然而也體現了當時社會的民族意識和文化理念。³⁹⁾

1) 五行屬性的“五方”記載

在秦漢時期，五行與地理方位組成了配合關係，董仲舒和班固說：

木居左、金居右、火居前、水居後，土居中央。……是故木居東方而主春氣，火居南方而主夏氣，金居西方而主秋氣，水居北方而主冬氣。⁴⁰⁾

北方其臭朽者，北方水，萬物所幽藏也，又水者受垢濁，故臭腐朽也。東方者，木也。萬物新出地中，故其臭臙。南方者，火也。盛陽承動，故其臭焦。西方者，金也。萬物成熟，始復諾，故其臭腥。中央者，土也。主養，故其臭香也。⁴¹⁾

37) 李龍海：《春秋戰國時期民族分佈格局的變遷》，《貴州民族研究》2008年第6期，第159-160頁。

38) 黎小龍、徐難於：《“五方之民”格局與大一統國家民族地理觀的形成》，《民族研究》2008年第6期，第74頁。

39) 王子今：《秦漢邊政的方位形勢：“北邊”“南邊”“西邊”“西北邊”》，《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21年第3期，第144頁。

40) 蘇輿撰、鍾哲點校：《春秋繁露義證》卷42《五行之義》，北京：中華書局，1992年，第321-322頁。

又在東漢許慎的《說文解字》中，也有秦漢時期的東西南北中央的五行方位的屬性，其云：

木，冒也。冒地而生，東方之行。⁴²⁾

火，燬也。南方之行，炎而上。⁴³⁾

土，地之吐生物者也。⁴⁴⁾

金，五色金也，黃爲之長。……西方之行。⁴⁵⁾

水，準也。北方之行。⁴⁶⁾

青，東方色也。木生火，從生丹。⁴⁷⁾

赤，南方色也。⁴⁸⁾

黃，地之色也。⁴⁹⁾

白，西方色也。⁵⁰⁾

“黑，北方色也。”其下清代段玉裁的《說文解字注》云：“四字各本無。依青赤白三部下云東方色，南方色，西方色。黃下亦云地之色。則當有此四字明矣。今補。”⁵¹⁾

又在推定爲西漢時期成書的《尚書大傳》中的一篇《洪範五行傳》中，也提到說：

木者東方，威儀容貌也。……

金者西方，萬物即成，殺氣之始也。……

火者南方，陽光爲明也。……

水者，北方之藏，氣至陰也。……

土者中央，爲內事。⁵²⁾

41) (清)陳立撰、吳則虞點校：《白虎通疏證》(上冊)卷4《五行》，北京：中華書局，1994年，第172-173頁。

42) (漢)許慎撰、(清)段玉裁注：《說文解字注》卷6《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年，第238頁。

43) 同上，卷10《火》，第380頁。

44) 同上，卷13《土》，第681頁。

45) 同上，卷14《金》，第702頁。

46) 同上，卷11《水》，第516頁。

47) 同上，卷5《青》，第215頁。

48) 同上，卷10《赤》，第491頁。

49) 同上，卷13《黃》，第698頁。

50) 同上，卷7《白》，第363頁。

51) 同上，卷10《黑》，第492頁。

52) (唐)魏徵等撰：《隋書》(第3冊)卷22《經籍志·五行上》，北京：中華書局，2011年，第618-623

上引幾文中的五行屬性與“五方”觀念，與現行的五行觀念完全一致。

此外，在秦漢時期成書的周家臺秦簡《日書·五勝》篇和孔家坡漢簡《日書·歲》篇等若干簡牘出土文獻中，也可以看到東西南北中央的五行方位的屬性，其簡文曰：

〔周家臺秦簡《日書·五勝》：〕東行越木，南行越火，西行越金，北行越水，……。〔此簡文見於《關沮秦漢墓簡牘·日書》第363簡〕⁵³⁾

〔孔家坡漢簡《日書·歲》：〕東方青，南方赤，西方白，北方黑，中央〔黃〕。〔此簡文見於孔家坡漢簡《日書》第460簡下段至第464簡中間〕⁵⁴⁾

由此可知，上引周家臺秦簡和孔家坡漢簡所見的五行原理，與秦漢時期流行的五行觀念基本相類。

如果此處把上述各種文獻材料所見的五行方位的內容互為比對，則略同於如下的列表【表2】。

【表2】 秦漢時期的各種文獻材料記載的五行方位

分 類	木	火	土	金	水
《春秋繁露》	東方	南方	中央	西方	北方
《白虎通》	東方	南方	中央	西方	北方
《說文解字》	東方	南方	中央	西方	北方
《洪範五行傳》	東方	南方	中央	西方	北方
“周家臺” 五方	東	南	[中央]	西	北
《孔家坡》 五方	東方	南方	中央	西方	北方
現行	東方	南方	中央	西方	北方

頁。

53) 湖北省荊州市周梁玉橋遺址博物館編：《關沮秦漢墓簡牘·簡牘釋文與考釋》，北京：中華書局，2001年，第133頁。

54)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隨州市考古隊合編：《隨州孔家坡漢墓簡牘·日書釋文注釋》，北京：文物出版社，2006年，第184-185頁。

由此觀之，在秦漢時期的各種文獻材料中記載，東西南北中央的五行方位的屬性，以青、赤、白、黑、黃五色與木、火、金、水、土五行相配，又與東、南、西、北、中央五個方位對應，與現行的五行觀念完全一致。

2) 秦漢帝國統治的“四夷”、“四邊”記載

受到秦漢時期流行的陰陽五行觀念的影響，“五方”、“四邊”、“四夷”觀念逐漸變成秦漢人的慣用語，只是更加表現具體的地望，也就是秦漢統一國家民族地理觀的現實概況與總結。⁵⁵⁾

《史記·秦始皇本紀》記馮去疾、李斯、馮劫進言勸諫秦二世：“請且止阿房宮作者，減省四邊戍轉。”說到了“四邊”。秦二世說：“先帝起諸侯，兼天下，天下已定，外攘四夷以安邊竟。”⁵⁶⁾：《漢書·韋玄成傳》可見“京師及四邊”之說：“甚者，興師十餘萬眾，近屯京師及四邊，歲發屯備虜，其為患久矣，非一世之漸也。”⁵⁷⁾ 這裡所說面對“四夷”的“邊竟”，其實就是“四邊”，應當是秦漢王朝版圖之“四邊”。

顯然，秦漢政治地理與文化地理概念中所謂“四邊”，也是包涵民族地理因素的。秦二世與馮去疾、李斯、馮劫對話所涉及“四邊”，即“在國之四邊者也”，與“邊竟”、“四夷”的對應關係。⁵⁸⁾

秦漢歷史文獻可見“四邊”的“北邊”、“南邊”、“西邊”的記載，體現中央政權邊政之關注點的方位區別。“南邊”和“西邊”都面對複雜的民族關係，而“北邊”因強勢草原軍事實體匈奴的興起，承受最嚴重的武力威脅。其一，“北邊”的直接指向是戰國時期開始經營，秦漢時期予以完備的長城防線，也就是軍事地理和邊疆地理語彙。因為草原強勢軍事集團匈奴的存在，“北邊”為上層決策集團關注，而且“北邊”形勢，也受到全社會的重視。“北邊郡”與“內郡”、“內郡國”的對應關係，顯示“北邊”特殊的重要性。其二，記錄漢代邊疆民族史的文獻可見“西邊”或“西北邊”，就是漢帝國的“西邊”，也顯現對“西北”方向的戰略取向予以特殊關注的意義。其三，秦漢歷史文獻所見“南邊”，即指南部邊境地方，也是指漢帝國總體的南

55) 黎小龍、徐難於：《“五方之民” 格局與大一統國家民族地理觀的形成》，《民族研究》2008年第6期，第74頁。

56) (漢) 司馬遷撰、(宋) 裴駰集解、(唐) 司馬貞索隱、(唐) 張守節正義：《史記》卷6《秦始皇本紀》，北京：中華書局，1959年，第238頁。

57) (漢) 班固撰、(唐) 顏師古注：《漢書》卷73《韋玄成傳》，北京：中華書局，1962年，第3126頁。

58) 王子今：《秦漢邊政的方位形勢：“北邊” “南邊” “西邊” “西北邊”》，《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21年第3期，第144頁。

部邊地。兩漢之際移民大規模南下，江南的開發進入新的階段，全國經濟重心開始向東南方向轉移。對外交通南洋航道的繁榮，也使得東南外向發展的戰略路徑受到重視。⁵⁹⁾

總而言之，在東周時期的《禮記·王制》“五方之民”格局下的中國與東夷、南蠻、西戎、北狄的對應，與司馬遷《史記》“四夷傳”格局形成的中國與匈奴（北方）、南越東越（南方）、朝鮮（東方）、西南夷（西南方）、大宛（西方），以及班固《漢書》“四夷傳”格局形成的中國與《匈奴傳》（北方）、《西南夷兩粵朝鮮傳》（西南方、南方、東方）、《西域傳》（西方）的對應相比較，《禮記》“四夷”為泛稱，過於整齊劃一，而《史記》“四夷”為專稱，直觀、真實、具體。⁶⁰⁾

3) “五方”與“五方之民”的記載

在秦漢時期的各種文獻材料中，“五方”和“五方之民”相關的記載可以看見，其代表的記載整理如下：

今既稽古，建定天地之大禮，郊見上帝，青、赤、白、黃、黑五方之帝皆畢陳，各有位饌，祭祀備具。⁶¹⁾

“於是既庶且富，娛樂無疆，都人士女，殊異乎五方，游士擬于公侯，列肆侈于姬、姜。”其下李賢注：“五方謂四方及中央也。《前書》曰：‘秦地五方雜錯。’”⁶²⁾

“八歲入小學，學六甲五方書記之事。”其下顏師古注引蘇林曰：“五方之異書，如今秘書學外國書也。”⁶³⁾

“聖人設教，各有其方，知人情性莫能齊也。”其下李賢注：“《禮記·王制》曰：‘凡居人材，必因天地寒暖燥濕，廣穀大川異制，人居其間異俗。修其教不易其俗，齊其政不易其宜。中國戎夷五方之人，皆有性也，不可推移。’”⁶⁴⁾

“臨菑亦海岱之間一都會也。……其中具五民。”其下裴駟《集解》引如淳曰：“游子樂其俗不復歸，故有五方之民。”⁶⁵⁾

59) 同上，第144-149頁。

60) 黎小龍、徐難於：《“五方之民”格局與大一統國家民族地理觀的形成》，《民族研究》2008年第6期，第74頁。

61) (漢)班固撰、(唐)顏師古注：《漢書》卷25下《郊祀志下》，第1257頁。

62) (宋)范曄撰、(唐)李賢等注：《後漢書》卷40上《班固傳》，北京：中華書局，1965年，第1336-1337頁。

63) (漢)班固撰、(唐)顏師古注：《漢書》卷24上《食貨志上》，第1122頁。

64) (宋)范曄撰、(唐)李賢等注：《後漢書》卷10上《皇后紀上·明德馬皇后》，第413-414頁。

65) (漢)司馬遷撰、(宋)裴駟集解、(唐)司馬貞索隱、(唐)張守節正義：《史記》卷129《貨殖列傳》，第3265-3266頁。

“臨岱，海岱之間一都會也，其中具五民云。”其下顏師古注：“如淳曰：‘游子樂其俗不復歸，故有五方之民也。’師古曰：‘如說是。’”⁶⁶⁾

由此可知，對於“五方”所指代不同地理空間之文化構成與民俗風格的不同，漢代人是具有共同認識的。所謂“五方”、“五方之民”，也有可能存在民族文化淵源不同的情形。⁶⁷⁾

其中“青赤白黃黑五方之帝”的“五方之帝”，可以理解為淵源不同的部族或部族聯盟文化的精神領袖，也可以看作各個族群的文化象徵符號。所謂“中國戎夷五方之人”，是體現了通過地理方位知識透露的當時社會的民族意識和文化理念的。⁶⁸⁾

總而言之，於秦漢文獻中的“五方”與“五方之民”的記載，即夷夏五方配合觀念，只是秦漢受夷夏大一統思想支配而對五方各族的一種劃分，無論東夷、南蠻、西戎、北狄，都只是對一方民族的統稱，也是已形成的五大民族集團而言的。

4. 結 語

春秋戰國時代，則可謂在中國歷史上學術思想空前活躍與發展的年代。此時，百家爭鳴，自由的展開各種議論以深化思想。其中陰陽五行學說，則原本戰國末期五行家鄒衍極力提倡，此稷下鄒衍之徒論述終始五德之運，且主張五行為五德論，於是五行玄學漸次流行於各派思想中。⁶⁹⁾與此同時，隨著在春秋戰國時期五行觀念基本已定型，東周時期的五行方位的屬性即“五方”觀念，與現行的五行觀念基本一致了。

春秋時期“四夷”之夷、蠻、戎、狄與“四方”之東、南、西、北搭配結合的演進歷程，是與“五方”觀念的定型化過程非常有密切的關係，也是“四夷”、“四方”間的搭配結合與“五方”格局的形成有著淵源關係。《禮記·王制》提出的中國與東夷，南蠻，西戎，北狄的“五方”格局，是戰國人關於統一國家民族地理的理想與展望。而司馬遷《史記》所構建的秦漢國家民族地理格局，才是統一國家民族地理觀的現實反映。

66) (漢)班固撰、(唐)顏師古注：《漢書》卷28下《地理志下》，第1661頁。

67) 王子今：《秦漢邊政的方位形勢：“北邊”“南邊”“西邊”“西北邊”》，《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21年第3期，第149頁。

68) 同上，第149-150頁。

69) 參見楊寬：《戰國史》(增訂本)，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8年，第578-592頁。

兩相比較，《禮記·王制》更合乎於戰國時期之“政治理想”，而《史記》則是秦漢統一國家民族地理觀的現實概況與總結。西漢司馬遷的國家民族地理觀無疑受到戰國以來國家民族地理思想的極大影響，《禮記》、《史記》二著“五方”格局的相同之處，反映的正是戰國至兩漢思想的繼承關係；而二著“五方”格局的差異與不同，則是戰國有關政治理想與秦漢國家民族地理觀現實反映的區別。

總而言之，“五方”和“五方之民”格局的民族地理觀，發軔於西周春秋民族稱謂與地理方位的結合。這種結合所反映的民族稱謂與地理方位的搭配關係，經歷了由不固定到相對固定，由各方單一搭配到“四方”對應全面搭配的嬗變歷程，從而為“五方”和“五方之民”格局的最終形成奠定了基礎。由東周至秦漢，“五方”和“五方之民”格局在統一思想影響和秦漢統一多民族國家建立的歷史背景下，呈現出由理想展望到現實反映的思想觀念演變歷程，《禮記·王制》“五方”和“五方之民”格局是東周時期具有理想色彩的民族地理觀，而《史記》構建的民族地理格局則是秦漢統一國家民族地理現實的客觀反映。《禮記》與《史記》，理想與現實，這兩種關於民族構成和地理分佈格局認識的思想觀念，對後世產生極大的影響。⁷⁰⁾

70) 黎小龍、徐難於：《“五方之民”格局與大一統國家民族地理觀的形成》，《民族研究》2008年第6期，第69-74頁。

【參考文獻】

一、古籍文獻

- (漢)司馬遷撰、(宋)裴駟集解、(唐)司馬貞索隱、(唐)張守節正義：
《史記》(全十冊)，北京：中華書局，1959年。
- (漢)班固撰、(唐)顏師古注：《漢書》，北京：中華書局，1962年。
- (漢)許慎撰、(清)段玉裁注：《說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年。
- (宋)范曄撰、(唐)李賢等注：《後漢書》，北京：中華書局，1965年。
- (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附校勘記)》(全二冊)，北京：中華書局，1980年。
- (清)陳立撰、吳則虞點校：《白虎通疏證》(全二冊)，北京：中華書局，1994年。
- (清)蘇輿撰、鍾哲點校：《春秋繁露義證》，北京：中華書局，1992年。
- 上海書店編：《二十五史》(全十二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年。

二、中文參考資料

- 于省吾主編：《甲骨文字詁林》(全四冊)，北京：中華書局，1996年。
- 許維遙撰、梁運華整理：《呂氏春秋集釋》(全二冊)，北京：中華書局，2009年。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中國考古學·兩周卷》，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4年。
- 李學勤：《周易溯源》，四川：巴蜀書社，2005年。
- 李學勤主編：《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九)》(上、下冊)，上海：中西書局，2010年—2019年。
- 李 零：《中國方術正考》，北京：中華書局，2007年。
- 梁釗韜：《中國古代巫術--宗教起源和發展》，廣東：中山大學出版社，1989年。
- 陳偉主編、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湖北省博物館、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秦簡牘合集--睡虎地秦墓簡牘》(第壹冊)，湖北：武漢大學出版社，2014年。
- 馮友蘭：《中國哲學史新編》(全七冊)，臺灣：藍燈文化公司，1991年。
- 黃天樹：《黃天樹古文字論集》，北京：學苑出版社，2006年。
- 楊 寬：《戰國史》(增訂本)，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8年。
-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隨州市考古隊合編：《隨州孔家坡漢墓簡牘》，北京：文物出版社，2006年。
- 湖北省荊州市周梁玉橋遺址博物館編：《關沮秦漢墓簡牘》，北京：中華書局，2001年。
-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睡虎地秦墓竹簡》，北京：文物出版社，1990年。

- 趙容俊:《殷商甲骨卜辭所見之巫術》(增訂本),北京:中華書局,2011年。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編:《漢語大詞典》(正文十二卷,附錄、索引一卷),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1991—1994年。
- 黎翔鳳撰、梁運華整理:《管子校注》(全三冊),北京:中華書局,2004年。
- 劉國忠:《古代帛書》,北京:文物出版社,2004年。
- 盧嘉錫總主編、廖育群等著:《中國科學技術史 -- 醫學卷》,北京:科學出版社,1998年。
- 顧頡剛等編:《古史辨》(全七冊),海南:海南出版社,2005年。

三、論文其他

- 王子今:《秦漢邊政的方位形勢:“北邊”“南邊”“西邊”“西北邊”》,《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21年第3期。
- 安子毓:《方位尊崇淵源考》,《社會科學戰線》2017年第10期。
- 李龍海:《春秋戰國時期民族分佈格局的變遷》,《貴州民族研究》2008年第6期。
- 香港中文大學中國文化研究所、沈建華:《從甲骨文“圭”字看殷代儀禮中的五行觀念起源》,《文物》1993年第5期。
- 張效霞、張鵬:《五行配時空的演變過程及其原理溯源》,《中醫文獻雜誌》2003年21卷4期。
- 許建英:《試論中國先秦時期的邊疆觀》,《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21年第1期。
- 楊華:《出土日書與楚地的疾病占卜》,《武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2003年第5期。
- 黎小龍、徐難於:《“五方之民”格局與大一統國家民族地理觀的形成》,《民族研究》2008年第6期。
- 趙永春:《中國古代的“天下”、“中國”觀》,《社會科學》2021年第4期。
- 趙容俊:《先秦巫者的醫療活動研究》,博士學位論文,北京:清華大學歷史系,2010年。

四、外國地區的參考資料

- (韓)趙容俊:《早期中國醫學與陰陽五行思想考察》,(韓國)《民族文化論叢》,2012年第52輯。
- (韓)趙容俊:《清華簡所見的陰陽五行觀念小考》,(韓國)《東洋古典研究》

2019年第74輯。

(日)松丸道雄、高嶋謙一合編:《甲骨文字字釋綜覽》, 日本:東京大學出版社,
1993年。

—Abstract—

A Research on the Records of ‘Five Directions’ in Eastern Zhou Dynasty, Qin and Han Dynasties

CHO YONG JUN*71)

The main thesis of this paper is to use various traditional documents of Eastern Zhou, Qin and Han to verify each other with other unearthed documents to discuss the main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Five Directions’ records of Eastern Zhou, Qin and Han.

‘Five Directions’ is the collective name of the five directions of east, south, west, north and middle, and is an important part of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Five Directions’ was a division of space and orientation in ancient China, and it was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Five Directions’ made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had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with space.

As the current concept of Five Elements in the Eastern Zhou Dynasty has been basically finalized, the concept of ‘Five Directions’ with the attributes of the Five Elements has also been basically formed, and specific regional divisions have gradually appeared in the center and the surrounding areas. Therefore, in the middle and late Warring States period, there appeared a distribution pattern in which the Chinese ethnic groups were in the middle, and the Rong, Di, Man, and Yi ethnic groups lived on the four sides. This distribution pattern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later generations, whether in terms of objective national geographic distribution or ideological concepts.

Later, in the Qin and Han dynasties, in the historical documents of the Qin and Han Dynasties, the expressions of ‘Four Barbarians’ and ‘Four Sides’ as ‘Northern’, ‘Southern’, and ‘Western’ can be seen, which

* Assistant Professor in School of History in Renmin University of China, China /
E-mail: choyongjun@126.com

reflect the difference in the focus of the central government's frontier politics. The planning and practice of border politics in Qin and Han dynasties concentrated the political wisdom of those in power and their advisors.

From the Eastern Zhou Dynasty to the Qin and Han Dynasties, the pattern of 'Five Directions' and 'People of the Five Directions' under the influence of unified thinking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multi-ethnic nation in the Qin and Han Dynasties, presents the evolution of ideological concepts from ideal prospects to realistic reflections.

Key Words: Eastern Zhou Dynasty, Qin and Han Dynasties, various documents, Five Elements, Five Directions

<中文提要>

東周秦漢“五方”記載考察

趙容俊*72)

本文主要論點，運用東周秦漢的各種傳統文獻，與其他出土文獻互相印證，探討東周秦漢“五方”記載的主要內容和特徵。

五方為東、南、西、北、中五個方位的合稱，是五行理論中重要的組成部分。五方即東、南、中、西、北五個方位。五方是中國古代對空間方位的一種劃分，也是五行理論中重要的組成部分，五方的確立使得五行理論與空間有了相對應的關係。

隨著在東周時期現行的“五行”觀念已基本定型，五行屬性的“五方”觀念也是基本形成，並在中央與四周上逐漸出現具體的地區劃分。因而到了戰國中晚期，就出現了華夏族群居中，戎、狄、蠻、夷諸族群居於四邊的分佈格局。這一分佈格局無論是在客觀上的民族地理分佈或是思想觀念上都對後世產生了深遠的影響。

其後到了秦漢時期，在秦漢歷史文獻中可見“四夷”、“四邊”的“北邊”、“南邊”、“西邊”等的說法，就體現中央政權邊政之關注點的方位區別。秦漢邊政規劃與實踐，集中了執政者及其諮議人員的政治智慧。

由東周至秦漢，“五方”與“五方之民”格局在統一思想影響和秦漢統一多民族國家建立的歷史背景下，呈現出由理想展望到現實反映的思想觀念演變歷程。

關鍵詞：東周時期、秦漢時期、各種文獻材料、五行、五方

* 中國人民大學校 歷史學院 歷史系，副教授 / E-mail: choyongjun@126.com

동주진한(東周秦漢) 시기의 ‘오방(五方)’ 기록 고찰

조용준*73)

본고에서는 각종 동주진한(東周秦漢) 시대의 전래문헌 및 기타 출토문헌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동주진한 시기에 나타난 오행사상(五行思想) 속성의 하나인 ‘오방(五方)’ 기록에 보이는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오방(五方)은 동(東), 남(南), 서(西), 북(北), 중(中) 다섯 방위의 총칭으로, 고대중국의 공간분할과 방위개념이자 오행설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오행설이 확립됨으로써 오방은 점차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과 상응하는 관계를 갖게 되었다.

동주시기에 현재 통용되는 ‘오행’ 개념이 기본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오행의 속성을 지닌 ‘오방’ 개념도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중앙과 주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역구분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전국시대 중후반에는 화하족(華夏族)이 중앙에, 융(戎), 적(狄), 만(蠻), 이(夷)의 ‘사이(四夷)’가 사방에 위치하는 분포형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구조는 구체적인 지리적 분포 또는 이념적 개념의 측면에서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후 진한시기에 이르러 각종문헌에 ‘사이’와 ‘북변(北邊)’, ‘남변(南邊)’, ‘서변(西邊)’ 등의 ‘사변(四邊)’으로 표현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변방정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구체적인 방위의 구별을 명시화한 것이었다. 이러한 진한시기의 변방정치에 대한 계획과 실행은 당시 권력자와 조언자의 정치적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동주시기에서 진한시기에 이르기까지 ‘오방’과 ‘오방지민’의 분포구조는 국가통일 사상의 영향과 진한시기의 통일 다민족 국가건립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국가관리의 갈망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국토지리의 분포구조로 사상관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주제어: 동주시대, 진한시대, 각종 문헌자료, 오행, 오방.

張傳璽, 《簡明中國古代史》, 北京大學出版社, 1999.

* 중국 인민대학교 역사학과 전임 조교수 / E-mail: choyongjun@126.com

3 은상(殷商)과 주대(周代) 문헌에 보이는 五方の 확대 형태

박성우(홍익재단)

목 차

1. 서론
2. 殷商시기 五方の 확대 형태
3. 西周시기 五方の 확대 형태
4. 東周시기 五方の 확대 형태
5. 결론

1. 서론

五行이란, 통상적으로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를 가리키고, 이들이 서로 체계적으로 맞물려 순환·반복하며 고대 동아시아 문화 형성의 원리를 풀이한다는 인식이 주를 이뤘다. 더욱이 이 五材라는 다섯 요소가 갖는 물질적 속성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사회 문화 골조의 이해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의 이치·변화·원리 풀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설명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통과 사상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五行의 시원과 발전 형태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水·火·木·金·土 즉, 五材에 의한 五行 관념은 戰國시대 말엽 鄒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되었고, 『尚書』, 『淮南子』, 『春秋繁露』 등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전래 문헌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五行의 근원적인 의미를 이 다섯 요소로부터 탐구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五材에 의한 五行 관념은 東周시대에

이르러서야 표면적으로 드러나 五行 발전 형태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지만, 시원을 탐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기존 연구된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의 서술된 내용을 근거하면, 殷商시기 갑골문 자료에 이미 五行의 기초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단지, 五材를 바탕으로 구성된 五行은 살펴볼 수 없고, 중앙을 나타내는 商과 동방·서방·남방·북방이라는 방위를 중시하는 영토적 중점의 五方이 기록되었으며, 심지어 모든 공간을 五方の 틀 안에 국한하여 모종의 수확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거나, 五方을 관장하는 五臣이 조직된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더욱이 출토자료와 함께 전래문헌의 기록을 참고하여 東周시기에 이르러서야 五方이라는 방위와 四時가 연계되어 결합되었고, 만사만물을 다섯 형태로 나누어 배당되었으며,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水·火·木·金·土라는 五材에 기반한 五行 발생과 함께 五材를 통한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범위까지 스며들었다는 거시적 관점의 분석이 이뤄졌다.¹⁾

이상 내용을 종합해보면, 五材라는 다섯 요소의 조화를 통한 사상적 의미의 五行은 東周시기에 발생된 형태로, 본래 지리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된 五方에서 의미가 추가되었거나 점차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 의미가 상호 병합 혹은 변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다.

본고는 이미 한 차례 연구를 진행한 논문의 후속 연구로, 五行은 최초 五方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자와 문헌학 관점의 연구 결과에 따라 五方으로부터 확대된 형태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검토와 정리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한 차례 분석 과정 중에 정리된 殷商시기 갑골문에 나타나는 영토적, 공간적 관점의 五方과 함께 파생된 의미를 제시하고, 그 파생된 의미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는 양상을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파생된 의미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골간으로 볼 수 있는 五行의 본원적 의미를 정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殷商시기 五方の 확대 형태

1) 박성우, 문치웅,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第85輯, 2021년.

본 장에서는 문자와 문장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殷商시기 갑골문 자료에 보이는 五方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 이를 기점으로 확장 또는 변천된 의미를 각각 분류 제시하여 확대 형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도록 한다. 더욱이 자료의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전래문헌 자료를 부차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殷商시기 갑골문에서는 水·火·木·金·土라는 五材에 의한 五行은 살펴볼 수 없고, 기본적으로 東·西·南·北·中이라는 지리적 구역을 구분한 五方の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己巳王卜, 貞(今)歲商受(年). 王[□]曰: 吉. (『습』36975.1)

기사일에 왕이 균열을 내어 점치기를, 올해 商은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왕이 점괘를 판단하여 말하길: 길하다.

東土受年. (『습』36975.2)

동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南土受年. 吉. (『습』36975.3)

남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西土受年. 吉. (『습』36975.4)

서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北土受年. 吉. (『습』36975.5)

북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36975

이상 제시한 용례는 모두 하나의 갑골에 새겨진 내용으로, 殷商시기 商이라는 점유 공간과 동서남북이라는 방위를 사용하여 모든 공간의 풍작을 기원하는 형태로 서술되었다. 이는 농업이 주 생산 분야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에 의한 표현 행위로 간주되고, 영토 개념의 모든 공간을 東·西·南·北·中이라는 五方の 틀 안에 국한한 형태로 서술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처럼 殷商시기 갑골문 자료에 근거하면 근본적으로 五方이라는 영토적 관점이 바탕 되었고, 차츰 그 의미로부터 확장된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五方을 바탕으로 확장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갑골문 용례를 제시

하고,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검토 분석하도록 한다.²⁾

1) 祭祀 형태

『左傳』 成公13年の 기록에서 ‘국가의 대사는 제사와 전쟁에 있다(國之大事, 在祀與戎)’, 『國語·魯語上』의 기록에서 ‘무릇 제사는 국가의 큰 제도이다(夫祀, 國之大節也)’ 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사는 고대 국가 제도의 중요 행위 중 하나로, 殷商시기 갑골문 자료에서 또한 이와 연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부분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五方이라는 영토적 관점과 연계하여 제사가 거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든 공간을 五方이라는 규격화된 틀 안에 귀속시켜 도처에서 모종의 이익을 얻고자 발생한 표현법으로 여겨진다.

辛亥卜, 內貞: 帝于北方曰(夊)風曰(役), 𠄎(年). (『合』14295.7)

신해일에 균열을 내어 內가 점을 쳤다. 夊으로 일컫는 北方과 役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辛亥卜, 內貞: 帝于南方曰(完)風夷, 𠄎(年). (『合』14295.8)

신해일에 균열을 내어 內가 점을 쳤다. 完으로 일컫는 南方과 夷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貞: 帝于東方曰(析)風曰(荔), 𠄎(年). (『合』14295.9)

점치기를, 析으로 일컫는 東方과 荔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貞: 帝于西方曰(彝)風曰(棗), 𠄎(年). (『合』14295.10)

점치기를, 彝로 일컫는 西方과 棗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위 갑골 복사의 내용을 보면, 제사를 거행하는 공간에서 모든 공간을 동서남북이라는 네 방위의 틀 안에 넣어 풍년을 기원하는 형태로 서술되었다.

2) 殷商시기 영토적 관점을 다섯 방위의 형태로 인식했던 부분은 선행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본고에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다. 박성우, 문치웅,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第85輯, 2021년.

특이한 점은 제사를 거행하는 공간을 기축으로 동방을 析으로, 서방을 彝으로, 남방을 崑으로, 북방을 倮으로 일컬었고, 각 방위에 해당하는 바람 또한 荔, 東, 夷, 倮으로 명칭 되었다는 부분이다. 胡厚宣은 일찍이 명명된 ‘析, 彝, 崑, 倮’에 대하여 네 방위를 담당하는 神을 의미하고, 복사에 주로 등장하는 제사 대상 ‘土’가 중앙 商의 社神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³⁾ 즉, 점유 공간에서 사방을 인격화하고 바람을 명명하여 제사라는 중대 행위를 설명한 부분으로, 영토적 관점의 五方으로부터 점차 확대 형태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업을 중시한 殷商시기 사시사철의 기후 변화라는 자연적 전제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바람에게 명명된 자형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서방의 바람에 명명된 隸을 介로 읽고 大로 풀이하여 동쪽으로 강하게 부는 新疆 고원의 서북풍을 지칭하였다거나, 북방의 바람에 명명된 倮를 冽로 읽어 북방의 寒風을 지칭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⁴⁾ 즉, 五方を 바탕으로 확대 구성된 형태는 문화적·자연적 특색과 만물유생론을 믿는 당시의 시대 관념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으며, 더욱이 자연적 현상과 네 방위가 어우러져 점유 공간에서 제사라는 행위가 이뤄진 형태는 五方이라는 영토적 관점이 더욱 중시되고 정착하는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바탕 아래 五方に 점차 여러 인사와 사물이 배당되는 현상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帝五臣 형태

殷商시기 갑골 복사를 살펴보면, 帝는 가장 높은 권위와 지위를 지니고 자연계의 발생되는 모든 현상을 관장하며, 인간세상의 길흉화복을 주재하는 전지전능한 존엄한 대상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帝가 五臣과 함께 쓰여 五方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인식되는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庚午貞：秋大稱，于帝五𠄎臣寧。在祖乙宗卜。茲用。『合』34148

庚午일에 점치기를 메뚜기가 기승하여 帝의 五𠄎臣에게 祖乙의 종묘에서

3) 胡厚宣, 胡振宇, 『殷商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年, 486-487쪽.

4) 于省吾, 『釋四方和四方產的兩個問題』, 『甲骨文字釋林』, 北京: 中華書局, 1979年, 123쪽.

균열을 내니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貞：其寧秋于帝五彘臣，于甲告。『屯』930.2


점치기를 帝의 五彘臣에게 제사를 거행하면 메뚜기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선공 上甲微에게 보고한다.

辛亥卜□五臣□。『合』30391.1

辛亥일에 균열을 내어 □五臣□.

王又{侑}歲于帝五臣正，佳亡雨。『合』30391.2

왕이 帝의 五臣正에게 侑歲 제례를 지내면, 비가 없을 것이다.

□又{侑}于帝五臣，又{有}大雨。『合』30391.3

帝의 五臣에게 侑 제례를 지내면, 큰 비가 있을 것이다.

위 제시한 갑골문 용례에서 ‘帝五彘臣’, ‘帝五臣’, ‘帝五臣正’이라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五方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고대 사회의 어떠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었기에 ‘帝’와 함께 쓰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五臣’과 ‘五方’의 관계와 함께 ‘五臣’이 민생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기에 ‘帝’와 함께 제례라는 중요 의식이 거행되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먼저, 위 제시한 『合』30391에서 확인되는 2와 3 두 문장의 동일한 언어 표현에 근거하여 ‘帝五臣’은 ‘帝五臣正’의 생략형이나 혹은 두 어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두 문장의 서술 형태가 다른 갑골 복사 『合』30298의 ‘帝臣에게 {제례를 지내면}, 비가 있을 것이다(于帝臣，又{有}雨).’라는 구절과 유사하여 ‘帝五臣’과 ‘帝五臣正’은 모두 ‘帝臣’에서 확대된 표현으로 판단된다.

‘臣’은 『說文』에서 “끌고 간다는 것이다. 군주를 섬기는 사람이다. 구부러 복종하는 형태를 형상하였다(牽也。事君也。象屈服之形).”라고 하였고, 『禮記·禮運』에서는 “公에게 벼슬하는 사람을 ‘臣’이라 하고, 大夫의 집에서 벼슬하는 사람을 士이라고 한다(故仕於公曰臣，仕於家曰士).”라고 하였으며, 『左傳』襄公9년에는 “임금은 현명하고 신하는 충직하며 위사람은 謙讓하고 아랫사람은 힘을 다한다(君明臣忠，上讓下競).”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臣’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신하’로 풀이하고, ‘帝臣’을 ‘

帝의 신하' 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갑골문 자료를 통하여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고, 어떠한 원류를 거쳐 형성되었는지 더 이상의 단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일찍이 陳夢家是 帝 朝廷의 관료를 지칭한다고 주장하였고,⁵⁾ 胡厚宣은 '帝五𠄎臣', '帝五臣', '帝五臣正' 에 대하여 五方을 담당한 神을 말하며, 각 지역 인간사의 운명을 주관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⁶⁾ 이 밖에 連劭名은 '帝五臣', '帝𠄎五臣' 은 五行의 神으로, '五官' 으로도 칭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⁷⁾

전래문헌의 기록을 통해 帝五臣에 대한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있는데, 『左傳』 昭公29年에서 “그러므로 五行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있으니 이를 五官이라고 한다. 이 五官은 실제로 나란히 氏와 姓을 받고, (생전에는) 작위를 받아 상공이 되었으며, (사후에는) 제사를 받는 귀한 신이 되어 사직과 오사의 제사되어 준봉을 받는다. 木正을 句芒이라고 하고, 火正을 祝融이라고 하고, 金正을 蓐收라고 하고, 水正을 玄冥이라고 하고, 土正을 后土라고 한다(故有五行之官, 是謂五官, 實列受氏姓, 封為上公, 祀為貴神, 社稷五祀, 是尊是奉, 木正曰句芒, 火正曰祝融, 金正曰蓐收, 水正曰玄冥, 土正曰后土).” 라고 하였고, 『禮記·月令』에서는 “이로써 山川의 제사와 帝의 大臣, 天의 神祇의 제사를 모두 마친다(乃畢山川之祀, 及帝之大臣, 天之神祇).” 라고 하여 鄭玄 注에서, “孟월에 종묘에 제사하고, (季月) 때에 이르러 佐臣에게 제사한다(孟月祭其宗, 至此可以祭其佐也).” 라고 하였으며, 孔穎達 疏에서는 “五帝에게 제사하고, 大臣 句芒에게 부차적으로 제사한다(則五帝為宗, 大臣句芒等為佐).” 라는 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제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帝臣은 帝의 大臣으로, 帝五臣은 '句芒', '祝融', '蓐收', '玄冥', '后土' 를 말하고, 木正, 火正, 金正, 水正, 土正의 木·火·金·水·土라는 다섯 요소는 방위를 상징적으로 대체하여 나타낸 戰國시대의 독특한 표현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후대 전래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갑골문에 나타나는 '帝五臣' 을 동·서·남·북·중이라는 각 방위를 담당해 다스리는 帝의 大臣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帝五臣正' 의 '正' 또한 전래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儀禮·大射』를 보면, “小臣正은 왼쪽 소매를 벗을 수 있도록 도우고, 公은 주색의 짧은 저고리를 벗는다. 탈의가 완료되었다면 小臣

5)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北京: 中華書局, 1988年, 572쪽.

6) 胡厚宣, 胡振宇, 『殷商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年, 487쪽.

7) 連劭名, 「甲骨刻辭所見的商代陰陽數術思想」, 『中國古代思維模式與陰陽五行說探源』,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年, 234쪽.

正은 東堂으로 퇴장하여 기다린다. ……小臣正은 왼쪽 소매를 입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공이 회당에서 한 계단 내려오면 小臣正은 빈객을 그만두게 하고, 빈객은 회당으로 올라가 공에게 머리를 조아려 재배하며, 공은 재배하여 답한다(小臣正贊袒, 公袒朱襦, 卒袒, 小臣正退俟於東堂. ……小臣正贊襲. ……公降一等, 小臣正辭. 賓升再拜稽首, 公答再拜).” 라고 하여 군주의 측근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小臣正’이라는 직책의 업무를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正’은 ‘長官’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國語·周語中』에서 “대방의 귀빈이 이르면, 접대하는 격식을 한 등급 올려 더욱 공경히 대한다. 천자의 사신이 이르면 모든 관사의 장관[官正]이 접대하는 일을 맡아 하며 上卿이 감독한다(其貴國之賓至, 則以班加一等, 益虔. 至于王吏, 則皆官正蒞事, 上卿監之).” 라고 하여 韋昭의 注를 보면, “正은 長이다(正, 長也).”⁸⁾라고 하였고, 『周禮·天官冢宰·序官』에서 또한 “宮正에는 상사 2인, 중사 4인, 하사 8인, 부 2인, 사 4인, 서 4인, 도 40인이 다(宮正: 上士二人, 中士四人, 下士八人; 府二人, 史四人, 胥四人, 徒四十人).” 라고 하여 鄭玄의 注를 보면, “正은 長이다. 궁정은 궁내 관리를 주관하는 장이다(正, 長也. 宮正, 主宮中官之長).” 라는 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제시한 주해를 통하여 ‘正’은 관할 공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급 관리 혹은 책임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문헌 풀이를 종합 분석해 보면, 갑골문에서 확인되는 ‘帝五臣正’ 또한 동·서·남·북·중이라는 각 구역을 담당하는 帝의 大臣 즉, 각 방위를 담당하는 帝의 다섯 책임자를 지칭하는 듯하다. 또한 앞서 제시한 『儀禮·大射』에서 “공이 회당에서 한 계단 내려오면 小臣正은 빈객을 그만두게 하고(公降一等, 小臣正辭)” 라고 하여 “小臣正”이라는 용어가 「燕禮」 편에서는 동일한 문장에 단지 ‘小臣’으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징은 ‘小臣正’과 ‘小臣’이 서로 동일 대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고위 관료 직책의 명칭에 正을 넣어 기록하였다는 분석에 근거한다면,⁹⁾ 갑골문에 나타나는 ‘帝五臣正’과 ‘帝五臣’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모두 동·서·남·북·중이라는 다섯 방향의 구역을 관리하는 帝의 다섯 책임자를 지칭한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帝五彡臣’ 또한 ‘帝五臣’, ‘帝五臣正’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帝五彡臣’에서 확인되는 ‘彡’에 대하여 과거에는 ‘玉

8) 徐元誥撰; 王樹民, 沈長雲點校, 『國語集解』, 北京: 中華書局, 2002年, 68쪽.

9) 鄒漢勛, 『讀書偶識』, 北京: 中華書局, 2008年, 194쪽.

’으로 풀이하었는데, 여러 고증을 통하여 잘못 해석한 것으로 밝혀졌다.¹⁰⁾ 현재 ‘工’ 혹은 ‘介’로 풀이하는 두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풀이 모두 ‘帝五臣’, ‘帝五臣正’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근래에 고석 발표된 자료를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제시하면, 전자는 ‘𠄎’을 ‘珽’으로 풀이하고 ‘工’으로 읽어 ‘帝五工臣’으로 풀이한다는 견해로,¹¹⁾ 『左傳』 昭公17年の “오치로 五工正을 삼다(五雉為五工正)”라는 ‘五工正’과 대응하며, 杜預 注의 “五雉의 雉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西方의 雉를 鷓雉라고 하고, 東方의 雉를 鷓雉라고 하며, 南方의 雉를 翟雉라고 한다. 北方의 雉를 鷓雉라고 하고, 이수과 낙수 남쪽의 雉를 翟雉라고 한다(五雉, 雉有五種, 西方曰鷓雉, 東方曰鷓雉, 南方曰翟雉, 北方曰鷓, 伊洛之南曰翟).”라는 문헌 풀이를 참고할 수 있다. 정리하면, 昭公17年の 기록에 근거하여 ‘帝五𠄎臣’을 ‘帝五工臣’으로 풀이하고 사방과 중앙으로 배분된 동·서·남·북·중이라는 다섯 방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帝五臣’, ‘帝五臣正’과 동일한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후자는 ‘𠄎’을 『說文』에서 ‘介’로 읽는다는 근거를 시작으로 ‘介’는 ‘副’의 의미가 있으며, 『尚書·秦誓』에서 “만일 한 신하가 정성스럽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른 재주는 없으나(如有一介臣, 斷斷猗無他技)”라는 내용의 ‘一介臣’ 즉, ‘수사 + 介臣’으로 서술되었다는 부분을 보충 근거하여 ‘帝五𠄎臣’을 ‘帝五介臣’으로 풀이하었다. 또한 갑골문에서 동일한 유형의 두 문례에 단지 ‘三介父’와 ‘三父’가 혼용된 부분에 근거하여 ‘帝五臣’은 ‘帝五介臣’의 생략 형태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¹²⁾ 이상 서로 다른 두 견해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고석된 두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帝五臣’, ‘帝五臣正’과 동일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위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갑골문에 나타나는 ‘帝五𠄎臣’, ‘帝五臣’, ‘帝五臣正’은 모두 군신 관계로 구성된 다섯 관리 즉,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을 관장하는 帝의 다섯 책임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언급할 만한 부분으로, 전래문헌 자료에서 인간계의 실존 대상을 지칭할 때 帝의 신하 즉, 帝臣과 五臣을 사용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10) 于省吾主編,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9年, 3281쪽.

11) 王進鋒, 『臣、小臣與商周社會』,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8年, 350쪽.

12) 『華東甲骨“多𠄎臣”與相關問題』에서 선행 연구를 취합하여 논증하였다. 姚萱, 『華東甲骨“多𠄎臣”與相關問題』, 『史林』第6期, 2010年.

먼저, 帝臣에 대한 용례를 살펴보면:

『論語·堯曰』: “나 小子 履는 감히 현모를 (제물로) 사용하여 감히 훌륭한 后帝에게 고하나이다. 罪가 있는 자를 감히 사면할 수 없고, 帝臣을 掩蔽할 수 없으니, 簡擇하는 것은 帝心에 달렸습니다(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天后帝: 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

이상 「堯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절에 대하여 何晏의 集解를 보면, “帝臣의 지위에 있는 桀의 罪過를 은폐하지 않았으니, 이는 天心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말이다(言桀居帝臣之位, 罪過不可隱蔽, 以其簡在天心故也).”¹³⁾ 라고 하여 ‘帝臣’은 즉, 桀王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五臣의 형태 또한 점차 실제 국가에 소속된 관직에서 적용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五方으로부터 시작된 발전 형태가 체계적으로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하며 자연계의 만사만물과 연계되어 다섯 형태 또는 다섯 방위에 배당하려는 과정에 나타난 표현으로 판단된다.

『管子·大匡』: “‘금일 군주께서 패업을 성취하고자 하시면 신은 명을 받들기 희망하여 재상 자리에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五官에게 명하여 업무를 행사하였다(今日君成霸, 臣貪承命, 趨立於相位, 乃令五官行事).”

『管子·君臣上』: “군주가 밝고, 재상은 민음이 있고, 五官이 엄숙하고, 사인이 청렴하고, 농부가 우직하고, 상인과 장인이 진실하면, 위아래가 하나가 되며 바깥과 안이 구별된다(君明, 相信, 五官肅, 士廉, 農愚, 商工愿, 則上下體而外內別也).”

『禮記·曲禮』: “천자의 五官은 사도, 사마, 사공, 사사, 사구를 전사오중이라고 한다(天子之五官: 曰司徒, 司馬, 司空, 司士, 司寇, 典司五眾).”

『淮南子·天文訓』: “五官이란, 동방은 전, 남방은 사마, 서방은 리, 북방은 사공, 중앙은 도이다(何謂五官? 東方為田, 南方為司馬, 西方為理, 北方為司空, 中央為都).”

위 용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五官 즉, 五臣은 고대 왕실에 속한 관료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五方に 각각 배당되어 각 방위에 소속된 관

13) (清)阮元 校刻, 十三經注疏(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0年, 2535쪽.

리의 의미로 서술되었다. 또한 다른 전래문헌 기록을 살펴봐도 동·서·남·북·중이라는 각 방위에 소속되어 담당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左傳』 昭公17年에서 “그러므로 새로 써 기록하여 벼슬을 새의 이름으로 命名하였으니(故紀於鳥, 為鳥師而鳥名).” 라고 하였는데, 孔穎達의 疏에서 인용한 賈逵의 구절에서는 “서방의 雉를 鷩雉라고 하고, 나무를 다루는 장인이다. 동방의 雉를 鷮雉라고 하고, 흙을 두드리는 장인이다. 남방의 雉를 翟雉라고 하고, 쇠를 다스리는 장인이고, 북방의 雉를 鷦雉라고 하고, 가죽을 다스리는 장인이다(西方曰鷩雉, 攻木之工也; 東方曰鷮雉, 搏埴之工也; 南方曰翟雉, 攻金之工也; 北方曰鷦雉, 攻皮之工也).” 라고 하여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に 속하는 다섯 관리를 五雉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갑골문에 나타나는 帝五臣은 帝의 다섯 신하로, 후대 전래문헌의 산견된 내용을 보충 근거하여 五方이라는 방위에 각각 배당돼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인격화된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후대 전래문헌의 내용과 주석서의 풀이를 통하여 확인하였듯이 점차 고대 왕조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실제 관리를 五臣의 형태로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중이라는 다섯 방위에 배속해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보여 진다.

3. 西周시기 五方の 확대 형태

五行의 시원과 형성 및 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검토 진행되고 있고, 그중 先秦 출토문헌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보통 본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殷商시기 甲骨文 자료와 西周시기를 대표하는 金文, 東周시기 竹簡, 그리고 전래문헌 자료를 상호 보충 검토하여 분석이 이뤄진다.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된 기존 선행 자료를 살펴보면 예상 외로 西周 金文을 토대로 五方の 발전 형태나 五行의 原型 또는 변천 체계를 탐구하려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주로 殷商시기 갑골문을 바탕으로 연구 검토되었거나 대부분 五行을 활발하게 이용했던 戰國시기 이후의 문헌을 통하여 정리되었으며, 간혹 일부 자료에서 금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단히 지엽적으로 다루졌다.¹⁴⁾

기원전 1046년, 武王이 商을 멸망시키고 周를 건국하여 두 정치 집단의 문화적 배경과 정치 제도의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論語·為政』에서 “주나라가 은나라 예를 인습하니 손익한 것을 알 수 있다(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殷代의 五方 개념이 西周시기로 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金文 검토를 통해 전승 과정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西周 金文에서 또한 殷商 甲骨文에 보이는 五方과 유사한 형태로 서술된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즉, 殷商시기 五方에 대한 개념이 西周시기로 답습해 내려왔음을 증명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金文에서 확인되는 五方的 형태를 살펴보고, 五方的 확대 체계를 면밀히 추적 검토하도록 한다.

먼저, 논리 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이미 한 차례 검토된 자료의 일부 내용을 제시한 후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大孟鼎(『集成』2837): “9월에 왕이 宗周에 있었다. 왕이 孟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孟! 크게 빛나는 文王께서는 天으로부터 大命을 받았다. 武王은 文王을 계승받아 나라를 세우고, 감춰진 땅을 열고, 四方을 소유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隹[唯]九月, 王才[在]宗周, 令[命]孟, 王若曰: 孟! 不[丕]顯玟[文]王, 受天有大令[命], 王[在]王[武]王嗣玟[文]乍[作]邦, 鬲[厥]匭, 匭[撫]有[佑]三[四]方, 王[正]厥[厥]民).”

師匭簋(『集成』4342): “皇帝께서는 (周 왕실)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 周를 굶어 살펴 보우하시니, 四方의 백성까지 안락하고 안정되지 않음이 없다(肆[肆]皇帝亡[數], 臨保我又[有]周, 王[零]三[四]方民, 亡不康靜[靖]).”

猷簋(『集成』4317): “나의 마음은 밝고 아름다워 사방에 미치게 하였다(猷[致]朕心, 隆[施]于三[四]方).”

이상 세 銘文에 확인되는 ‘四方을 소유하고’, ‘四方의 백성까지’, ‘四方에 미치게’ 라는 구절의 ‘四方’은 중원이라는 지배층이 있는 공간을 제

14) 胡厚宣, 「論五方觀念及『中國』稱謂之起源」, 『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 濟南: 齊魯大學國學研究所, 1944年. 김경일, 「殷代 갑골문을 통한 '五行'의 문화적 기원 연구」, 『中語中文學』 第38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年. 龐朴, 「陰陽五行探源」, 『中國社會科學』 第3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84年. 彭華, 『陰陽五行研究(先秦篇)』, 上海: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4年. 趙容俊, 「清華簡所見的陰陽」, 『東洋古典研究』 第74輯, 서울: 동양고전학회, 2019年. 薛立芳, 「從甲骨文、金文看陰陽五行的興起」, 『蘭臺世界』 5月下, 2011年.

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을 단지 네 방향으로 국한해 표현한 부분이다. 이러한 공간 관념은 영토를 동·서·남·북·중으로 구분한 殷商시기의 지리적 인식이 전해져 내려오며 발생한 표현법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殷商시대 동·서·남·북·중이라는 영토적 구분을 나타내는 五方 개념이 西周시기로 전승되어 지배층이 있는 중심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을 四方으로 함축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여 진다.¹⁵⁾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갑골 복사에는 ‘商’을 중심으로 ‘東土’, ‘南土’, ‘西土’, ‘北土’를 설정하여 지리적 구역을 구분하였다면, 西周 청동기 銘文에서 이를 그대로 답습한 듯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禹鼎(集成 2833): 아. 슬프도다! 天이 下或에 큰 재앙을 내려 鄂侯馭方이 南淮夷와 東夷를 거느리고 南或과 東或을 광범위하게 공격하여 歷內까지 이르렀다(烏鳴呼哀哉! 用天降大喪于下或, 亦唯噩{鄂}侯馭{馭}方, 衛{率}南淮尸{夷}, 東尸{夷}廣伐南或、東或, 至于歷內).

保尊(『集成』6003): 을묘, 왕이 保에게 殷 東或의 五侯를 잡으라고 명하여 이에 여섯 물품을 하사하여 保가 치하 받고, 물품을 하사 받아 父癸의 종묘를 위한 보배로운 제기를 만들었으며, 四方이 조우하여 왕과 회합하여 주를 돕기를 제사하였다. 2월 보름(乙卯, 王令保及殷東或五侯, 釁{誕}兄{貺}六品, 蔑{冊}于保, 易{錫}賓, 用乍{作}父癸宗寶{尊}彝, 邁{于}三{四}方, 造{會}王大祀, 禴{侑}于周, 才{在}二月既{壺}).

이상 西周 銘文에 나타나는 ‘東或’, ‘南或’의 ‘或’은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방어시설을 갖춘 취락을 의미하고,¹⁶⁾ 주로 ‘방위사+或’, ‘수량사+或’의 형태로 나타난다. 『說文』에서 “或, 邦이다. □를 의미요소로 하고, 戈를 의미요소로 하는 것은 그것으로 ‘一’을 지키는 것이다. ‘一’은 땅이다. 域은 或의 흑체이고, 土를 의미요소로 한다(或, 邦也. 从□从戈, 以守一. 一, 地也. 域, 或又从土).”라고 하여 봉토(邦) 혹은 구역이나 강역(域)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西周 청동기 銘文에는 ‘東或’, ‘南或’과 함께 ‘中或’이라는 어휘를

15) 박성우, 문치웅,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第85輯, 2021년.

16) 김정열, 「西周時代의 東夷」, 『崇實史學』 第32輯, 2014년, 224쪽.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殷商시기 지배층이 거처하는 지역 ‘商’을 ‘中商’으로도 일컫는 부분과 상응하여 五方이 점차 후대로 전승되어 구축되었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 중 하나로 판단된다.

何尊(『集成』6014): 왕께서 처음으로 成周로 도읍을 옮기고, 武王의 예법을 찬양하며 天에서 관제를 드리고 돌아왔다. 四月 丙戌일에 왕은 宗廟에서 小子에게 알려 주기를, “옛날 그대 부친(公氏)께서 文王을 위해 함께 해주어, 文王이 이에 大命을 받았다. 武王이 大邑 商을 함락시키고, 天에게 삼가 아뢰기를 ‘저는 장차 여기 中或을 건설하고, 이곳으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隹{唯}王初遷{遷}宅于{于}成周, 復再珣{武}王豐{禮}禘{禘}自天. 才{在}三{四}月丙戌. 王烹{誥}宗子[小子]于{于}京室. 曰: 昔才{在}爾考公氏. 克遠{仇}玆{文}王, 緝{肆}玆{文}王受茲{天}命. 隹{唯}珣{武}王既克大邑商, 則{則}廷告于{于}天, 曰: 余其{其}宅茲中或, 自之辭{父}民)

何尊의 銘文에서 ‘저는 장차 여기 中或을 건설하고(余其{其}宅茲中或)’라는 구절의 ‘中或’은 周의 중심지역을 나타내고, 殷商 갑골문 『合』20453.1의 “□사일에 균열을 내어 왕이 점치기를 中商에서 敵方을 방어하라(□巳卜, 王貞: 于中商乎禦方).”라는 구절의 ‘中商’은 商의 중심지역을 나타내어 ‘中商’과 ‘中或’은 모두 두 시대의 각 중심지역을 의미하는 대응 관계로 보여 진다. 다시 말하면, 殷商시기에는 영토적 구분을 ‘東土’, ‘南土’, ‘西土’, ‘北土’, ‘中商’으로 방위사와 토가 함께 사용되었다면, 西周시기에는 ‘東或’, ‘南或’, ‘中或’으로 방위사와 或이 함께 사용되었고, 이러한 증거 자료에 근거한다면 두 그룹은 동일하게 五方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毛公鼎(『集成』2841) 銘文의 ‘四或을 안락하고 화목하게 하며(康能三{四}或)’, 逯盤(『新收』757) 銘文의 ‘四或 萬邦을 평정하였다(用奠三{四}或萬邦).’, 鞞鐘(『集成』260) 銘文의 ‘鞞는 만년토록 영원히 四或을 다스리고자 한다(鞞其{其}萬年, 吮{唆}保三{四}或).’라고 하여 ‘中或’을 제외한 동·서·남·북 네 개의 방위를 연상시키는 ‘四或’이 확인되고, 이는 殷商시기와 西周시기 五方の 계승 관계를 더욱 뚜렷이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西周 청동기 金文에는 지배층의 공간을 중앙, 그 이외의 공간을 四方으로 표현하여 五方の 범위에 모든 공간을 대입하려는 형태로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갑골문에서 확인되는 ‘東土’, ‘南土’, ‘西土’, ‘北土’, ‘中商’이라는 殷商시기 방위 구분 형태가 西周시기로 답습해

내려와 ‘東或’, ‘南或’, ‘中或’ 으로 영토 구분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즉, 이러한 기록은 殷商시기의 五方 관념이 西周시기로 전승된 중요 근거 자료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殷商시기 五方 관념이 西周시기로 계승 보존되었고, 人事 활동에 스며들어 영토 구분에 지속 사용되었다고 보여 진다.

4. 東周시기 五方の 확대 형태

東周시기에 이르러서야 五方 체계는 점차 사회 여러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한다. 먼저, 春秋시대 사회 문화와 管仲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전래문헌 『管子』의 내용을 언급할 수 있는데, 「幼官」 「幼官圖」 편에서 四時를 人事 활동과 짝지어 군주의 법도와 역할, 圖의 구도와 역할, 군사 무기와 형벌 등을 다섯 형태로 구분하여 배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幼官」 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구분된 다섯 형태를 표로 정리하도록 한다.

「幼官」: “五和時節에 군주는 황색 옷을 입고, 단맛을 맛보고, 宮聲을 들으며, 和氣를 다스린다. 五數를 사용하고, 黃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倮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온화한 마음을 품고, 다스림에 힘쓰며, 심기를 닦고 통하면 만물이 안정되고 형상은 성장하며 다스려진다.……仁을 실천하고 義를 행하며 정성을 따르고 신의를 베풀면, 왕업을 이룰 수 있다.……이는 圖의 方中에 있어야 한다.……八舉時節에 군주는 청색 옷을 입고, 신맛을 맛보고, 角聲을 들으며, 燥氣를 다스린다. 八數를 사용하고, 靑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羽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인자한 마음을 품고, 다스림에 힘쓰며, 심기를 닦고 통하면 만물이 안정되고 형상은 성장하며 다스려진다.……이는 圖의 東方 方外에 위치한다.……七舉時節에 군주는 붉은색 옷을 입고, 쓴맛을 맛보고, 羽聲을 들으며, 陽氣를 다스린다. 七數를 사용하고, 赤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毛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순박한 마음을 품고, 돈독하게 실천하며 심기를 닦고 통하면 만물이 안정되고 형상은 성장하며 다스려진다.……이는 圖의 南方 方外에 위치한다.……九和時節에 군주는 흰색 옷을 입고, 매운맛을 맛보고, 商聲을 들으며, 溼氣를 다스린다. 九數를 사용하고, 白后의 井에서

17) 「幼官」과 「幼官圖」의 내용에 근거하여, 두 편에 기록된 사상 내용이 西周시기에 이미 발생했다고 추단한 견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劉長林, 「五行學說의 起源과 形成」, 『유학연구』 3권, 1995년, 291쪽.

물을 마시며, 介蟲의 火로 밥을 짓는다.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너그럽고 민첩하게 행동하며, 심기를 닦고 통하면 만물이 안정되고 형상은 성장하며 다스려진다.……이는 圖의 西方 方外에 위치한다.……六行時節에 군주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잔맛을 맛보고, 徵聲을 들으며, 陰氣를 다스린다. 六數를 사용하고, 黑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鱗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자애롭고 두터운 마음을 지니고 순박한 태도로 행동하며, 심기를 닦고 통하면 만물이 안정되고 형상은 성장하며 다스려진다.……이는 圖의 北方 方外에 위치한다.……” 18)

“반드시 병영에 장수를 배치하고, 군사 전략은 반드시 미리 정한다. 천하의 좋은 병장기를 구하고, 많은 장인들이 무기 제조 방안을 논의하며, 무기가 완성되면 성능의 좋고 나쁨을 시험한다.……이는 圖의 方中에 위치한다.……기물은 청색을 숭상하고, 병장기는 창을 주관하며, 형벌은 곧 칼을 씌우거나 차꼬를 채우는 목형을 쓴다.……이는 圖의 東方 方外에 위치한다.……기물은 적색을 숭상하고, 병장기는 긴 창을 주관하며, 형벌은 여름의 형벌을 쓴다.……이는 圖의 南方 方外에 위치한다.……기물은 백색을 숭상하고, 병장기는 검을 주관하며, 형벌은 칼로 베는 도참의 형벌을 쓴다.……이는 圖의 西方 方外에 위치한다.……기물은 흑색을 숭상하고, 병장기는 거드랑이에 끼는 방패를 주관하며, 형벌은 물에 빠뜨리는 형벌을 쓴다.……이는 圖의 北方 方外에 위치한다.” 19)

【표1】 『管子·幼官』의 다섯 분류표

五方	中央	東	南	西	北
時期	五和時節	八舉時節	七舉時節	九和時節	六行時節

18) "五和時節, 君服黃色, 味甘味, 聽宮聲, 治和氣, 用五數, 飲於黃后之井, 以倮獸之火爨, 藏溫濡, 行馭養, 坦氣修通, 凡物開靜, 形生理……身仁行義, 服忠用信, 則王……此居圖方中……八舉時節, 君服青色, 味酸味, 聽角聲, 治燥氣, 用八數, 飲於青后之井, 以羽獸之火爨, 藏不忍, 行馭養, 坦氣修通, 凡物開靜, 形生理……此居於圖東方方外……七舉時節, 君服赤色, 味苦味, 聽羽聲, 治陽氣, 用七數, 飲於赤后之井, 以毛獸之火爨, 藏薄純, 行篤厚, 坦氣修通, 凡物開靜, 形生理……此居於圖南方方外……九和時節, 君服白色, 味辛味, 聽商聲, 治溼氣, 用九數, 飲於白后之井, 以介蟲之火爨, 藏恭敬, 行搏銳, 坦氣修通, 凡物開靜, 形生理……此居於圖西方方外……六行時節, 君服黑色, 味鹹味, 聽徵聲, 治陰氣, 用六數, 飲於黑后之井, 以鱗獸之火爨, 藏慈厚, 行薄純, 坦氣修通, 凡物開靜, 形生理……此居於圖北方方外."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年, 135-158쪽.

19) "必設常主, 計必先定. 求天下之精材, 論百工之銳器, 器成角試否臧……此居於圖方中……旗物尚青, 兵尚矛. 刑則交寒害鈇……此居於圖東方方外……旗物尚赤, 兵尚戟. 刑則燒交疆郊……此居於圖南方方外……旗物尚白, 兵尚劍. 刑則紹味斷絕……此居於圖西方方外……旗物尚黑, 兵尚魯盾. 刑則游仰灌流……此居於圖北方方外."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年, 166-178쪽.

四時	--	봄	여름	가을	겨울
五色	黃色	青色	赤色	白色	黑色
五味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五聲	宮	角	羽	商	徵
五氣	和	燥	陽	溼	陰
五數	5	8	7	9	6
五井	黃后之井	青后之井	赤后之井	白后之井	黑后之井
五獸	倮獸	羽獸	毛獸	介蟲	鱗獸
五藏	藏溫濡	藏不忍	藏薄純	藏恭敬	藏慈厚
五兵	--	矛	戟	劍	盾
五刑	--	交寒害鈇	燒交彊郊	紹昧斷絕	游仰灌流

이상 제시한 「幼官」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五和時節을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八舉時節, 七舉時節, 九和時節, 六行時節이라는 문구와 대응하여 각 계절에 지켜야 할 군주의 예절과 도리, 정사에 관한 내용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흥미롭게 볼 부분은 五和時節과 대응하는 계절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어 풀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五和時節에 대한 注를 보면, “土는 數五를 生하고, 土氣는 和이며, 군주는 때에 순응하여 정사를 돌본다(土生數五. 土氣和, 則君順時節而布政).”²⁰⁾라고 하여 五和時節과 土는 동일 공간에 배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呂氏春秋·季夏紀第六』에서 “중양은 土이다. 그 날은 戊己일이며, 帝는 黃帝, 神은 后土, 蟲은 倮, 音은 宮, 律은 黃鐘의 宮, 수는 다섯, 맛은 단맛이다(中央土: 其日戊己, 其帝黃帝, 其神后土, 其蟲倮, 其音宮, 律中黃鐘之宮, 其數五, 其味甘).”²¹⁾라는 기록을 통하여 五和時節의 시기를 늦은 여름(季夏)으로 추측할 수 있다.²²⁾ 그러나 여기서 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사계절의 시작을 의미하는 봄이 아닌 늦은 여름을 나타내는 五和時節을 「幼官」 편의 서두에 둔 이유가 파악할 수 없다. 둘째, 「幼官」 편의 내용을 모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 년을 12일씩 30節氣로 나눈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²³⁾ 모두

20)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年, 135쪽.

21) 陳奇猷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1984年, 312쪽.

22) 五和時節을 季夏의 시기로 늦여름으로 풀이한 번역서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경기: 소나무, 2006년, 90쪽.

23) 『管子·幼官』의 내용에 근거하면, 일 년 360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일을 한 주기로 30절기로 나누었다. 봄은 地氣發, 小卯, 天氣下, 義氣至, 清明, 始卯, 中卯, 下卯으로, 여름은 小郢, 絕氣下, 仲郢, 中絕, 大暑至, 中暑, 小暑終으로, 가을은 期風至, 小卯, 白露下, 復理, 始節, 始卯, 中卯, 下卯, 겨울은 始寒, 小榆, 中寒, 中榆, 寒至, 大寒之陰, 大寒終으로 구분

봄·여름·가을·겨울에 배속하여 五和時節에 속하는 기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幼官」 편에서 서술된 내용은 사시를 중심으로 만상을 배당하는 구조가 아닌, 五方을 중심으로 사시와 접목해 기록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간적 인식이 시간적 인식의 영역으로 영향을 끼쳤고, 두 인식이 모호한 불완전한 혼합 형태로 이뤄져 중앙을 중심으로 동·남·서·북을 차례로 사시와 함께 만상을 체계적으로 배당하려는 지리적 중점의 오방 관념이 확대된 표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²⁴⁾

앞서 殷商 갑골문과 西周 청동기 금문의 용례에 근거하면 동서남북 네 방위와 그 방위에서 이뤄진 모든 행위는 ‘중앙’이라는 영토적 중심 거처가 축이 되어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西周 이전의 방위적 개념이 후대에 영향을 끼쳤고, 영토적 관점의 五方이 시간적 관점의 영역으로 점차 스며들어 확대 변천되는 과정 속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즉,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뤄진다는 五方에 대한 인식이 심리에 담겨 지배층이 존재하는 중앙으로부터 동남서북의 인사 현상을 총괄하는 동시에 자연의 순리와 일상 생활상의 예법, 제도를 모두 지위 조정하려는 행위로 확대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동·서·남·북이라는 五方 인식을 중심으로 사시와 자연 현상의 순환, 사회 예법과 제도를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 아래 五方 체계는 더욱 정제되어 정형화되었고, 후대로 전해지며 점차 중앙을 나타내는 토가 사시에 맞춰 조정되어 사계절의 중간지점에 배속되었으며, 木·火·土·金·水 즉, 동·남·중앙·서·북에 봄·여름·늦여름·가을·겨울을 배속하는 형태로 서술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幼官」 편보다 늦은 시기에 서술되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 「四時」 편과 『呂氏春秋』 十二紀에서 木·火·土·金·水의 순서로 배열이 이뤄진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²⁵⁾

이 밖에 五方을 중심으로 만사만물이 배당되는 형태는 東周시기 출토자료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24) 劉長林은 五和時節에 대하여 중앙이 균위를 대표한 이상, 한 때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배명환은 '방위의 中央'에 '시간의 중앙'에 해당하는 '제5의 계절'인 '중앙토의 계절'을 당위로 상징하여 사유한 결과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劉長林, 「五行學說의 起源과 形成」, 『유학연구』 제3집, 1995년, 292쪽. 배명환, 『陰陽五行에 근거한 六舍 空間觀에 관한 研究』,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년.

25)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년, 842-855쪽. 陳奇猷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1984년, 312쪽.

清華簡 『筮法』: “동방은 목이다. 청색이다. 남방은 화다. 적색이다. 서방은 금이다. 백색이다. 북방은 수다. 흑색이다(東方也, 木也, 青色.【60】 南【49】方【50】也,【51】 火【52】也,【53】 赤【50】色【51】也.【52】 西方也, 金也, 白色.【42】 北【49】方【50】也【51】, 水【52】也,【53】 黑【50】色【51】也.【52】).” 26)

睡虎地秦簡 『日書』 甲種: “동방은 목이다. 남방은 화다. 서방은 금이다. 북방은 수다. 중앙은 토이다(東方木八八背叁, 南方火八九背叁, 西方金九〇背叁, 北方水九一背叁, 中央土九二背貳).” 27)

이상, 출토자료의 내용 또한 동·남·서·북·중으로 설정된 지리적 공간에 木·火·土·金·水라는 다섯 요소와 함께 五色을 배당한 형태로 서술되었다. 이는 西周 이전 시기에 이미 체계적으로 조직된 영토적 중점의 五方 개념에서 만사만물을 배속하여 사회의 질서와 왕조의 법기를 다스리려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리 과정으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연상은 五方을 중심으로 만사만물이 배당되는 형태를 벗어나 점차 五材를 이용하여 五行 相生說, 相剋說의 이론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相生은 五方に 배속된 五材를 바탕으로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라고 하여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가 서로 순환하며 조화를 이뤄 낳는 이치를 말하고, 相剋은 土克水,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木克土라고 하여 서로 배척하고 부정하는 이치를 말한다. 이 같은 내용은 天水放馬灘 秦墓에서 출토된 簡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放馬灘 『日書』 乙種: “토는 목을 낳고,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는다(土生木, 木生火, 火生土^{77貳}).” 28)

위 구절은 전래문헌 『淮南子·天文訓』의 “수는 목을 낳고,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는다(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29)라는 구절과 동일한 형태로 서술되어, 五方に 만사만물을 배속하는 형태에서 오행상생설로 확대되었고, 이 확대된 형태가 보존되어 후대로 전해져 내려갔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단지, 放馬灘 『日書』 乙種에서는 ‘土生木’ 이라고 서술하였는데, 전통적인 오행상생설에 근

26) 李學勤, 『清華大學藏戰國竹簡(肆)』, 上海: 中西書局, 2013年.

27)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223쪽.

28) 陳偉 主編, 『秦簡牘合集·肆』,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4年, 58쪽.

29) 何寧 撰,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年, 277쪽.

거하여 ‘土生木’의 ‘土’는 ‘水’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睡虎地秦簡 『日書』의 甲種과 乙種에서 또한 五行相生相剋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睡虎地秦簡 『日書』 甲種: “金은 木을 이기고, 火는 金을 이기고, 水는 火를 이기고, 土는 水를 이기고, 木은 土를 이긴다(金勝木_{八三背叁}, 火勝金_{八四背叁}, 水勝火_{八五背叁}, 土勝水_{八六背叁}, 木勝土_{八七背叁}).”³⁰⁾

睡虎地秦簡 『日書』 乙種: “丙丁日是 火다. 火는 金을 이긴다. 戊己日是 土이다. 土는 水를 이긴다. 庚辛日是 金이다. 金은 木을 이긴다. 壬癸日是 水이다. 水는 火를 이긴다. 酉丑巳일은 金이다. 金은 木을 이긴다. 卯. 未亥卯日是 木이다. 木은 土를 이긴다. 辰申子日是 水이다. 水는 火를 이긴다(丙丁火, 火勝金_{七九貳}. 戊己土, 土勝水_{八〇貳}. 庚辛金, 金勝木_{八一貳}. 壬癸水, 水勝火_{八二貳}. [酉]丑巳金, 金勝木_{八三貳}. 卯. 未亥[卯木, 木]勝土_{八五貳}. 辰申子水, 水勝火_{八七貳}).”³¹⁾

이상 제시한 『放馬灘』 죽간은 온전한 秦의 日書이며, 『睡虎地』 죽간은 온전한 楚의 日書로 알려져 있다.³²⁾ 이에 근거하여 戰國시대에 이미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に 만사만물을 배당하는 방식과 함께 五行相生相剋의 관계로 발전되어 어느 정도 정제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점차 후대로 내려오며 五行相生相剋의 관계를 정치·철학에 확대 적용했다는 사실이다.

『左傳』 昭公31年: “화는 金을 이기기 때문에 [吳가] 승리하지 못한다(火勝金, 故弗克).”³³⁾

『左傳』 哀公9年: “수가 화를 이기기 때문에 강씨의 나라를 치는 것이 가능하다(水勝火, 伐姜則可).”³⁴⁾

30)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睡虎地秦墓竹簡·日書甲種釋文注釋』, 北京: 文物出版社, 1990年, 223쪽.

31)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睡虎地秦墓竹簡·日書乙種釋文注釋』, 北京: 文物出版社, 1990年, 239쪽.

32) 何雙全, 「天水放馬灘秦簡甲種『日書』考述」, 『秦漢簡牘論文集』, 甘肅人民出版社, 1989年, 23쪽.

33)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1年, 1514쪽.

34)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1年, 1653쪽.

『史記·秦始皇本紀』: “시황은 종시오덕의 원리에 근거하여 주나라는 화 덕을 얻었고, 진나라는 주나라의 덕을 대체하였으므로 반드시 주나라의 덕에 눌리지 않는 덕을 채용해야 한다. 따라서 바야흐로 수덕이 시작되었고,……의 복과 부절 및 깃발의 색깔은 모두 흑색을 최상으로 여겼다. 숫자는 6을 밑바탕으로 설정하여 부절과 法冠은 모두 6촌으로, 수레의 넓이는 6척으로, 6척을 1보로, 수레 한 대는 여섯 마리의 말이 끌도록 정하였다(始皇推終始五德之傳, 以為周得火德, 秦代周德, 從所不勝. 方今水德之始,……衣服旄旌節旗皆上黑. 數以六為紀, 符、法冠皆六寸, 而輿六尺, 六尺為步, 乘六馬).”³⁵⁾

위 문헌 내용을 통하여 당시 권력층은 五行의 相生相剋을 이용하여 만사 만물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운행 논리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왕조의 흥폐가 결정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더욱이 五行 相生相剋은 자연계에 깊이 침투되어 秦 왕조에서는 北方에 배속되어 있는 옷, 색깔, 숫자 등을 존송하게 되었다는 흥미로운 문장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東周시기에 이르러서야 五方 체계는 점차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만사만물을 五方に 배속하여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배속된 五材를 이용하여 五行 相生相剋의 원리로 왕조의 중대사를 예측하는 형태로 확대되었다. 다시 말하면, 殷商시기 갑골 복사에 확인되는 중앙과 사방이라는 五方の 형태가 발전 확대되어, 東周시기에 이르러 만사 만물이 각 방위에 배속되는 하나의 수평적 형태의 분류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五方に 배속된 五材를 이용하여 相生相剋 관계가 확정되며 왕조 중대사가 결정되는 또 하나의 수직적 형태의 이론이 구축되었다고 보여 진다.

5. 결론

이상 先秦시기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에 확인되는 五方の 확대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殷商 甲骨文과 西周 金文, 東周 竹簡 및 전래문헌의 기록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殷商시기에 중앙과 사방이라는 五方の 형태가 구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방위를 향한 제사 행위가 이뤄진 동시에 각 방위를 관장하는 책임자를 배속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는 농업이 주 생산 분야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에 의하여 방위적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35) [漢]司馬遷, 『史記(全十冊)』, 北京: 中華書局, 1959年, 237-238쪽.

판단된다. 또한 후대 전래문헌에서 고대 왕조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다섯 방위에 배속하여 서술한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갑골문에 나타난 五方に 배속된 다섯 관리의 형태가 전해져 답습한 내용으로 추단할 수 있다.

둘째, 청동기 金文 자료에 근거하면 西周시기 또한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지닌 지배층의 거처 공간을 중앙, 그 이외의 공간을 四方으로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갑골문에서 확인되는 ‘東土’, ‘南土’, ‘西土’, ‘北土’, ‘中商’이라는 殷商시기 방위 구분 형태가 西周시기에는 ‘東或’, ‘南或’, ‘中或’으로 영토 구분이 이뤄졌다고 보여 진다. 다시 말하면, 殷商시기 五方 관념이 西周시기로 계승 보존되었고, 영토 구분에 지속 사용되었다고 보여 진다.

셋째, 東周시기에 와서 五方 체계는 더욱 확대 발전되어 四時와 접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사만물을 배속하여 정형화되는 단계에 이른 동시에 배속된 五材를 이용하여 五行 相生相剋의 원리로 왕조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형태로 확대 변천되었다. 즉, 五方을 중심으로 만사만물을 분류 배속하는 수평적 관계가 이뤄진 동시에 五方に 배속된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가 운행하며 相生相剋하는 수직적 관계로 변화되어 구성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 논증 과정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기대하며, 미흡한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보충하도록 한다.

역사한자 2021 Conference
古代 해석을 위한 古漢字

【제4발표】 한문 고문헌 속의 관작명에 대하여

▶ 이경숙(공주대)

【제5발표】 『三國遺事』의 '得'에 대한 고찰

▶ 양원석(고려대)

4 한문 고문헌 속의 관작명에 대하여 - 상고와 본고 시대를 위주로

이경숙(공주대)

목 차

1. 서론
2. 古代 주요 官爵인 風伯, 雨師, 雲師, 龍師
3. 古代 官職의 用例
4. 결론

1. 서론

殷商과 周의 갑골과 금문, 전국시대와 秦漢대의 문헌에는 당시의 관작과 이전 시대의 관작 이름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관작들은 자연적 현상과 새, 동물을 이용하여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방위를 기준으로 한 이름들이 있다. 주로 통치 관계, 五方, 五服 등과 세부 분야인 농업, 공업 등의 업무에 따라 만들어진 관작들이 있다. 상고 시대에는 동물과 새, 자연의 이름을 이용한 관작명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이름들이 관작명이 아닌 직접적인 새 이름, 동물 이름 또는 비, 구름과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이름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고와 고대를 기록한 문헌에 나타나는 관작 관련 한자들을 수집, 그룹화하여 그 관작의 역할과 위치에 대하여 논의함과 동시에 그 관작의 변천을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전설, 설화 또는 신화화한 동아시아 고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관작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수 있다.

갑골문과 주대의 청동 명문을 포함한 출토 자료와 고대를 기록한 전국시대와 진한대의 문헌에서 동아시아 고대에 대한 관작명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한자학적 이해의 부족으로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작을 나타내는 한자로서 師, 伯, 神, 帝, 公, 風 등과 같은 字들이 자주 나타난다. 동아시아 역사, 문화, 제도, 광역에 대한 이해를 위한 관작에 대한 정리는 한자학적 의미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역사 발굴과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

고대 관작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긴 상고에서 고대에 걸쳐 존재하였던 시대별, 주요 인물들과 관련한 관작의 정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기』 「오제본기」 기록의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의 주요 관작과 하·은·주 3대 시기의 관작, 또한 그 시기의 갑골문과 청동 명문에 나타나는 당시 또는 그 이전 시대의 관작들에 대하여 탐구해 들어간다. 『左傳』 「昭公十七年」에서 상고 때의 관작에 대하여 정리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가을에 郟子가 노나라에 와서 임금을 만나니, 昭公은 그와 함께 연회를 열었다. 昭公이 그에게 물기를 “少皞氏는 새 이름을 사용하여 官名을 하니, 이것은 무슨 연고인가?” 郟子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선조인데 내가 알기로, 이전에 黃帝氏가 雲을 사용하여 일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각 부 장관을 설치할 때 모두 ‘雲’ 字를 사용하여 命名하였다. 炎帝氏는 火를 사용하여 일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각 부 장관을 설치할 때, ‘火’ 字를 사용하여 命名하였다. 共工氏는 水를 사용하여 일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각 부 장관을 설치할 때, 모두 ‘水’ 字를 사용하여 命名하였다. 太皞氏는 龍을 사용하여 일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각 부 장관을 설치할 때, 龍을 사용하여 命名하였다. 나의 高祖이신 少皞가 即位하실 때, 봉황새(鳳鳥)가 마침 내려왔다. 그래서 새(鳥)로부터 일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각 부 장관을 설치하는 것을 모두 ‘鳥’를 사용하여 命名하였다. 鳳鳥氏는 바로 天文曆法을 장관하는 관리이다. 玄鳥氏는 바로 春分、秋分을 장관하는 관리이다. 伯趙氏는 바로 夏至、冬至를 장관하는 관리이다. 青鳥氏는 바로 立春、立夏를 관리하는 관리이다. 丹鳥氏는 바로 立秋、立冬을 관리하는 관리이다. 祝鳩氏는 바로 司徒이다. 鷓鳩氏는 司馬이다. 鶡鳩氏는 바로 司空이다. 爽鳩氏는 바로 司寇이다. 鶡鳩氏는 바로 司事이다. 이 다섯의 鳩는 바로 백성을 모은다는 것이다. 다섯의 雉는 다섯 종류의 수공업을 관리하는 관원을 말한다. 즉 기물 용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도량형을 통일하여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한다. 九扈는 아홉 종류

의 농업을 관리하는 관원을 말한다. 이것은 백성을 제어하여 방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顓頊 때부터 오래된 일은 기록할 수 없어서 近古 때부터 기술을 시작한다. 백성의 장관이 되어 백성의 일을 사용하여 命名을 하는 것은 이미 과거 그대로 할 수는 없게 되었다.

孔子가 이 일을 듣고, 鄭子를 만나 고대 古代官制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였다. 오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들었는데, ‘천자가 있는 곳에 古代官制를 잃어버렸다고 한다. 官制의 학문은 먼 나라 소국에 오히려 보존되고 있다.’, 이 말은 그래도 믿을 만하다.” 1)

위 내용으로 보면 公, 氏, 師 등의 직책이 있고, 雲, 火, 水, 龍, 鳥 등을 사용하여 관작을 정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자연현상 및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물체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고 시대의 관작명은 자연 현상과 관련되는 명칭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관작명이 어떤 의미와 유래가 있으며, 어떤 과정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古代 주요 官爵인 風伯, 雨師, 雲師, 龍師

『三國遺事』 2)에 보면 다음과 같이 관작명이 나타난다.

“將風伯雨師雲師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풍백·우사·운사와 主穀, 主命, 主病, 主刑, 主善惡의 五事를 하고, 만민의 수가 된 세 사람이 160여년간 세상을 다스려 나갔다.)”

이를 보면, 風伯·雨師·雲師는 桓雄의 통치를 보필하는 존재를 말하며,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政事와 관련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1) 秋, 鄭子來朝, 公與之宴, 昭子問焉. 曰, 少皞氏鳥名官, 何故也, 鄭子曰, 吾祖也, 我知之, 昔者黃帝氏以雲紀, 故爲雲師而雲名, 炎帝氏以火紀, 故爲火師而火名, 共工氏以水紀, 故爲水師而水名, 大皞氏以龍紀, 故爲龍師而龍名, 我高祖少皞, 摯之立也, 鳳鳥適至, 故紀於鳥, 爲鳥師而鳥名, 鳳鳥氏歷正也, 玄鳥氏司分者也, 伯趙氏司至者也, 青鳥氏司啟者也, 丹鳥氏司閉者也, 祝鳩氏司徒也, 鷦鷯氏司馬也, 鶡鳩氏司空也, 爽鳩氏司寇也, 鶡鳩氏司事也, 五鳩 鳩民者也, 五雉爲五工正, 利器用, 正度量, 夷民者也, 九扈爲九農正, 扈民無淫者也. 自顓頊以來, 不能紀遠, 乃紀於近, 爲民師而命以民事, 則不能故也。」仲尼聞之, 見於鄭子而學之. 既而告人曰: 「吾聞之: 『天子失官, 學在四夷』, 猶信。」

2) (校勘三國遺事 李東歡校勘 民族文化推進會發行 P32)

수 있다.³⁾

즉 고대의 관작명은 자연현상이나 동물이나 계절 등의 소재를 활용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풍백, 우사, 운사를 위시해서 오제가 임명했다는 동물이나 사물이나 현존하는 고대의 법전으로 주례에 나타나는 관작으로 기록한 예를 살펴보겠다.

2.1 風伯·雨師·雲師에 대한 주요 글자의 문자적 해석

1) 伯




楷字	小篆	金文	甲骨文	[說文] 伯：長也。釋詁、正月傳同。載芟傳雲。伯、長子也。伯兮傳雲。伯、州伯也。一義之引伸也。凡爲長者皆曰伯。古多假柏爲之。從人。白聲。博陌切。古音在五部。[異體字] 白, 虺, 霸。
伯				
백은 長(우두머리)을 말한다. 석고 정월전에도 같다. 재삼전에 伯은 長子라 했고, 백해전에서는 州伯(州의 최고관리)라 했다. 이는 모두 한뜻 즉 우두머리라는 뜻에서 인신된 것이다. 무릇 長(어른, 년장자, 수령, 두목, 임금, 제후, 장자, 형, 존귀한자)을 다 伯이라 한다. 옛날에는 많이 柏을 伯의 가차로 삼았다. 人이 뜻 부분이고, 白이 소리 부분이다. 柏은 크다(大)의 뜻으로 쓸 때 伯과 통한다.				

『釋名』：“父之兄曰伯(아버지의 형을 말함)” 『詩經(小雅 何人斯)』：“伯氏吹埙(형을 말함.)” 『孟子(萬章下)』：“三等爵位(백작을 말함)” 『周禮(春官)』：“大宗伯(춘관의 최고직 공에 해당함)” 『周禮(東西二伯)』：“正邦國之位九命作伯(九儀의 명령으로 크고 작은 나라의 지위를 내리고 九命으로 제후의 伯(霸者)을 일으킨다.)”註：“上公有功德者加命爲二伯得征五侯九伯者(上公으로 공덕이 있는 자에게 명을 내려 二伯으로하고 五侯 九伯을 다스리게 한다.)”疏“公羊傳自陝以東周公主之陝以西召伯主之是東西二伯也言九伯九州有十八伯各得九伯故雲九伯也.(공양전에 섬서성 동쪽은 주공이 관할하고, 섬서성 서쪽은 소백이 관할한다는 것이 이백이고, 동서에 九州가 있어 모두 18 伯이 있는데 이를 九伯이라고 한다.)”혹은 “婦人目其夫曰伯(詩經·衛風 伯也執殳)(부인이 자기 남편호칭을 백이라고 했는데 이는 시경 위풍에 ‘남편(伯)이 창을 들고’라는 표현이 있다.)”伯은 <正韻>에 必駕切라하여 霸(必駕切, 匹陌切)와 동운이다. 五伯은 바로 오패를 말하며, 春秋五霸(五伯). 齊

3) [清陰按]일반적으로 해설서에는 풍백·우사·운사의 등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풍백·우사·운사의 서열은 현재의 등위로 말하면 총리 부총리에 해당하고 주공·주명·주병·주형·주선악은 각부 장관에 해당할 것이다.

桓公, 晉文公, 秦繆(穆)公, 宋襄公, 楚莊王 등을 말한다. 兄弟順次位로 伯仲叔季가 있는데 4형제가 있을 때 伯(長子), 仲(次子), 叔(三子), 季(四子, 막내) 등으로 나누고, 삼형제일 경우에는 伯(장자), 仲(차자), 季(막내) 등으로 나눈다.

2) 서주 금문의 ‘五行’

楷 字	小 篆	金 文	甲 骨 文	[說文] 二千五百人爲師。小司徒曰：五人爲伍，五伍爲兩，五兩爲卒，五卒爲旅。五旅爲師。師，衆也。京師者，大衆之稱。衆則必有主之者。周禮師氏注曰：師，教人以道者之稱也。黨正旅師閭胥注曰：正師胥皆長也。師之言帥也。從巾從自。會意。疎夷切。十五部。自四巾，眾意也。自下曰：自小也。小而四圍有之，是衆意也。說會意之愜。(率)古文師。
師				[異體字] 巾, 師, 獅, 自, 率, 皐, 帑, 帑, 師, 師, 帑, 師
<p>2500인의 군단을 師라고 한다. 주례 지관 소사도에 모든 백성의 줄오를 모아서 쓰는데 다섯 사람을 伍로 삼고 5伍를 兩(兩)으로 삼고 5兩을 卒로 삼고 5卒을 旅로 삼고 5旅를 師로 삼으며, 師는 무리를 말한다. 京師는 大衆을 지칭하는데 大衆에게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게 마련이다. 주례 지관 師氏注에 이르기를 師는 사람을 가르쳐 인격체를 양성하는 직책으로 교육담당 최고 책임자이다. 黨正旅師閭胥注曰 注에 이르기를 정사서는 다 長(우두머리)을 말하는데 師는 帥(장수 수, 거느릴 술)를 말한다. 師는 巾과 自를 뜻으로 造字된 會意자이다. 疎의 초성 亻과 夷의 중성 丨를 합하여 시(師本音)로 발음한다. 작은 언덕의 4면을 두른다는 뜻은 무리라는 뜻이다. 自는 작은 언덕이다. 小 즉 주변의 무리를 살필 수 있다. 師자가 회의자라는 설명을 가리키는 것이다. 率자는 고문 師자이다.</p> <p>師자의 用例에서 이아·석고에서는 衆이라 하고, 釋名에서는 人이라 하고, 시경·대아에서는 京師라 하고, 설문에서는 2500인의 軍隊라 하고, 周나라에서는 師를 軍이라 하고, 玉篇에서는 法(範)이라 하고, 서경·익지서에서는 長이라 하고, 주례에서는 神이라 하여 시대와 나라와 지역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했다. 고대의 師는 天帝의 最高位 臣下의 명칭이다.</p> <p>[師異體字] 巾, 師, 獅, 自, 率, 皐, 帑, 帑, 師, 師, 帑, 師</p>				

2.2 風伯(風師)

風伯은 風神 또는 風師, 箕伯이라고도 불린다.

風伯이라는 말은 아주 일반화된 호칭으로 그 모양이 흰 수염 노인의 모양

이라고 하거나 왼손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오른 손에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 칭하기를 風伯方天君이라고도 하며, 중국 민간에서는 항상 개를 風神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다. 그 외에 많은 중국 전적에서 風伯을 말하고 있다.⁴⁾ 이를 보면, 풍사는 풍백이라고도 하였으며 雨와 함께 병칭하여 풍우라는 말로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雨師

雨師는 畢星이라고도 불린다. 西方의 白虎로 七宿 중의 다섯 번째로 8개 별이 있으며, 金牛座에 속한다. 후에 雨師는 商羊 혹은 赤松子라는 두 가지 설이 전해온다. 『三教源流搜神大全』에서 雲雨師神은 商羊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商羊은 神鳥로 발이 하나며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고, 한번 들이 마시면 溟渤을 말라버리게 할 수 있다. 이것이 雨師의 신이다. 赤松子는 또 赤誦子라고도 한다. 『列仙傳』에 이르기를 神農시대의 雨師라고 한다. 그는 赤龍으로 변화할 수 있고, 바람과 비를 따라 내리게 하고 후에 元始天에 의하여 雨師로 봉해져, 霜雨를 마음대로 한다. 雨師는 雨神이라고도 하고 風神과 같이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山海經·大荒北經』에 蚩尤가 黃帝와 싸울 때, 風伯雨師를 불러 큰 비바람을 내리게 했다고 한다.⁵⁾

- 4) 1) 『山海經』 「大荒北經」 : 蚩尤作兵伐黃帝, 黃帝乃令應龍攻之冀州之野. 應龍蓄水. 蚩尤請風伯, 雨師, 從大風雨. 2) 『周禮』 「大宗伯」 : 以燎祀司中, 司命, 風師, 雨師. 鄭玄注 : 風師, 箕也. **箕星은 二十八宿 중에서 東方 七宿의 하나. 3) 『獨斷』 : 風伯神, 箕星也. 其象在天, 能興風. 4) 『風俗通義』 : 風師者箕星也. 箕主簸揚, 能致風氣, 故稱箕伯. 5) 『風俗通義』 : (風伯)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養成萬物, 有功於人. 王者祀以報功也. 6) 『易巽』 : 爲長女也. 長者伯, 故曰風伯.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養成萬物, 有功於人, 王者祀以報功也. 戌之神爲風伯, 故以丙戌日祀於西北, 火勝金爲木相也. 7) 『楚辭』 「離騷」 : 前望舒使先驅兮, 後飛廉使奔屬. *王逸注 : 飛廉, 風伯也. **洪興祖注曰 : 應昭曰, 飛廉神禽, 能致風氣, 晉灼曰, 飛廉鹿身, 頭如雀, 有角而蛇尾豹文. 8) 『淮南子』 「真」 : 真人騎蜚廉, 馳於外方, 休於宇內, 燭十日而使風雨. *高誘注 : 蜚廉, 獸名, 長毛有翼. 但在楚地則自古以鹿身雀頭的神秘怪獸飛廉爲風伯. 9) 『三教源流搜神大全』 卷七 : 風伯神爲飛廉, 正如應昭所說的能致風氣, 身似鹿, 頭似爵, 有角, 尾似蛇, 大如豹. 10) 『歷代神仙通鑿』 卷二 『亦雲』 : 蜚廉生得鹿形蛇尾, 爵頭羊角, 與蚩尤同師一真道人, 遊居南祁, 見寸山之石, 每遇風雨則飛起似燕, 天晴安狀如故. 怪而覘之, 夜半見一物大如囊, 豹文而無足, 向地吸氣二口噴出, 狂風驟發, 石燕紛飛. 廉步如飛禽, 乃追而擒之, 是爲風母, 能掌八風消息, 通五運之氣候. 至今在永州祁陽還有座風伯山, 相傳即是當年之山. 11) 『搜神記』 : 風伯, 雨師, 星也. 風伯者, 箕星也. 雨師者, 畢星也.
- 5) 1) 『山海經』 「大荒北經」 : “蚩尤作兵伐黃帝, 黃帝乃令應龍攻之冀州之野. 應龍蓄水. 蚩尤請風伯, 雨師, 從大風雨.” 2) 『周禮』 《春官宗伯》 : “以禮祀祀昊天上帝, 以實柴祀日月星辰, 以禋燎祀司中、司命、風師、雨師.” 《周禮》 [戰國] 公元前300年-公元前100年 3) 『周禮』 「大宗伯」 ; 以燎祀司中, 司命, 風師, 雨師. 鄭玄注 : 雨師, 畢也. 4) 『天問』 ; “萍號起雨” 王逸注稱 : 萍, 萍翳, 雨師名也. 5) 『風俗通義』 (東漢·應劭) : “春秋左氏傳說, 共工之子, 爲玄冥師, 鄭大夫子產禳於玄冥. 玄冥, 雨師也.” 6) 『搜神記』 (東晉的史學家幹寶) : “赤松子者, 神農時雨師也.” 7) 『三教源流搜神大全』 卷七(是中國敘述古代民間宗教人物列傳和神仙事跡的著作典籍, 元代成書, 明代完本1368-1644年, 作者不詳. 內容記載著三大宗教各種神靈仙佛的神話傳說故事, 前後兩集, 共有七卷); “更以神鳥爲雨師, 稱雨師

2.4 雲師

雲師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지 않다. 다만 黃帝 때의 官名이며, 雲神이라고도 한다.⁶⁾

2.5 龍師

龍師는 바로 복희씨를 말하기도 하는데, 복희씨 때, 龍馬銜圖라고 하여 용마가 그림을 물고 왔다는 길조가 있어서 龍을 사용하여 标记로 삼아서 春官靑龍氏, 夏官赤龍氏, 秋官白龍氏, 冬官黑龍氏 등으로 하였고, 그 백관의 수장을 “龍師”라고 하였다고 한다. 伏羲氏는 姓이 風이고 太昊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⁷⁾

2.6 관련 기록

1) 『山海經』 「大荒北經」 : 大荒地中有山名曰不旬, 海水入焉. 有系昆之山者, 有共工之台, 射者不敢北鄉. 有人衣靑衣, 名曰黃帝女魃. 蚩尤作兵伐黃帝,

者, 商羊是也. 商羊, 神鳥, 一足, 能大能小, 吸則溟渤可枯, 雨師之神也.” 8) 『獨斷』 : “雨師神, 畢星也. 其象在天, 能興雨.” 9) 『重修緯書集成』 卷六 「龍魚河圖」 : “天太白星主兵, 其精下爲雨師之神.” 10) 『抱樸子』 「登涉」 : “山中辰日有自稱雨師者, 龍也.” 11) 『搜神記』 : “赤松子者, 神農時雨師也. 服冰玉散, 以教神農. 能入火不燒. 至崑崙山, 常入西王母石室中, 隨風雨上下. 炎帝少女追之, 亦得仙, 俱去. 至高辛時, 複爲雨師, 遊人間. 今之雨師本是焉.” 12) 『搜神記』 : “風伯, 雨師, 星也. 風伯者, 箕星也. 雨師者, 畢星也.” 11) 『列代神仙通鑒』 卷一 : “神農時, 川竭山崩, 皆成沙磧, 連天亦幾時不雨, 禾黍各處枯槁, 有一野人, 形窳古怪, 言語顛狂, 上披草領, 下系皮裙, 蓬頭跣足, 指甲長如利爪, 遍身黃毛覆蓋, 手執柳枝, 狂歌跳舞, 曰, 予號赤松子, 留王屋修煉多歲, 始隨赤真人南遊衡嶽. 真人常化赤色神首飛龍, 往來其間, 予亦化一赤虯, 追躡於後. 朝謁元始眾聖, 因予能隨風雨上下, 即命爲雨師, 主行霖雨.”

6) 1) 『左傳』 「昭公十七年」 : “昔者黃帝氏以雲紀, 故爲雲師而雲名.” 杜預注 : “黃帝受命有雲瑞, 故以雲紀事, 百官師長皆以雲爲名號.” 2) 『史記』 「五帝本紀」 : “黃帝遷徙往來無常處, 以師兵爲營衛, 官名皆以雲命, 爲雲師.” 裴駟集解 : “應劭曰 春官爲靑雲, 夏官爲縉雲, 秋官爲白雲, 冬官爲黑雲.” 3) 『南齊書』 「百官志贊」 : “百官分置, 惟皇是職, 雲師鳥紀, 各有其式.”

7) 1) 『左傳』 「昭公十七年」 : 大皞氏以龍紀, 故爲龍師而龍名. 2) 『漢書』 「百官公卿表上」 : 以爲宓戲龍師名官. 顏師古注引 應劭曰 : 師者長也. 以龍紀其官長, 故爲龍師. 3) 『三皇本紀』 : 伏羲有龍瑞, 以龍紀官, 號曰龍師. 4) 『禦批通鑒綱目』 : 太昊, 因龍馬負圖出於河之瑞, 始名官而以龍紀, 號曰龍師. 命朱襄爲飛龍氏, 造書契昊英爲潛龍氏, 造甲曆大庭爲居龍氏, 治屋廬渾沌爲降龍氏, 驅民害陰康爲土龍氏, 治田裏栗陸爲水龍氏, 繁滋草木, 疏導泉源. 又命五官, 春官爲靑龍氏, 又曰蒼龍. 夏官爲赤龍氏, 秋官爲白龍氏, 冬官爲黑龍氏, 中官爲黃龍氏.

黃帝乃令鷹龍攻之冀州之野。鷹龍畜水。蚩尤請風伯雨師，縱大風雨。黃帝乃下天女曰魃，雨止，遂殺蚩尤。

2) 『山海經』 「海外東經」：雨師妾(國)在其北，其爲人黑，兩手各操一蛇，左耳有青蛇，右耳有赤蛇。一曰在十日北，爲人黑身人面，各操一龜

3) 唐 白居易 『和微之三月三十日』：雨師習習灑，雲將飄飄翥。

4) 清 閻爾梅 『戊申禊日詩』：畚鍤平治紫陌新，雨師先爲我清塵。

5) 吳 陸璣 『毛詩草木鳥獸蟲魚疏』 「其檉其楛」：檉，河柳，生水旁，皮正赤如絳，一名雨師，枝葉似松。

6) 明 李時珍 『本草綱目』 木二「檉柳」：按羅願 『爾雅翼』雲：天之將雨，檉先知之，起氣以應，又負霜雲不凋，乃木之聖者也，故字從聖，又名雨師。

7) 『列仙傳』：爲日顛狂野人，能化爲一條赤龍，隨風雨而下，後被元始天尊封委雨師。

8) 『漢書』 「郊祀」 上：雍有二十八宿，風伯，雨師之屬百有餘廟。

顏師古注：風伯，飛廉也。雨師，屏翳也，一號屏號。而說者乃謂風伯箕星也，雨師畢星也。此志既言二十八宿，又有風伯，雨師，則知非箕，畢也。

9) 『緯書集成』 「龍魚河圖」：天熒惑星主司非，其精下爲風伯之神。太白之精，下爲風伯之神，主司非。

10) 『唐會要』 卷二二：(天寶四載七月二十七日敕) 風伯雨師，濟時育物，並宜升入中祀。仍令諸郡各置一壇。

11) 『癸巳存稿』 卷一三 「屏翳條」：『楚辭·天問』 雲 屏翳起雨。王逸注雲 屏翳，雨師名。『史記』 「司馬相如傳」 ‘大人賦’ 雲 召屏翳，誅風伯，刑雨師。下又有列缺，豐隆。則司馬相如以屏翳爲雲師。『文選』 曹子建 「洛神賦」 雲 屏翳收風，川後靜波。注引植 『詰洛文』 雲 河伯典澤，屏翳司風。謂曹指爲風師。選注又引虞喜 『志林』 雲 屏翳，韋昭說爲雷師。喜則以爲雨師。說屏翳者雖多，並無明據。今案 屏翳似雲，而號則爲風。『楚辭注』 蓋誤字。韋昭知掌故，以爲雷師。因號生義，而不知屏翳自應爲風師，『天問』 亦言風號乃起雨也。

12) 『集說詮真』：『事物異名錄』 曰，風神名巽二，又名風姨，又名方道彰。今俗塑風伯像，白須老翁，左手持輪，右手執箒，若扇輪狀，稱曰風伯方天君。

13) 『七修類稿』 卷四 「風雷雨電」條：風雷雨電四者，陰陽之氣而已，然而變化不測，則固有神寓於其間，亦何肖形怪異，如今之塑者耶。予嘗思得之，勉強以爲之解。風雷在天，天乃乾焉，乾則配屬戌亥也，是以風伯之首像犬，雷公之首像豕。雨爲水，水者坎也，坎爲中男，故雨師之像似士子。雷取象於震，震則巽之對也，故有雷公電母之稱。巽爲長女，其像婦人而已。四神取義如此，不知道家又別有說乎。

14) 『堅瓠二集』 卷二 「孟婆」條：古稱風神爲孟婆。蔣捷詞雲，春雨如絲，

繡出花枝紅嫋，怎禁他孟婆合皂。宋徽宗詞雲，孟婆好做些方便，吹個船兒倒轉。按北齊李騶駮聘陳，問陸士秀曰，江南有孟婆，是何神也。士秀曰，『山海經』帝女遊於江，出入必以風雨自隨。以其帝女，故稱孟婆。『丹鉛總錄』江南七月間，有大風甚於船舫，野人相傳爲孟婆發怒。

15) 『天香樓偶得』：北齊李騶駮聘陳，問陸士秀曰，江南有孟婆，是何神也。士秀曰，『山海經』帝之女遊於江中，出入必以風雨自隨，以帝女故曰孟婆。又宋徽宗詞雲，孟婆孟婆，你做些方便，吹個船兒倒轉。楊升庵雲，孟婆，宋汴京勾欄語，謂風也。愚謂重陽之後，風漸迅厲，故重陽前後大風，謂之重陽信。俗以九月十三爲孟婆生日，以是日占一冬晴雨。蓋春夏之風，多與雨偕，秋深之風，乾燥無雨，是知孟婆生日猶雲風生日也。祀孟婆者，祀風神，以祈其協候耳。

16) 『楚辭』「遠遊」：左雨師使徑待兮，右雷公而爲衛。

이상과 같이 고대 주요 관작의 이름으로 風伯·雨師·雲師 등을 들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이한 관작의 명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상호관계 연구도 추후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3. 古代 官職의 用例

3.1 五帝의 시대적 구분

1) 삼황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上古에 나오는 세 임금으로 천황(天皇)·지황(地皇)·인황(人皇)을 말한다.

『辭源』⁸⁾에 보면, “傳說中遠古部落의 酋長. 三皇之稱. 初見於周禮春官外史. 其名傳說不一. 天皇·地皇·泰皇라고 한 것은 『史記』「秦始皇紀」에 보인다.(전설에 원시시대에 마을집단의 시대를 달리한 추장을 ‘삼황’이라 하는데 주례춘관외사에 처음 나타나며 그 이름이 서로 다르다. “古有天皇有地皇有泰皇泰皇最貴臣等昧死上尊號王爲泰皇命爲制令爲詔天子自稱曰朕王曰去泰著皇采上古帝位號曰皇帝他如議制曰可(옛날에 天皇과 地皇과 泰皇이 있었는데 泰皇이 가장 존귀했습니다. 臣등이 우매하여 사후에야 왕호를 올려서 태황이라 했는데 천자께서 조서를 내려 자신을 朕이라 하고 泰자를 제거하고 皇자를 넣어 옛 임금의 尊號를 皇帝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다.)”

8) 《辭源》-商務印書館 P18]

그 이외에 “伏羲·神農·祝融” 혹은 “伏羲·神農·燧人”이라는 말이 『白虎通』에서 보이고, “伏羲·女媧·神農”이라고는 『風俗通皇霸, 唐司馬貞補史記三皇紀』에서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칭호에 대한 특정 인물의 대응은 전국시대 이후 천하에서 붙인 것으로, 사실적 근거로서 타당성이 부족하며, 여러 문헌에서도 일치성이 거의 없다. “天皇·地皇·人皇”이라는 칭호는 『藝文類聚十一春秋緯』에서 보이고, 『十八史略』⁹⁾에서는 太古三皇에 대하여 “天皇·地皇·人皇”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天皇氏, 以木德王. 歲起攝提. 無爲而化. 兄弟十二人. 各一萬八千歲. 地皇氏, 以火德王. 兄弟十二人. 人皇氏, 兄弟九人. 分長九州. 人皇以後. 有曰[有巢氏]. 構木爲巢. 食木實. 至[燧人氏]. 始鑽燧. 教人火食. 在書契以前. 年代·國都不可攷. (천황씨는 목덕으로 왕이 되고 歲星 즉 木星이 東北 寅의 자리에 왔을 때를 紀元元年으로 삼고, 無爲自然의 道를 따라 다스리고 교화했다. 지황씨는 화덕으로 왕 노릇 했고, 형제가 12명이다. 인황씨는 형제가 9명이 있었고, 각기 구주의 장이 되어 다스렸다. 인황씨 이후에 유소씨가 나타났으며 나무 위에 집을 엮어서 살고 또 나무 열매를 따먹는 방법을 깨우쳐주었다. 수인씨에 이르러 처음으로 鑽木이나 부싯돌로 불을 피워 사람들에게 화식의 법을 알게 했다. 서글문자가 나오기 전의 일이며 그 년대나 도읍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1) 伏羲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太昊伏羲氏, 風姓. 代燧人氏而王. 蛇身人首. 始畫八卦. 造書契. 以代結繩之政. 制嫁娶. 以儷皮爲禮. 結網罟. 教佃漁. 養犧牲. 以庖廚. 故曰庖犧. 有龍瑞. 以龍其官. 號龍師. 木德王. 都於陳. +庖犧崩. [女媧氏]立. 亦風姓. 木德王. 始作笙簧. (태호복희씨는 성이 풍이고, 수인씨 다음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蛇의 사람들과 위인들의 수장이며 처음으로 팔괘를 창안하고 문자를 만들어 옛날의 결승의 다스림을 대신하게 했다. 혼인 제도를 만들고 사슴 가죽을 納采의 예물로 삼았다. 그물과 어망을 만들고 사냥과 어로의 법을 알게 했다. 또 제사에 바칠 희생을 양육하고 부엌에서 요리하여 祭享을 올렸다. 그래서 庖犧라고 일컬었다. 용마가 하도를 지고 나타나는 길조가 있었다. 그래서 벼슬 이름에 龍자를 붙여 龍師라고 불렀다. 木德으로 왕노릇을 했다. 陳에 도읍을 두었다. 복희씨가 죽은 다음 여와씨가 임금이 되었다. 역시 성이 풍이며 목덕으로 왕노릇을 했다. 생황이란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알렸다.)”¹⁰⁾

9) 張基樞講述 P16

10) <<十八史略>>, 張基樞講述 P21

(2) 炎帝 神農氏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神農氏-薑姓.人身牛首.繼風姓而立.火德王.斲木爲耜.揉木爲耒.始教畊.作蠟祭.以赭鞭鞭草木.嘗百草.始有醫藥.教人日中爲市.交易而退.都於陳.徙曲阜. 傳[帝承][帝臨][帝則][帝百][帝來][帝襄][帝榆].薑姓.凡八世.五百二十年.(염제 신농씨의 성은 薑이다. 의인들을 대표하는 몸으로 하여 牛의 수장이 되었다. 風姓을 계승하여 왕위에 올랐으며 火德으로 왕노릇을 했다. 나무를 깎아서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휘어 쟁기를 만들고 처음으로 경작하는 법을 가르쳤다. 臘日에 제사를 드리고 붉은 채찍으로 초목을 쳐보고 모든 풀의 맛을 보고, 의약을 알리고 또 낮 정오에 시장을 열고 산물을 교역하고 끝나면 단게 했다. 陳에 도읍을 정했으나, 曲阜로 이사를 했다. 왕위를 [제승][제림][제축][제백][제래][제양][제유]에게 전했으며, 薑姓으로부터 8대에 걸쳐 520년간 이어져 왔다.)”

(3) 黃帝 軒轅氏에 대한 기록도 자세히 살펴보자.

“軒轅氏-公孫姓.又曰姬姓.名軒轅.有熊國君少典子也.母見大電繞北門樞星.感而生帝.炎帝世衰.諸侯相侵伐.軒轅乃習用幹戈.以征不享.諸侯鹹歸之.與炎帝戰於阪泉之野克之.遂代炎帝爲天子.土德王.以雲其官.爲雲師.作舟車以濟不通.得風後爲相.力牧爲將.(황제 현원씨의 성은 公孫이다. 또 姬姓이다. 이름은 현원이고 유웅국의 君이며, 소전의 다스림을 이어하였다. 그의 모친이 큰 번갯불이 북두성을 휘감는 것을 보고 감응되어 잉태하고 黃帝를 출산했다. 염제 신농의 후손이 다스리던 세상이 쇠퇴하자 제후들이 서로 무력으로 침략하고 싸웠다. 이에 현원이 몸소 무기 쓰는 법을 익히고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토벌했다. 염제의 후손을 대신하여 천자가 되고 土德으로 왕 노릇 했다. 雲자를 관작이름에 붙여 雲師라고 한다. 또 배와 수레를 만들어 교통하지 못하는 곳을 왕래케 했다. 풍후를 제상으로 삼고, 력목을 장군으로 삼았다.)” 11)

2) 五帝

오제란 명칭은 전국시대와 진한대에 만들어 사용하였고, 은상과 주대에는 없던 것이다. 그 이전은 오관만 존재하였다. 이 오관을 격상시켜 오제라 한 것이다. 오제에서 帝는 상대 말에 죽은 왕들에게 격상시켜 제을, 제행이라 붙인 것에서 유래한다.

『辭源』 12)에 보면, “相傳古代有五帝.其說不一.(고대에 오제가 존재했다는 說이 전해오는데, 그 이름의 전설이 서로 다르다.)”하고 하면서 몇 가지 용례를 들고 있다.

11) 삼황오제의 근거 기록이 서로 다른 것은 口傳 내지 참고문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黃帝가 三皇에 수록된 것은 너무 의도적이다.

12) 『辭源』-商務印書館 P73]

(1) 伏羲(太皞),神農(炎帝),黃帝,堯,舜 등을 오제하고 한 『易繫辭下』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教天下 蓋取諸益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 蓋取諸噬嗑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通其變 使民不倦 神以化之 使民宜之 易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無不利 黃帝堯舜 垂衣裳而天下治蓋取諸乾坤(包犧氏가 죽고 神農氏가 일어나서 나무를 깎아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휘어서 쟁기를 만들어 보습과 쟁기의 이익을 천하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니 이것은 益卦에서 취한 것이다. 낮에는 시장을 열어 천하 만민을 이르게 하여 재화를 모으게 하고 서로 교역한 후 물러가게 했다. 이리하여 저마다 제자리를 얻게 한 것은 대개 噬嗑卦에서 취한 것이다. 신농씨가 죽고 황제, 요순씨가 일어났다. 그는 변화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신비스러움에 감화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하게 하였다. 역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를 도와서 길하고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黃帝와 堯舜이 의상을 늘리고서 천하를 다스린 것은 대개 이것을 乾卦와 坤卦에서 취했다.)”

(2) 黃帝, 顓頊, 帝嚳, 堯, 舜라고 한 것은 『世本』 「四五帝譜」 『大戴』 「禮五帝德」, 『史記』 「五帝紀」에 보인다. 『大戴禮』 「五帝德」에서 “孔子曰 黃帝 少典之子也. 曰軒轅. 孔子曰 顓頊 黃帝之孫昌意之子也. 曰高陽. 宰我曰 請問帝嚳 孔子曰 元囂之孫 蟜極之子也. 曰高辛. 宰我曰 請問帝堯 孔子曰 高辛之子也. 曰放勳. 宰我曰 請問帝舜 孔子曰 蟜牛之孫 瞽瞍之子也. 曰重華.(대대레오제덕에, 공자가 이르기를 황제는 소전을 이어하였고, 헌원이라 한다. 공자가 이르기를 전욱은 황제의 손자이고, 창익의 아들이고, 고양이라 한다. 재아가 제곡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이르시기를 원효의 손자이고 고극의 아들이고 고신이라고 한다. 재아가 제요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이르시기를 고신의 아들이고 방훈이라고 한다. 재아가 제순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이르시기를 교우의 손자이고 고수의 아들이고 중화라고 한다.)”

瞽瞍의 瞍(소경 수)는 瞽叟(늙은이 수)로 쓰기도 한다. 五帝가 모두 黃帝와 그의 후손으로 기록된 것은 역시 후대에 필요에 의한 의도적 작품으로 보인다. 우리의 역사 기록에 배치된 부분이 많다. 이대로 보면 한중일이 모두 황제의 후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少昊, 顓頊(高陽), 高辛, 堯, 舜라고 한 것은 『帝王世紀』에 보인다.

(4) 『辭源』¹³⁾에서는 “緯書所說天上五方之帝.(緯書에서 하늘에는 다섯 방위의 帝가 있다.)”明孫穀古微書九春秋文耀鉤》에서는 “東方蒼帝, 名靈威仰.” “傳說爲主東方的青帝神.(전설에 蒼帝는 동방을 주관하는 青帝를 말한다.)” 『史記』 「天官書」 “蒼帝

13) 《辭源》, 商務印書館, P73

行德,天門爲之開”正義:“蒼帝,東方靈威仰之帝也”(사기천관서에 창제의 행덕은 天門을 여는 것이다. 정의에 창제는 동방의 靈威仰帝를 말한다. * 行德은 道德을 행함을 말한다.) 南方赤帝,名赤燁怒. 五天帝之一,南方之神. 『史記』 「天官書」 “赤帝行德,天牢爲之空.”正義:“赤帝,南方赤燁怒之帝也(사기천관서에 赤帝의 行德은 天牢를 비게 하는데 있다. 정의에 적제는 남방의 赤燁怒帝를 말한다.)”中央黃帝,名含樞紐. 五天帝之一,中央之神. 『周禮』 「天官塚宰大宰」 “祀五帝”疏“中央黃帝含樞紐,土帝也(주례 천관총재 大宰(太宰)에 五帝를 제사하는데 疏에 중앙에는 황제라 하며 함추뉴제를 말하고 이는 土帝를 말한다.)”西方白帝,名招拒. 五天帝之一,西方之神. 『周禮』 「天官塚宰大宰」 “祀五帝”疏“五帝者——西方白帝白招拒”又古以蛇神爲白帝,秦文公夢蛇,作鄜時,祭白帝.漢鄧邦所斬蛇自稱白帝子.見史記封禪書及高祖紀(주례천관총재대제에 오제를 제사하는데 소에 五帝 서방의 白帝로 白招拒帝를 말한다. 옛날에는 蛇神을 白帝라고 했다. 진나라 문공이 꿈에 뱀을 보고 부치를 세우고 白帝를 제사했다. 한나라 유방은 뱀을 죽이고 자칭 ‘나는 백제의 자손이다’라 했다고 한다. 사기 봉선서 및 고조기에 있다.)”北方黑帝,名汁光紀. 傳說之五天帝中主北方之神.(전설에 다섯 천제 중에 북방을 다스리는 신을 말한다.) 『史記』 「天官書」 “黑帝行德天關爲之動”正義“黑帝,北方汁光紀之帝也.冬萬物閉藏,爲之動,爲之開閉也.”一作“汁光紀”周禮春官소종백“兆五帝於四郊”漢鄭玄注“五帝,——黑曰汁光紀,顓頊食焉(사기천관서에 흑제의 행덕은 천관을 움직이는데 있다고 했는데 정의에 흑제는 북방의 즈광기제를 말하고, 겨울철에는 만물이 폐장된 것을 움직이게 하여 개폐의 임무를 수행한다. 일작으로 흑제를 즈광기라고 한다. 주례춘관소종백에 五帝를 四郊에서 제사지내는데 후한의 정현에 주석에는 오제중에 흑제는 즈광기를 말하고, 흑제를 전옥이 祭祀(食)했다고 한다.)”

(5) 『辭源』¹⁴⁾[周禮春官小宗伯“兆五帝於四郊”]“小宗伯之職 掌建國之神位 右社稷 左宗廟 兆五帝於四郊四望四類 亦如之”注,以太昊,炎帝,黃帝,少昊,顓頊爲五天帝(소종백의 직책은 건국의 신위를 관장하여 오른쪽에는 사직을 두고 왼쪽에는 종묘를 두며, 오제를 사묘에서 제사 지내고 사망, 사류도 이와 같이한다. 주석에 태호, 염제, 황제, 소호, 전옥을 오천제라고 했다.)* 四郊:교외의 東西南北, 四望:日月星海. 四類:三皇,五帝,九皇,六十四民.

(6) 五帝¹⁵⁾

십팔사략의 오제는 (2)에 열거한 오제의 순서 중에 3)帝王世紀의 순서와 같다. 곧 少昊, 顓頊(高陽), 高辛, 堯, 舜의 순서로 올라있다. 이러한 인물 구성은 사마천의 『史記』 「五帝本紀」의 오제와는 다른 인물 선정이다.

[少昊 金天氏] 名玄囂.黃帝之子也.亦曰青陽.其立也,鳳鳥適至.以鳥其官.(소호 금천씨는

14) 《辭源》, 商務印書館, P73

15) 《十八史略》, 張基權講述, P38

이름이 현효이며 황제를 이어하였다. 이름을 청양이라고도 한다. 그가 임금이 되자 봉황새가 날아왔다. 그래서 官名에 鳥자를 붙였다.)

【顓頊 高陽氏】昌意之子.黃帝孫也.代少昊以立.少昊之衰.九黎亂德.民神雜糅.不可方物.顓頊受之.乃命南正重司天,以屬民,火正黎司地以屬民.使無相侵瀆.始作曆,以孟春爲元.(전욱 고양씨는 창의를 아들로 황제의 손자이다. 소호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소호가 쇠하자 구주의 백성들의 도덕이 문란하게 되고 사람과 천신이 엉기고 혼잡해졌으며 모든 사물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전욱이 자리를 이어 받자 南正重으로 하여금 하늘을 관장하고 천신들을 다스리게 하고, 火正黎로 하여금 땅을 관장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으며, 서로 침범하며 모독하는 일이 없게 했다. 처음으로 달력을 만들고 봄의 첫날을 설이라 했다.)

【帝嚳 高辛氏】玄囂之子.黃帝曾孫也.生而神靈.自言其名.代顓頊而立.居於亳.(제곡 고신씨는 현효의 아들로 황제의 증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령했으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했다. 전욱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亳에 도읍했다.)

【帝堯 陶唐氏】伊祈姓.或曰,名放勳.帝嚳子也.其仁如天.其知如神.就之如日.望之如雲.都平陽.芴莢不剪.土階三等.有草生庭.十五日以前,日生一葉,以後日落一葉.月小盡,則一葉厭而不落.名曰蓂莢.觀之以知旬朔(제요 도당씨는 성이 伊祈다. 다른 이름은 방훈이라고도 하며, 제곡의 아들이다. 그의 인덕은 하늘과 같고 그의 슬기는 신과 같았다. 그를 가까이 대하면 태양과 같고, 멀리서 우러러보면 높은 구름과 같았다. 평양을 도읍으로 삼고, 그의 궁전은 소박했고 지붕의 띠풀의 끝도 자르지 않았고, 궁전의 층계도 삼단으로 올렸을 뿐이다. 군전 정원에 특이한 풀이 자랐는데 매달 보름 이전에는 잎이 하나씩 더 나오고, 보름 후에는 잎이 하나씩 떨어졌다. 적은 달에는 마지막 잎 하나가 시들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았다. 그 풀의 이름을 명협이라 불렀으며, 그 풀잎을 보고 旬朔을 알았다.)

【帝舜 有虞氏】姚姓.或曰,名重華.瞽瞍之子.顓頊六世孫也.父惑於後妻,愛小子象.常欲殺舜.舜之孝悌之道.烝烝乂不格姦.畊歷山民皆讓畔,漁雷澤人皆讓居,陶河濱器不苦窳.所居成娶,二年成邑,三年成都.(제순 유우씨는 성이 姚이고 혹은 이름을 중화라고 한다. 고수의 아들이며 전욱의 6世孫이다. 아버지가 후처에게 미혹되어 둘째아들 상을 사랑하고 큰아들 순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순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생에게 우애의 도리를 다하여, 점진적으로 감화하고 간악한데 이르지 않도록 했다. 순이 력산에서 경작하고 농사를 하면 백성들이 순에게 감화되어 밭두둑을 양보했고, 순이 퇴택에서 고기잡이를 하면, 사람들이 서로 터를 양보했고, 황하에서 도기를 만들면 그릇이 조잡하거나 비뚤어진 것이 없었다. 순이 사는 곳에 그의 덕을 흠모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고 2년이 되면 읍이 형성되고 3년이 되면 도성으로 발전했다.)

이상을 보았을 때, 삼황과 오제는 고정된 어떤 명칭이 아니고 또한 이들의 명칭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명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2 古代五官과 전국시대 등장한 五德¹⁶⁾

1) 五官¹⁷⁾ 五種官職

“相傳殷制以 司徒, 司馬, 司空, 司士, 司寇. 典司五衆爲五官(전해오는 殷制에는 오관을 사도, 사마, 사공, 사사, 사구라 한다. 전사에 오중을 오관이라 한다)”

“周代 塚宰, 司徒, 宗伯, 司馬, 司寇, 司空. 六官, 去塚宰爲五官. 見周禮春官小宗伯.(周代에는 총재, 사도, 종백, 사마, 사구, 사공인데, 6관에서 총재를 예외로 하고 五官이라 했다. 주례 춘관 소종백에 보인다.)”伏羲 - 伏羲以龍紀官故號曰龍師.(복희는 龍으로서 그 관작을 기록한 연고로 龍師라고 한다.)¹⁸⁾

“古代傳說中的部落酋長. 即太昊. 風姓. 相傳他始劃八卦, 教民捕魚畜牧, 以充庖廚. 又名庖犧或包犧(易繫辭下). 又作宓犧(漢書古今人表), 伏羲(莊子大宗師, 荀子成相, 淮南子覽冥). 宓, 即古伏字”(복희는 고대 전설 중에 마을의 추장을 말하는데 태호를 이른다. 姓은 風이고, 전설에 처음으로 팔괘를 그렸고,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기르도록 백성을 가르쳐서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하여 다른 이름으로 포희라고 한다. 주역 계사하에 있다. 한서고금인표에는 宓犧(복희), 장자 대중사, 순자 성상, 회남자 람명에는 伏羲(복희)로 쓴다. 宓字는 古代的 伏字이다.)

靑龍(春官). 赤龍(夏官). 白龍(秋官). 黑龍(冬官). 黃龍(中官).(복희는 청룡(춘관), 적룡(하관), 백룡(추관), 흑룡(동관), 황룡(중관)의 오관을 썼는데 龍을 관작명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복희를 龍師라고 한다.)

炎帝는 “神農以火紀官故號曰火師.(염제 신농은 火(불)로써 관작을 기록한 고로 火師라고 한다.)”¹⁹⁾ “傳說古帝名. 古史又稱炎帝, 烈山氏. 相傳始教民爲耒, 耜以興農業, 嘗百草爲醫藥以治疾病.(參閱晉皇甫謐帝王世紀)”(염제는 전설상의 제명인데, 古史에는 염제라 칭하기도 하고, 열산씨라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염제는 처음으로 쟁기를 만들어 백성을 가르치고, 보습을 만들어 농업을 일으켰으며, 온갖 풀을 맛보아 의약을 제조해서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했다. 진나라 황보밀의 제왕세기에 있다.) 大火(春官), 鶉火(夏官), 西火(秋官), 北火(冬官), 中火(中官): (염제는 대화(춘관). 순화(하관). 서화(추관). 북화(동관). 중화(중관)의 오관을 火(불)로써 기록하여 火師라는 명칭을 얻었다.)

黃帝는 “黃帝以雲紀官故號曰雲師.”(황제는 雲(구름)으로 그 관작을 기록한 고로 雲師라고 한다.)²⁰⁾ 이와 관련하여 문헌에서 나타나는 관작명은 靑雲(春官), 緡雲(夏

16) 《故事成語辭典》, P679

17) 《辭源》-商務印書館, P72

18) 《辭源》-商務印書館 P98]

19) 《辭源》-商務印書館 P141]

20) 《辭源》-商務印書館 P69]

官), 白雲(秋官), 黑雲(冬官), 黃雲(中官)이 있다. 史記 삼가주에 현원의 紀官은 청운(춘관), 진운(하관), 백운(추관), 흑운(동관), 황운(중관)으로 오관 모두 雲字로 써서 황제를 운사라고 한다. 少昊“少昊以鳥其官故號曰鳥師.(소호는 鳥로써 紀官한 고로 그 호를 鳥師라 한다.)²¹⁾“傳說古部落首領名.也作少昊.名摯,字青陽,黃帝子,己姓.以別於太昊,故稱少昊,以金德王,故也稱金天氏.邑窮桑,都曲阜,號窮桑帝.春秋郊自稱爲少皞後代.”(전설에 의하면 옛 마을의 수령의 이름인데 또한 太昊에 버금간다 하여 少昊라 한다. 이름은 摯요 자는 靑陽이요 황제의 아들이며 성은 기이고 태호와 구별하여 소호라 하고 금덕으로 왕이 된 고로 금덕왕이라 한다. 또한 금천씨라 칭한다. 공상에 읍을 두었는데 곡부로 도를 옮겼다. 그 호를 공상제라 한다. 춘추에 담나라에서는 자칭 소호의 후대라고 한다.)

[少昊之國]²²⁾“東海之外有大壑,少昊之國,少昊孺帝顓頊於此,棄其琴瑟,有甘水出焉,生甘淵(산해경 14대황동경에 동해 밖에 大壑이 있는데 少昊의 나라라고 한다. 소호가 전옥을 여기에서 키우고 그때의 거문고를 버려두었다. 감산이 있어 여기에서 감수가 흘러나와 감연을 이룬다.) 鳳鳥氏(歷正), 玄鳥氏(司分燕也), 伯趙氏(司至伯勞也), 青鳥氏(司啓鸚也), 丹鳥氏(司閉鷺雉也)(소호는 새(鳥)로써 紀官한 고로 鳥師라고 한다. 봉조씨(력정), 현조씨(사분연야), 백조씨(사지백로야), 청조씨(사계복야), 단조씨(사폐별치야)라 한다. 鳳鳥(봉황), 玄鳥, 伯趙(鳥名,即伯勞.古代用作官名-左傳昭17年), 青鳥(赤首黑目,一名大鷲或小鷲), 丹鳥(鳳凰의 異名,丹鳥,白鳥). 顓頊²³⁾“顓頊爲民師”“顓頊:古帝名,五帝之一.相傳以黃帝之孫,昌意之子,生十年而佐少昊,十二年而冠二十年而登帝位,在位七十八年而崩”(전옥은 옛날의 帝名으로 五帝 중에 한 분이다.)[顓頊之國]²⁴⁾“有國曰顓頊,生伯服,食黍.”(전옥의 나라가 있는데, 백복을 낳고, 기장을 먹었다.)²⁵⁾“黃帝崩其孫昌意之子高陽立是爲帝顓頊也帝顓頊高陽者黃帝之孫”(황제가 죽고 손자 창이의 아들 고양이 즉위하니 전옥이다. 전옥이 고양으로 황제의 손자이다.). 木正(春官), 火正(夏官), 金正(秋官), 水正(冬官), 土正(中官) (전옥은 民師이며 목정(춘관), 화정(하관), 금정(추관), 수정(동관), 토정(중관)의 五官으로 다스렸다.) 小學紺珠에 木正句芒, 火正祝融, 金正蓐收, 水正玄冥, 土正後土,(소학감주에 목정은 구망(木神, 春官)이니 산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일을 하였다. 화정은 축융(火神, 夏官)이니 여름을 말하며 불 담당이다. 금정은 옥수(金神, 秋官)이니 가을을 말하며 형벌 담당이다. 수정은 현명(水神, 冬官)이니 겨울을 말하며 刑戮 담당이다. 토정은 후토(土神, 中官)이니 토지에 관한 일을 맡았다.) 《左傳》“蔡黑曰五行之官是爲, 楚語觀射父曰,天地神民類物之官謂之(좌전에 채흑이 말하기를 五官을 오행의 관작을 말하며, 초어에 觀射父(관역보)가 이르기를 天, 地, 神, 民, 類物의 官職을 오관이라 합니

21) 《辭源》-商務印書館 P66]

22) 《山海經》 14大荒東經(鄭在書譯註 P285)

23) 《辭源》-商務印書館 P134]

24) 《山海經》 15大荒南經(鄭在書譯註 P301)




25) 《史記三家注 五帝本紀一》 P18]

다.)”

2) 五德

水火木金土의 五行에 대한 각 지역의 덕을 五德이라 한다. 五德, 古代 方士以五行之德, 爲王者受命之運(오덕이란 고대에 방사가 오행지덕을 말한 것인데 이는 왕이 천명을 받을 때의 운세를 말한 것이다. 수덕, 화덕, 금덕, 토덕이라는 것은 그 오행 중에 금, 목, 수, 화, 토 중에 한 기운을 받은 것을 말한다.)

德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楷 字	小 篆	金 文	甲 骨 文	[說文] 德 : 升也。升當作登。辵部曰。遷、登也。此當同之。德訓登者。公羊傳。公曷爲遠而觀魚。登來之也。何曰。登讀言得。得來之者、齊人語。齊人名求得爲得來。作登來者、其言大而急。由口授也。唐人詩。千水千山得得來。得卽德也。登德雙聲。一部與六部合韻又取近。今俗謂用力徙前曰德。古語也。從彳。惠聲。多則切。一部。惠 = 惠 = 惠 → 德 ↔ 得
德				
<p>古代에는 四行인데 後代로 내려오면서 五行思想이 대두되자 東西南北, 木火金水에 土, 中을 넣어 계절이나 방위가 아닌 土를 中方으로 설정하게 된듯하다. 예기 월령에 나타난 木德, 火德, 金德, 水德에 대해 살펴본다. 四時旺氣曰德(春夏秋冬 四時의 旺盛한 氣運을 ‘德’ 이라고 한다.)</p>				

(1) 『禮記』 26), “孟春之月日在營室昏參中旦尾中其日甲乙其帝太皞其神句芒其蟲鱗其音角律中太簇其數八其味酸其臭羶其祀戶祭先脾。是月也, 以立春, 先立春三日, 太史謁之天子, 曰某日立春, 盛德在木, 天子乃齊(3월에 해는 영실에 있고, 어두울 때는 삼성이 남방 중앙에 있고, 아침에는 미성이 남방 중앙에 있다. 그 날은 갑을이고, 그 帝(임금)는 太皞(伏羲)이며 그 神은 句芒이다. 그 벌레는 鱗蟲이며 그 소리는 角이고, 律은 太簇에 응하며 그 성수는 八이고, 그 맛은 시며 그 냄새는 양 비린내가 나고, 그 제사하는 대상은 戶神이며 제사에는 脾(지라)를 먼저 올린다. 이달에 입춘이 있다. 입춘 삼일 전에 태사가 천자에게 아뢰기를 ‘어느 날은 입춘이니 성대한 덕이 나무에 있습니다.’라고 한다. 천자는 이에 齋戒한다.”

26) 《禮記》 月令中卷 南晚星譯註 P11

(2) 『禮記』 27) “孟夏之月,日在畢,昏,翼中,旦,婺女中,其日丙丁,其帝炎帝,其神祝融,其蟲羽,其音徵,律中仲呂,其數七,其味苦,其臭焦,其祀竈,祭先肺, “是月也,以立夏,先立夏三日,太史謁之天子,曰某日立夏,盛德在火,天子乃齋(6월 달에는 해가 畢星에 있고 어두울 때는 翼星의 남쪽 중앙에 있고 아침에는 婺女星이 남쪽하늘 중앙에 있다. 그 日辰은 丙丁이고 이달을 주재하는 帝는 炎帝이고 그를 보좌하는 神은 祝融이다. 이달의 별레는 羽蟲이고 이달의 소리는 徵이다. 律은 仲呂에 응하며 이달의 成數는 七이고 맛은 쓰고 냄새는 불 냄새가 난다. 이달의 祭祀는 竈에 지내는데 肺를 먼저 제물로 바친다. 이달에 立夏가 있다. 입하 전 3일에 太史가 天子를 뵈고 ‘어느 날이 입하이니 盛德이 火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천자는 이에 齋戒한다.)”

(3) 『禮記』 28) “孟秋之月,日在翼,昏,建星中,旦,畢中,其日庚申,其帝少皞,其神蓐收,其蟲毛,其音商,律中夷則,其數九,其味辛,其臭腥,其祀門,祭先肝. 是月也,以立秋,先立秋三日,太史謁之天子,曰某日立秋,盛德在金,天子乃齋”(9월 달에는 해가 翼星에 있고 어두울 때는 建星이 남쪽하늘의 중앙에 있고 아침에는 畢星이 남쪽 하늘의 중앙에 있다. 그 日辰은 庚申이고 그 帝는 少皞이며 그를 보좌하는 神은 蓐收이고 그 별레는 毛蟲이며 그 음은 商이고 그 律은 夷則에 응하며 그 數는 九이고 그 맛은 맵고 그 냄새는 누린내가 난다. 그 祭祀는 門神에게 지내며 祭祀에는 먼저 肝을 제물로 바친다. 이달에 立秋가 있다. 立秋 삼일 전에 太史가 天子를 뵈고 아뢴다. ‘어느 날은 立秋로서 盛德이 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천자는 이에 齋戒한다.)”

(4) 『禮記』 29) “孟冬之月,日在尾,昏,危中,旦,七星中,其日壬癸,其帝顓頊,其神玄冥,其蟲介,其音羽,律中應鐘,其數六,其味鹹,其臭朽,其祀行,祭先腎.(12월에는 해가 尾星에 있다. 어두울 때는 危星이 하늘의 남쪽 중앙에 있고 아침에는 七星이 하늘의 남쪽 중앙에 있다. 그 日辰은 壬癸이고, 그 帝는 顓頊이며 그를 보좌하는 神은 玄冥이다. 그 별레는 介蟲이고 그 소리는 우성이며 음은 응중에 응한다. 그 수는 6이고 그 맛은 짜며 그 냄새는 썩은 냄새가 난다. 그 祭祀는 한길에서 지내는데 제시에는 신장을 먼저 바친다. 이달에 立冬이 있다. 立冬 3일 전에 태사가 천자를 뵈고 아뢰기를 ‘어느 날이 立冬이니 盛德이 水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天子는 이에 齋戒한다.)”

4. 결론

지금까지 古代 주요 官爵인 風伯, 雨師, 雲師, 龍師부터 시작하여 古代의

27) 《禮記》 月令中卷 南晚星譯註 P32

28) 《禮記》 月令中卷 南晚星譯註 P48

29) 《禮記》 月令中卷 南晚星譯註 P64

五官과 五德 등에 五官織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주요 인물들과 관련하여 그 인물이 활동한 시대의 주요 관작들을 정리하였다. 상고의 인물들과 관련한 직책 이름들은 雲, 雨, 雷 등과 같은 자연현상을 이용하거나 鳥, 龍, 牛 등을 이용하여 관작과 그 수장을 나타내었다. 조직화된 체계에서의 관작은 五方に 기반한 또는 五行의 5요소를 응용하여 특정 분야에 대해 5개의 관작을 두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五方の 五官, 五帝 등이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木正, 火正, 金正, 水正, 土正 등이 있다.

전국시대에 五方에 대한 五官을 五帝라 칭하였으며, 이렇게 격상된 존칭이 《史記 五帝本紀》를 만드는데 그대로 인용되고 정리되었다. 그러나 五官은 동시대에 5명의 관작자들이 있었던 것인데, 사마천은 이를 잘못 적용하여 시대별 1인씩 5세대에 걸쳐 5명을 五帝라 하였다. 역사 해석과 정리에 대한 심각한 잘못이 여기에 있다. 또한 삼국유사 고조선 조의 번역자들이 만들어 낸 風伯, 雨師, 雲師에 대한 비, 구름, 바람이라는 해석도 이러한 관작을 모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고대 관작명에 대한 한자학적 해석과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 연구는 문치웅 박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參考文獻]

- 程俊英(2004), 十三經譯注, 詩經譯注, 上海古籍出版社.
- 陰法魯, 許樹安(1996), 『中國古代文化史1,2,3』, 北京大學出版社.
- 段玉裁(1991),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 張玉書, 陳廷敬等(1990), 『康熙字典』, 上海商務印書館.
- 張舜徽(2009), 『說文解字約注』, 華中師範大學出版社出版.
- 丁福保(1988),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出版.
- 朱駿聲(1983), 『說文通訓定聲』, 武漢市古籍書店.
- 湯可敬(2018), 『說文解字今釋』(東漢許慎者: 湯可敬「撰」, 上海古籍出版社).
- 許慎 撰, 徐鉉 等 校定(1992), 『說文解字』, 中華書局.
- 商務印書館編輯部等(1983), 『辭源』(套裝全2冊), 商務印書館.
- 張傳璽(1999), 『簡明中國古代史』, 北京大學出版社.
- <http://ctext.org/guanzi/shu-yan/zh>: 經典(Jingdian)(2021년 6월1일 접속)
- <http://hanji.sinica.edu.tw/>(2021년 6월1일 접속)
- <http://www.gushiwen.org/GuShiWen>(2021년 6월1일 접속)
- <http://www.guoxue123.com/>(2021년 6월1일 접속)
- <http://www.tcmdoc.cn/>(2021년 6월1일 접속)
- <https://www.donglishuzhai.net/>(2021년 6월1일 접속)
- <https://www.shichui.com/mingju/15748.html>(2021년 12월1일 접속)

5 『三國遺事』의 ‘得’에 대한 고찰

양원석(고려대)¹⁾

목 차

1. 서론
2. ‘得’의 字源 및 사전적 의미
3. 『三國遺事』의 ‘得’에 대한 고찰
4.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三國遺事』에 쓰인 ‘得’의 용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三國遺事』의 ‘得’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와 그 ‘得’이 쓰인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得’의 자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本義를 확인하고, 아울러 ‘得’이 가지는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이어서 『삼국유사』에 쓰인 得의 용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그 사용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三國遺事』에 쓰인 ‘得’의 의미와 용법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三國遺事』에 쓰인 ‘得’에 대해 고찰해야 하는가? 왜 한국의 여러 고전 중에서 『삼국유사』를 텍스트로 삼았는지, 왜 용례와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得’을 선택했는가?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본론의 과정을 거친 후에 언

1)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 yang1st@korea.ac.kr

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得’의 字源 및 사전적 의미

2.1 ‘得’의 字源

‘得’의 字形 변화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

2) <https://xiaoxue.iis.sinica.edu.tw/yanbian?kaiOrder=2089>

 鐵29.1(甲) 商	 京都2113(甲) 商	 得觚(金) 商代晚期	 留鼎(金) 西周中期	 大克鼎(金) 西周晚期
 井人妥鐘(金) 西周晚期	 虢叔旅鐘(金) 西周晚期	 余曠透兒鐘 (金) 春秋晚期	 宋公得戈(金) 春秋晚期	 子禾子釜(金) 戰國, 齊
 陶彙3.25 戰國, 齊	 匱彙3.889 戰國, 齊	 匱彙1290 戰國, 燕	 中山王響鼎 (金) 戰國晚期, 晉	 包2.102 戰國, 楚
 包2.6 戰國, 楚	 集粹 戰國, 秦	 秦陶252 戰國, 秦	 說文古文	 說文·彳部
 泰山刻石(篆) 秦	 睡虎地簡 24.18(隸) 秦	 老子甲5(隸) 西漢	 春秋事語 28(隸) 西漢	 老子乙前1上 (隸) 西漢
 定縣竹簡1(隸) 西漢	 禮器碑(隸) 東漢	 西狹頌(隸) 東漢	 熹, 易, 旅(隸) 東漢	

‘得’의 갑골문, 금문 등의 자형에 대한 제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羅振玉은 ‘得’의 갑골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갑골문은 손으로 조개를 잡고 있는 모양에서 뜻을 취한 것으로 ‘얻다’의 뜻이다. 혹 彳을 더하기도 한다. 『설문해자』에는 ‘古文从見’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从貝의 잘못된 듯 하다.”³⁾

季旭昇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甲骨文의 초기 형태는 ‘손’이 ‘조개’를 잡고 있는 모양에서 뜻을 취한 것으로 진귀한 보물 재화를 얻었다는 뜻이다. 위의 자형 중에서 商代晩期の ‘得觚’에 보이는 金文 자형은 상형의 의미가 가장 농후하다. 혹 ‘彳’을 더하여 길에서 얻음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춘추시대에는 ‘貝’이 생략되어 ‘目’이 되었으며, 禮器와 碑에서는 더욱 日로 잘못 변하기도 하였다.”⁴⁾

金彦鍾의 『한자의 뿌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得의 좌측을 구성하는 ‘彳(비틀거릴 ‘척’과는 다른 글자임)’은 네거리의 상형인 行의 생략형으로 ‘거리’, ‘걸어감’, ‘동작’을 뜻하는 글자이다. 우측의 扌(애)는 갑골문과 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윗부분은 조개의 상형, 아랫부분은 손의 상형이다. 즉 조개는 돈이므로 돈을 주는 손의 상형인 것이다. 그러므로 得은 ‘거리에서 돈을 줍다’가 본뜻이다.”⁵⁾

『漢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會意이다. 金文 자형에서 오른쪽 부분은 ‘조개’(貝, 財貨)에 ‘손’을 더한 것이고 왼쪽 부분은 ‘彳’으로, 길에서 얻음이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손 안에 재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얻음이 있는 것이다. 本義는 ‘얻다’, ‘획득하다’이다.”⁶⁾

한편 小篆를 기준으로 하는 『설문해자』에서는 “得은 길에서 얻음이 있는 것이다. 彳에서 뜻을 취했고 扌에서 소리를 취했다.”⁷⁾

이상과 같이 갑골문, 금문 자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手(손), 貝(조개), 彳(거리)라는 뜻의 요소가 결합되어 ‘얻다’라는 뜻을 나타냈다는 것으로, ‘得’의 本義는 ‘얻다’이다. 한편 소전의 경우 扌를 聲符로 보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갑골문 금문 자형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2.2 ‘得’의 사전적 의미

-
- 3) 羅振玉(2006), 『増定殷虛書契考釋』, 中華書局. : 甲骨文 “从又持貝, 得之意也. 或増彳. 許書古文从見, 殆从貝之譌.”
- 4) 季旭昇(2004), 『說文新證』, 藝文印書館, 上 118-119면, “甲骨初文從又持貝, 會獲得珍貴的寶物財貨之意. 得觚一形, 象形意味最濃. 或加彳, 強調行有所得. 春秋時代, ‘貝’形省爲‘目’, 禮器碑進一步訛爲‘日’.”
- 5) 金彦鍾(2001), 『한자의 뿌리』
- 6) <https://www.zdic.net/hans/%E5%BE%97>
“會意. 金文字形, 右边是‘貝’(財貨)加‘手’, 左边是‘彳’, 表示行有所得. 手里拿着財貨, 自然是有所得. 本义, 得到, 获得.”
- 7) 『說文解字』 卷二 : “得, 行有所得也. 从彳, 得聲.”

아래에서는 ‘得’의 본의 뿐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거나 가차되어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뜻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즉 사전에 수록된 得의 뜻에 대한 정리이다.⁸⁾

得 dé

1) 동사

(1) 本義 : 얻다, 획득하다 (獲得, 得到)

(2) 本義와 같음 (同本義) [get; obtain; gain]

得,行有所得也。——《说文》

三人行必得我师焉。——《论语》。释文:“本或作必有。”

缘木求鱼,虽不得鱼,无后灾。——《孟子·梁惠王上》

佳婿难得。——《世说新语·假谲》

卖炭得钱何所营。——唐·白居易《卖炭翁》

工之侨得良桐焉。——明·刘基《郁离子·千里马篇》

(3) 찾다 (找到) [discover;obtain;find out]

知得而不知丧。——《易·文言》

虑而后后能得。——《礼记·大学》。注:“谓得事之宜也。”

至德不得。——《庄子·秋水》

既而得其尸于井。——《聊斋志异·促织》

(4) 알다 (得知) [hear of;learn about]

故无术者得于不用。——《韩非子》

礼得其报则乐。——《礼记·乐记》。注:“谓晓其义。”

武王得之矣。——《吕氏春秋·义赏》。注:“犹知也。”

(5) 잡다 (捕获) [catch]

然得而腊之以为饵。——唐·柳宗元《捕蛇者说》

(6) 잡히다 (亦指被捕获; 被逮捕.)

8) 본고에서 검토한 得의 사전적 의미는 『漢典』의 내용을 위주로 한 것으로, 아래 내용은 『漢典』의 ‘得’에 대한 詳細解釋을 요약한 것이다.

- (7) 성공하다, 완성하다 (成功; 完成) [succeed]
已经传人画图样去了。明日就得。——《红楼梦》
- (8) 적합하다 (适, 合) [fit;befit;suit]
傲啸东轩下,聊复得此生。——陶渊明《饮酒》
- (9) 갖추다 (具备) [have;possess]
积善成德,而神明自得。——《荀子·劝学》
- (10) ‘德’ 과 같은 뜻. (同“德”, 恩惠, 感恩) [be grateful;feel grateful]
所识穷乏者得我欤。——《孟子·告子上》
地广而不得者国危,兵强而凌敌者身亡。——《盐铁论·击之》
- (11) 조동사 ‘can’ / 助动词. 能, 能够/ [can]
孔子下,欲与之言,趋而避之,不得与之言。——《论语·微子》
以是人多以书假余,余因得遍观群书。——宋濂《送东阳马生序》
进退不得,为之奈何?——《吴子·应变》
沛公军 霸上,未得与 项羽相见。——《史记·项羽本纪》
- (12) 만족하다 (得意, 满足) [be proud of;revel in]
意气扬扬,甚自得也。——《史记·管晏列传》
常使两情皆得,彼此俱畅。——《世说新语·文学》
- (13) 보다(看到) [see]
林尽水源,便得一山。——晋·陶渊明《桃花源记》

2) 명사

- (1) 얻음 (收获, 心得) [what one has learned]
古人之观于天地、山川、草木、虫鱼、鸟兽,往往有得。一宋·王安石《游褒禅山记》
开卷有得,便欣然忘食。——《南史·陶潜传》
- (2) 덕, 도덕, 유덕한 사람 (德, 道德, 有德之人) [virtue]
尚得推贤不失序。——《荀子》

3) 부사

(1) 반드시, 마땅히 (必須, 應該) [must]

君为我呼入,吾得兄事之。——《史记·项羽本纪》

4) 형용사

(1) 적합한, 정확한 (合适; 正确) [suitable:right]

于彼计则得。——马中锡《中山狼传》

历古今之得失。——《汉书》

得 de děi

Ⅲ. 『삼국유사』의 ‘得’에 대한 고찰

『三國遺事』 원문을 확인해 보면 ‘得’은 약 200회 가량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人名에 ‘得’이 사용된 경우가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례는 대부분 앞에서 제시했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조선 조에서는 한 문장 중에 네 곳에서 得이 사용된 경우도 있다.

먼저 人名에 ‘得’이 사용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다. 『삼국유사』에서 ‘得’이 인명의 일부로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得令公	馬得	車得公
得烏	得烏失	得烏谷
茂得	高得相	努盼夫得
夫得	夫得師	得奧微定
向得		

이러한 인명 위주의 得이 있지만 하나의 문장 속에서 得이 여러 의미를 가지는 예로는 고조선 조에 문장 중 네 곳에서 연속하여 사용된 예가 『古記

』 인용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있다.

爾輩食之不見日光百日便得人形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熊得女身虎不能忌而不得

이 예문이 곰이 사람으로 변하였다고 설명되어 신화화되게 한 주요 요소이다. 이 문장에서 동물인 곰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용된 한자가 바로 得이다. 이러한 해석의 시초는 근대시기 일본인들에 이루어졌다. 위의 고조선 조 기록의 내용을 일본어로 해석한 내용은 1918년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와 구사카 히로시(日下 寛)에 의한 번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爾か輩之れを食し日光を見ざること百日せば、便ち人形を得んと、熊虎得て之を食し、忌むこと三七日、熊は女身を得、虎は忌む能はずして人身を得ず

이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일광을 보지 않는 날이 백일이 지나면 곧 인간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가 이를 먹고 삼가길 21일(三七日), 곰은 여자의 몸을 얻고 호랑이는 삼가지 않아서 인간의 몸으로 되지 못하였다.

또, 1923년 히라이와 유스케(平岩佑介)가 번역한 삼국유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의 위의 원문에 대한 得의 의미를 포함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爾輩の願望は、たしかに聴きとゞけてやる。しかし、此の靈艾と蒜を食つた後、百日の間、日光を見てはいけない、我言をよく守つて居さへすれば必ず生を人間にかへることが出来る。熊と虎とは、大歡びで穴に歸つた。しかし横著な虎は天王の吩咐通り守らなかつたので落第したが、熊は眞面目にいひつけ通りを行つたので、到頭女に生れかはつた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너희들의 願望은 틀림없이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 쑥과 마늘을 먹은 후 백일 동안 日光을 봐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잘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매우 기뻐서 굴로 돌아왔다. 그러나 태만한 호랑이는 天王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낙제했지만,

꿈은 착실하게 지시대로 행했기 때문에 마침내 여자로 다시 태어났다.

1926년 오다쇼고(小田省吾)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爾輩之を食し、日光を見ざること百日なれば、便ち人形を得んと。熊虎得て之を食し、忌むこと三七日、熊は女身を得、虎は忌むこと能はずして人身を得ず

이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百日)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하였다.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먹고 근신하기를 21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고 호랑이는 능히 근신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와 구사카 히로시(日下 寛), 히라이와 유스케, 오다쇼고의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서 得에 대한 의미 해석을 정리해 보면 獲得의 의미의 ‘얻다’, 사람으로 生하다, ‘變’ 또는 ‘化’의 ‘변하다’의 의미로 파악하였다.

한자의 의미에서 ‘~으로 변하였다’라는 의미는 變 또는 化가 있다. 이 두 字는 특정 물체의 형체나 성질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得의 의미에는 꿈이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형체로 바뀐다는 의미는 없다. 꿈이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得이 아니라 變 이나 化 字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得을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와 구사카 히로시(日下 寛), 오다쇼고는 變 또는 化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히라이와 유스케는 ‘다시 태어나다’, ‘살다’의 의미인 生으로 해석하였다. 히라이와 유스케의 의미도 결국은 ‘변하다’, ‘바뀌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해석은 得에 의한 문자학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熊虎와 이어지는 人, 그리고 得을 연결시켜 ‘바뀌다’, ‘변하다’로 인식하여 무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해석과정에서 앞뒤 문맥이 맞지 않으니 네 곳에 있는 得의 의미 해석을 부분적으로 빼고 해석한 측면도 있다. 한자의 훈고에서 이러한 방식에 의한 문장의 이해는 거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문장 중의 한자의 의미를 생략하고 해석함은 바른 해석이 되지 못한다.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서 得이 사용된 부분을 기준으로 문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 이해해 보자. 이를 위해 得을 포함하고 있는 고조선 조 문장의 주요한자에 대한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

食 - 血食祭

不見 - 불현, 드러나지 않다

日 - 七政의 첫 번째인 日

七政은 고대에 지역을 구분하여 부르던 日, 月, 北方, 南方, 東方, 西方, 中方의 일곱 지역

人 - 고대 시기의 人은 대신 君 이상 또는 王에 대해서만 사용,

일반인은 衆 또는 民

熊虎 - 熊虎는 一熊一虎의 축약적 표현으로 熊으로 상징되는 그룹의 최고위직과 虎로 상징되는 그룹의 최고위직에 오르다. 熊, 虎, 龍, 朱雀, 玄武는 오방지역의 상징 동물임

忌 - 祭日, 忌日

七日 - 7일째의 中方에 대한 제사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각 부분에 대한 得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爾輩食之不見日光百日便得 - 영토, 땅을 개척 또는 전쟁으로부터 승리하여 ‘얻다’의 의미

人形熊虎得而 - 공적평가를 통해 지위, 왕자리, 리더자리를 얻다 또는 오르다의 의미

食之忌三七日熊得女身 - 지위에 오르다의 의미

虎不能忌而不得 - 제사날을 없애버린다. 특정인의 제사를 못하게 하다. 제삿날을 취하지 못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得에 대한 의미를 구분, 정리하고 삼국유사에서 나타나는 得의 주요 쓰임에 대하여 다루었다. 특히 고조선 조에서 나타나는 得의 의미에 대해 초기 해석 내용들을 분석하여 得의 의미 사용이 잘못 이해되고

문장의 해석에서 일부 한자들이 생략되어 문장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得의 의미에 대해 變 또는 化의 의미로 파악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得의 의미로 볼 수 없는 것이다. 變 또는 化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바뀐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得 字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곰이 사람으로 바뀐다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得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기준삼아 문장을 세분화하여 그 문맥에 맞는 의미를 파악하였다.

* 이 연구는 문치웅 박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메모1

홍익재단

메모2

홍익재단

메모3

홍익재단

메모4

홍익재단